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분석 :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최은영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7-49-02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분석 :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최은영·문무경·이윤진·양미선·엄지원·Minyi Li·박금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7-49-02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분석
: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인쇄일 2017년 12월 26일
발행일 2017년 12월 30일
발행인 한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414-1114
팩 스 044)414-1144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 02-2269-9917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비매품
ISBN 978-89-322-5082-3 94320
978-89-322-5080-9 (세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017년도 협동연구사업 중국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7-49-02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분석 :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문무경·이윤진·양미선· 엄지원·Minyi Li·박금해

Ⅰ 국문요약 Ⅰ

본 연구에서는 인구제한 정책 하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인구제한 정책을 설계한 북경과 연변 지역을 특정하여 출산·육아 현황을 파악하고, 출산·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출산·육아의 기능적 변화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양육의 책임이 점차 가정에서 사회 또는 민간시장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이라는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과 경험은 중국사회에도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인구 및 출산 관련 선행연구, 사회인구학적 특성,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정책 변화 등을 고찰하고,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관련 정책 요구 등을 조사(설문조사와 심층면담)하였으며, 지역별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관련법과 제도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경 지역은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도입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법」을 근거로 시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구수, 인구 분포를 조절·통제하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한 한편,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절하는 조항 역시 포함하고 있어 여전히 제한적 의미의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 정책 시행에 따라 2017년 북경시 상주인구 인구 출생률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측이 모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변 지역의 경우, 「길림성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도시, 지역, 민족과 관계없이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재출산이 허용된다. 북경과는 달리 연변은 자치주 특성

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재정 여건의 미비가 정책 가동의 실질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관련 정책 요구 등을 조사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경 지역의 부모들은 출산휴가, 출산보조금, 모자보건서비스, 자녀보조금과 같은 출산 정책들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정책 민감도가 높아 관련 정책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 출산계획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두자녀 허용 정책의 영향 정도가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정책이 단기적인 출산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 지역에서 육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은 개인시간 부족, 육아비용 부담이었으며, 부의 육아참여율, 자녀의 기관이용이 육아의 어려움 정도를 낮추는 변수로 나타나 육아지원기관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바람직한 자녀 수, 높은 자녀 가치가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였으며,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정책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면적 두자녀 허용정책이 실시되었지만 연변 지역은 일찍이 두자녀가 허용되고 세자녀까지 가능하다는 특수성 때문에 정책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역시 북경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인시간 부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 믿고 맡길 유아원 부족, 육아비용 부담 순으로 나타나 육아지원을 위해 돌봄서비스 도입과 공공보육시설 확충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육아의 어려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총 자녀 수, 낮은 사교육 비용 부담, 급할 때 돌봄 지원인력 수가 육아의 어려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의 차별성을 논하고,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쟁점으로 자녀 가치에 대한 정책적

대응 수준, 양육 주체로서 부모와 기관의 역할 균형, 조부모 돌봄에 대한 국가 개입 여부, 대리양육 인력 양성 및 관리 요구에의 대응, 정책 구현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정부 역할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로서 출산·육아 정책의 다면화, 탄력적 근무시간 운용 확대, 한자녀 가구 대상의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로서 육아지원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 돌봄서비스 지원 시설 확충, 0~2세 영아 돌봄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육아정보 지원 강화, 유아원 운영시간 연장, 영아 이용기관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중 공조를 위한 향후 과제로서 출산·육아 정책 관련 이슈 공유를 위한 채널 구축, 육아지원 서비스 산업(산후조리원 등)의 민간교류 지원, 영유아 시장 진입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Ⅰ 국문요약	5
Ⅱ 제1장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22
2. 연구 내용	24
3. 연구 방법	25
가. 문헌 연구	25
나. 심층 면담	25
다. 설문 조사	27
라. 간담회 개최	31
4. 연구의 제한점	31
Ⅲ 제2장 연구의 배경	33
1. 선행연구 분석	34
가. 국내 연구	34
나. 중국 연구	37
2. 중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9
가. 총 인구 수 및 인구증가 추이	40
나. 합계출산율(TFR)	46
다. 가족 규모 및 여성 고용률	50
라. 사회보장 제도	51
마. 경제	55

3.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57
가.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출산·육아)법	57
나. 출산 휴가에 대한 최신 규정	59
다.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	60
4.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정책 변화	63
가. 둘만 낳자(1971~1977)	63
나. 하나만 낳자(1978~2001)	64
다. 제한적 두자녀 허용(2002~2015)	65
라. 전면적 두자녀 허용(2016~)	65
Ⅰ 제3장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69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70
가. 관련 통계	70
나. 관련 법규	77
다. 출산·육아 정책	82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83
가. 관련 통계	83
나. 관련 법규	88
다. 출산·육아 정책	90
3. 소결	92
Ⅰ 제4장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95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96
가. 출산 및 출산계획	96
나. 육아 실태	117

다. 육아 정책에 대한 요구	141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150
가. 출산 및 출산계획	150
나. 육아 실태	170
다. 육아 정책에 대한 요구	195
3.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205
가.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205
나.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210
4. 소결	214
가.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214
나.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216
다.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218
Ⅰ 제5장 논의 및 정책적 함의	221
1. 요약 및 시사점	222
가. 북경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222
나. 연변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224
다. 시사점	225
2. 주요 쟁점 및 과제	229
가.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관련 쟁점	229
나.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	232
다. 저출산 해결의 한중 공조를 위한 향후 과제	237
Ⅰ 참고문헌	239

부 록	245
부록 1. 면담 질문지	246
부록 2.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	252
부록 3.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중문)	258

표 차례

표 1-3-1.	면담조사 참여자 배경: 북경 지역 영유아 부모	25
표 1-3-2.	면담조사 참여자 배경: 연변 지역 영유아 부모	26
표 1-3-3.	면담조사 참여자 배경: 전문가 및 공무원	26
표 1-3-4.	심층 면담의 주요 내용	27
표 1-3-5.	설문조사 방법	28
표 1-3-6.	설문조사 내용	28
표 1-3-7.	북경 지역 응답자 특성	29
표 1-3-8.	연변 지역 응답자 특성	30
표 2-2-1.	연도별 인구수	41
표 2-2-2.	인구 수	42
표 2-2-3.	인구 수	43
표 2-2-4.	인구증가율	43
표 2-2-5.	지역별 출생률, 사망률, 자연성장률: 2015	44
표 2-2-6.	연령구간별 인구 수	45
표 2-2-7.	연도별 기대 수명	46
표 2-2-8.	연도별 합계출산율	46
표 2-2-9.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전망	48
표 2-2-10.	모 연령 및 출생순위별 출산율	49
표 2-2-11.	지역규모별 가구원 수	50
표 2-2-12.	연도별 노동인구 대비 여성노동력 비율	51
표 2-2-13.	지역별 출산보험 가입자와 수혜자 수 및 비율: 2015	52
표 2-2-14.	지역규모별 사회보장 프로그램	54
표 2-2-15.	국민 1인당 GDP	55
표 2-2-16.	사회보장 및 고용지출	56
표 2-3-1.	인구발전계획 주요 내용	58
표 2-3-2.	출산·육아 관련 내용	59

표 2-3-3.	전국 출산 휴가 최신 규정	60
표 2-3-4.	모자보건법의 임신기간 보건 관련 주요 내용	61
표 2-3-5.	모자보건법 실시방안의 주요 내용	61
표 2-3-6.	모자보건법 실시방안 중 임신기간 보건 관련 주요 내용	62
표 2-3-7.	모자보건법 실시방안 중 영유아 보건 관련 주요 내용	63
표 3-1-1.	영구 인구 추이: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2015	71
표 3-1-2.	연령별 인구 비율: 2015	72
표 3-1-3.	영구 인구의 가족 크기(2015)	73
표 3-1-4.	전체 가구의 기본 생활 조건: 2015	74
표 3-1-5.	국내총생산(GDP):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2015	75
표 3-1-6.	유아원 기본 통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2015 ..	76
표 3-1-7.	유아원 통계: 2015	76
표 3-1-8.	북경시 인구 및 계획 생육 조례 주요 내용	77
표 3-1-9.	북경시 인구 및 계획 생육 조례의 출산육아 관련 내용	78
표 3-1-10.	북경시 출산 휴가 관련 최신 규정	79
표 3-1-11.	북경시 여성근로자 특별보호 규정	80
표 3-1-12.	출산 휴가 기간 중 급여	81
표 3-2-1.	길림성 인구 통계 추이	84
표 3-2-2.	연변자치주 인구 구성: 2015	86
표 3-2-3.	도시 가구의 1 인당 소비 지출: 2015	86
표 3-2-4.	국내총생산(GDP):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2015	87
표 3-2-5.	유아원 통계	88
표 3-2-6.	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의 출산·육아 관련 내용	88

표 3-2-7.	연변조선족 자치주 인구 및 계획생육에 관한 규정	90
표 3-2-8.	길림성 출산 휴가 관련 최신 규정	90
표 4-1-1.	출산휴가 이용 여부	97
표 4-1-2.	출산휴가 이용일(산전)	97
표 4-1-3.	출산휴가 이용일(산후)	99
표 4-1-4.	출산휴가 이용일(전체)	100
표 4-1-5.	출산휴가 기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	101
표 4-1-6.	적절한 출산휴가 기간	102
표 4-1-7.	배우자(남편) 출산동반휴가 이용 여부	103
표 4-1-8.	산후조리 도와준 사람 또는 기관(중복응답)	104
표 4-1-9.	산후도우미 및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105
표 4-1-10.	산후도우미(베이비시터) 이용 비용	105
표 4-1-11.	향후 추가 출산 계획 여부	106
표 4-1-12.	추가 출산시 희망 자녀 수	107
표 4-1-13.	추가 출산시 선호 성별	107
표 4-1-14.	추가 출산 미계획 이유	108
표 4-1-15.	바람직한 자녀 수	109
표 4-1-16.	추가 출산 계획시 두 자녀 전면 허용정책의 영향 정도	110
표 4-1-17.	정부 지원 인지 및 이용 여부(출산휴가)	111
표 4-1-18.	정부 지원 만족도(출산휴가)	111
표 4-1-19.	정부 지원 인지 및 이용 여부(출산보조금)	112
표 4-1-20.	정부 지원 만족도(출산보조금)	113
표 4-1-21.	정부 지원 인지 및 이용 여부(모자보건서비스)	113
표 4-1-22.	정부 지원 만족도(모자보건서비스)	114
표 4-1-23.	정부 지원 인지 및 이용 여부(자녀보조금)	115
표 4-1-24.	정부 지원 만족도(자녀보조금)	115

표 4-1-25. 출산보험 가입 여부	116
표 4-1-26. 출산 휴가 중 급여 정도	117
표 4-1-27. 평일 주양육자	118
표 4-1-28. 평일 주양육자의 돌봄 시간	120
표 4-1-29. 자녀가 어제 엄마와 함께 한 시간	121
표 4-1-30. 자녀가 어제 아빠와 함께 한 시간	122
표 4-1-31. 육아참여 비율(엄마)	123
표 4-1-32. 육아참여 비율(아빠)	124
표 4-1-33. 가사참여 비율(엄마)	125
표 4-1-34. 가사참여 비율(아빠)	126
표 4-1-35. 현재 기관 이용 여부	127
표 4-1-36. 기관 이용기간	128
표 4-1-37. 기관 하루 이용시간	129
표 4-1-38. 기관 이용 시 어려움	130
표 4-1-39. 평일 주양육자에게 양육비 지불 방법	131
표 4-1-40. 평일 주양육자에게 지불하는 월평균 양육비	132
표 4-1-41. 월평균 기관이용비	133
표 4-1-42. 월 평균 비용과 가계부담 정도	134
표 4-1-43. 급할 때 자녀를 맡기는 사람(기관)	135
표 4-1-44. 급할 때 자녀 돌봄에 도움 주는 사람 수	137
표 4-1-45.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138
표 4-1-46.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도	140
표 4-1-47.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치	141
표 4-1-48. 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 필요성	142
표 4-1-49. 우선 희망하는 출산·육아지원 정책(1순위)	143
표 4-1-50. 우선 희망하는 출산·육아지원 정책: 1순위, 1+2순위 비교	144

표 4-1-51. 자녀 출산·육아 직장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	145
표 4-1-52. 육아지원 인프라의 충분성	146
표 4-1-53. 영아 이용기관 필요 여부	146
표 4-1-54. 희망하는 영아 돌봄 방법	148
표 4-1-55. 적절한 영아 돌봄 기관 설치 방안	149
표 4-2-1. 출산휴가 이용 여부	150
표 4-2-2. 출산휴가 이용일(산전)	151
표 4-2-3. 출산휴가 이용일(산후)	152
표 4-2-4. 출산휴가 이용일(전체)	153
표 4-2-5. 출산휴가 기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	154
표 4-2-6. 적절한 출산휴가 기간	154
표 4-2-7. 배우자(남편) 출산동반휴가 이용 여부	155
표 4-2-8. 산후조리 도와준 사람 또는 기관(중복응답)	156
표 4-2-9. 산후도우미 및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157
표 4-2-10. 산후도우미 및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157
표 4-2-11. 향후 추가 자녀 계획 여부	158
표 4-2-12. 추가 출산시 희망 자녀 수	159
표 4-2-13. 추가 출산시 선호 성별	159
표 4-2-14. 추가 출산 미계획 이유	160
표 4-2-15. 바람직한 자녀 수	162
표 4-2-16. 추가 출산 계획시 두 자녀 전면 허용정책의 영향 정도	163
표 4-2-17. 정부 지원 인지 및 이용 여부(출산휴가)	164
표 4-2-18. 정부 지원 만족도(출산휴가)	164
표 4-2-19. 정부 지원 인지 및 이용 여부(출산 보조금)	165
표 4-2-20. 정부 지원 만족도(출산 보조금)	166
표 4-2-21. 정부 지원 인지 및 이용 여부(모자보건서비스)	166

표 4-2-22. 정부 지원 만족도(모자보건서비스)	167
표 4-2-23. 정부 지원 인지 및 이용 여부(자녀 보조금)	167
표 4-2-24. 정부 지원 만족도(자녀 보조금)	168
표 4-2-25. 출산보험 가입 여부	169
표 4-2-26. 출산 휴가 중 급여 정도	170
표 4-2-27. 평일 주양육자	171
표 4-2-28. 평일 주양육자의 돌봄 시간	172
표 4-2-29. 자녀가 어제 엄마와 함께 한 시간	173
표 4-2-30. 자녀가 어제 아빠와 함께 한 시간	174
표 4-2-31. 육아 참여 비율(엄마)	176
표 4-2-32. 육아 참여 비율(아빠)	177
표 4-2-33. 가사 참여 비율(엄마)	178
표 4-2-34. 가사 참여 비율(아빠)	179
표 4-2-35. 현재 기관 이용 여부	181
표 4-2-36. 기관 이용 기간	182
표 4-2-37. 기관 하루 이용 시간	183
표 4-2-38. 기관 이용 시 어려움	184
표 4-2-39. 평일 주양육자에게 양육비 지불 방법	185
표 4-2-40. 평일 주양육자에게 지불하는 월평균 양육비	187
표 4-2-41. 기관 월 평균 이용비	187
표 4-2-42. 월 평균 비용과 가계부담 정도	188
표 4-2-43. 급할 때 자녀를 맡기는 사람(기관)	189
표 4-2-44. 급할 때 자녀 돌봄에 도움 주는 사람 수	191
표 4-2-45.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192
표 4-2-46.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 정도(양육스트레스)	194
표 4-2-47.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치	195

표 4-2-48. 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 필요성	196
표 4-2-49. 우선 희망하는 출산·육아지원 정책(1순위)	198
표 4-2-50. 우선 희망하는 출산·육아지원 정책: 1순위, 1+2순위 비교	199
표 4-2-51.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직장의 지원필요 수준에 대한 요구	200
표 4-2-52. 육아지원 인프라의 충분성	201
표 4-2-53. 영아 이용기관 필요 여부	202
표 4-2-54. 희망하는 영아 돌봄 방법	203
표 4-2-55. 적절한 영아 돌봄 기관 설치 방안	204
표 4-3-1. 추가 출산 계획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06
표 4-3-2. 자녀 양육 어려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8
표 4-3-3. 자녀에 대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9
표 4-3-4. 추가 출산 계획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10
표 4-3-5. 자녀 양육 어려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12
표 4-3-6. 자녀에 대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213

그림 차례

그림 2-2-1. 중국의 연도별 인구수: 성 및 지역별	41
그림 2-2-2. 지역별 출생률, 사망률, 인구증가율	45
그림 2-2-3. 중국의 합계출산율(1960-2015)	47
그림 2-2-4. 중국의 합계출산율 전망(1975-2100)	48
그림 2-2-5. 모 연령 및 출생순위별 출산율	49
그림 2-2-6. 연도별 출산보험 가입자 수	51
그림 2-2-7. 지역별 사회보험 가입자 및 수혜자 비율	53
그림 2-2-8. 연도별 연금보험 및 의료보험 가입자 수	54
그림 2-2-9. 연도별 사회보장 및 고용지출 규모	56
그림 5-2-1.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	236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제한점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인구가 고령화되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거의 변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산율의 감소는 생산가능 인구비율을 감소시키고 부양률을 증가시켜 국민소득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Zhang & Lee, 2003). 출산율 감소와 노년층 인구 증가로 인해 중국에서는 1차 인구배당 효과가 2013년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었다(Cai & Wang, 2006; Wang & Mason, 2005). 이에 중국은 2015년 10월 제18기 5중전회에서 ‘두 자녀 출산’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정책이 시행되면 향후 인구가 연평균 300만 명 정도 증가하면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저출산은 한 자녀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평균 출생율은 2015년 12.7%로 북경 7.96%, 연변 5.87%(중국국가통계국, 2016)이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북경은 외부의 인구유입으로 인해 저출산 속에서도 인구 수가 증가하는 지역인 반면, 연변은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인구 수가 감소하는 지역이다. 또한 2015년말 기준으로 각 지역의 도시인구비율(proportion of urban population at year-end by region)을 살펴보면, 중국 평균 56.1%인데 북경은 86.5%, 연변자치주가 있는 길림성은 55.3%로 보고되었다(중국국가통계국, 2016). 상대적으로 엄격한 산아제한을 받아온 북경, 톈진, 상해 등 도

시화율이 높은 6개 성의 농촌 지역과 2014년 이전 대부분 ‘한자녀반 정책’을 시행해오거나 관대한 산아정책을 시행해왔던 농촌 지역(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11. 27)에서는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의 시행이 인구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제한 정책 하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인구제한 정책을 설계한 북경과 연변 지역을 특정하여 출산·육아 현황을 파악하고, 출산·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경은 중국 본연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는 지역인 데 반해, 연변은 조선 자치주로 한국적 가치관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두 지역 간 출산·육아 가치나 태도 측면에서의 영향 요인이 상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저출산 지역 중에서 외부 유입인구가 많은 북경과 외부로 이주하는 인구가 많은 연변자치주의 인구구조의 특성은 사회구조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화 요인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6년 3차 기본계획에서는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목표로 출생·양육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통해 임신(전, 중, 분만)과 출산에 대한 사회책임시스템 확립,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맞춤형 보육·유아교육 강화, 일·가정양립제도의 근로현장 정착을 추진(대한민국정부, 2016)하고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출산·육아의 기능적 변화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양육의 책임이 점차 가정에서 사회 또는 민간시장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이라는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과 경험은 중국사회에도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현행 인구정책은 상이했으나 최근 정책의 흐름을 고려할 때 출산·육아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편화된 중국사회의 체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한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인구정책의 흐름, 인구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한다.

둘째, 중국의 최근 출산정책인 두 자녀 허용 정책의 세부 내용과 기대 효과를 분석하고, 인력, 비용지원 등 육아지원과 관련된 정책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셋째, 중국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관련 실태를 분석한다. 출산·육아에 대한 가치, 어려움, 출산·육아정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출산·육아지원 인프라 이용 및 요구, 출산·육아지원 인력 및 비용지원, 출산·육아 관련 비용 등을 조사한다.

넷째, 중국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출산·육아 관련 이슈(예를 들어, 출산에 대한 인식, 양육 가치 등)를 도출한다.

다섯째, 중국 출산·육아 관련 정책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양국의 출산·육아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중국 통계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공식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인구 및 출산 관련 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 북경과 연변 지역의 인구 및 출산·육아 정책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나. 심층 면담

북경, 연변 지역의 영유아(0~5세) 자녀를 둔 부모 각 5명씩, 총 10명을 대상으로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자녀의 이용기관,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요구 등을 파악하였다.

표 1-3-1 면담조사 참여자 배경: 북경 지역 영유아 부모

구분	부모의 일반적 배경					자녀의 일반적 배경						
	연령	취업 여부	직업	주당 근무시간	월소득 (세후)	총 자녀수	취학전 자녀수	취학전 자녀				
								구분	연령	성별	이용기관	
1	부	만35세	취업	상업	40시간	3만원	1명	1명	자녀1	만5세	남	유아원
	모*	만33세	취업	상업	40시간	1만원						
2	부*	만43세	취업	과학기술	30시간	1만원	1명	1명	자녀1	만6세	여	유아원
	모	만43세	취업	교사	30시간	3만원						
3	부	만35세	취업	상업	40시간	-	1명	1명	자녀1	만4세	남	유아원
	모*	만33세	미취업	-	-	-						
4	부	만42세	취업	금융업	50시간	1만5천원	1명	1명	자녀1	만3세	여	시간제 학원
	모*	만40세	취업	금융업	50시간	1만5천원						
5	부*	만34세	취업	엔지니어	40시간	2만원	1명	1명	자녀1	만2세	남	시간제 학원
	모	만28세	취업	공무원	40시간	8천원						

주: * 면담참여자, 元 중국화폐단위(위안)

표 1-3-2 면담조사 참여자 배경: 연변 지역 영유아 부모

구분	부모의 일반적 배경					자녀의 일반적 배경						
	연령	취업 여부	직업	주당 근무시간	월소득 (세후)	총 자녀수	취학전 자녀수	취학전 자녀				
								구분	연령	성별	이용기관	
1	부	만27세	취업	공무원	40시간	3000원	1명	1명	자녀1	만0세	여	-
	모*	만27세	취업	공무원	40시간	3500원						
2	부	만33세	취업	대학 교원	40시간	4500원	2명	2명	자녀1	만5세	여	유아원
	모*	만30세	취업	대학 직원	40시간	3000원			자녀2	만1세	여	-
3	부	만30세	취업	공무원	40시간	5000원	2명	2명	자녀1	만 5세	남	국립유아원
	모*	만30세	취업	공무원	40시간	3400원			자녀2	만 3세	여	국립유아원
4	부*	만51세	취업	대학교수	40시간	-	2명	1명	자녀1	만5세	여	유아원
	모	만36세	미취업	-	-	-						
5	부*	만46세	취업	교수	40시간	7000원	2명	2명	자녀1	만4세	남	유아원
	모	만39세	미취업	-	-	-			자녀2	만1세	여	-

주: *은 면담참여자, 원은 중국화폐단위(위안)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관련 정책과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관 공무원, 원장, 교수 등을 면담하였다.

표 1-3-3 면담조사 참여자 배경: 전문가 및 공무원

구분	지역	구분	연령	소속	직위	재직경력	전공분야
1	북경	공무원	만38세	인구건강연구소	연구원	8년	인구전략, 출산
2	북경	학계전문가	만29세	런민대학	교수	2년	인구학
3	연변	공무원	만28세	사회구역위생봉사과	과장	3년	권상의학
4	연변	학계전문가	만36세	연변대학	부교수	6년	교육학
5	연변	현장전문가	만55세	중국련길시현대유아원	원장	23년	교육, 심리상담
6	연변	학계전문가	만48세	연변대학	부교수	27년	유아교육
7	연변	현장전문가	만42세	연변주 교육학원	주임연구원	10년	교육심리, 유아교육
8	연변	공무원	만44세	연변주 교육국	학전교육 지도센터	14년	학전교육지도, 유아원 초등학교 연결준비
9	연변	현장전문가	만45세	유아원	부서기 겸 부원장	26년	학전교육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해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심층 면담의 주요 내용은 <표 1-3-4>와 같다.

표 1-3-4 심층 면담의 주요 내용

대상	면담 내용
부모	일반적 배경: 연령, 취업 여부, 직업, 주당 근로시간, 월평균 소득 자녀의 일반적 배경: 총 자녀 수, 취학 전 자녀 연령, 성별 출산 관련: 임신기간 중 어려움(건강, 의료시설, 경제적 문제 등), 출산 후 걱정되는 부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 이용 경험 및 개선점, 추가출산 계획 육아 관련: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과 시간, 기관 이용의 어려움 및 정부지원, 대리양육 필요시 도움 받는 사람(또는 기관), 육아시 역할, 양육의 어려움,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공무원	일반적 배경: 연령, 소속, 직위, 재직 경력, 전공 분야 결혼, 출산, 양육관 변화 요인 출산율 감소 원인 및 대책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의 효과 중국의 출산 및 양육 특성(육아 및 가사 분담 등) 중국의 향후 인구정책 방향
전문가	일반적 배경: 연령, 소속, 직위, 재직 경력, 전공 분야 결혼, 출산, 양육관 변화 요인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의 효과, 위반시 제재조치/유인책 현재 출산지원 및 육아정책(임신, 출산전후, 육아 등) 출산보형제도 개요 및 향후 계획 모자보건서비스 개요 및 세부 지원사항

다. 설문 조사

북경과 연변 지역의 영유아 부모 총 903명(북경 600명, 연변 303명)을 대상으로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실태, 출산·육아 정책 인식 및 만족도, 출산·육아 인프라 활용 및 요구, 출산·육아 관련 비용 지출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1-3-5 설문조사 방법

구분	내용
모집단	북경, 연변 지역의 0-5세 영유아 부모
표본크기	903사례
표본추출	지역별(북경/연변), 연령별(0-5세)
조사방법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조사(북경)/방문 및 면접조사(연변)
조사기간	2017년 8월 21일 ~ 9월 15일

북경과 연변 지역의 부모, 공무원, 학계전문가 등을 면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지의 기본 내용을 개발하였으며, 북경과 연변 지역의 특성을 한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한국아동패널조사(김은설 외, 2012),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김은설 외, 2016) 문항의 일부(양육 스트레스, 자녀 가치 등)를 포함하여 조사지(부록2, 3 참조)을 구성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1-3-6>과 같다.

표 1-3-6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출산휴가 이용 경험, 이용 기간 - 출산 후 가정방문서비스(모자보건서비스) 이용 항목, 이용 비용 - 출산 후 산후조리기관(사람) 이용 기간, 이용 비용 - 추가 출산계획 및 그에 따른 이유, 선호 성별 - 바람직한 자녀 수
육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중 자녀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 및 시간(보육실태조사, 2016) -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보육실태조사, 2016) - 부모의 육아 및 가사 참여 비율 - 가계 소득 대비 총 육아비용/교육비 및 부담 정도 - 급할 때 아이를 맡기는 기관(사람), 지불 비용(보육실태조사, 2016) -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및 부담 정도 - 자녀 양육 스트레스, 자녀 가치(한국아동패널, 2012) - 육아 관련 정보 취득 경로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요구
자녀의 기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기관(유아원, 사설학원 등) 이용 경험, 최초 이용 시기, 이용 이유 - 현재 자녀의 이용 기관, 이용 기간, 이용 비용, 이용의 어려움 - 육아지원 시설의 충분성

표 1-3-6 계속

구분	내용
출산 및 육아 정책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도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직장 지원 필요도
인구학적 배경	- 나이, 학력, 직업 - 주말 근무,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 총 자녀 수, 취학전 자녀 수(나이, 성별, 기관이용 여부, 이용 기관)

북경 지역은 웹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연변 지역은 웹조사 진행이 어려운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면접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영유아 연령별(가장 어린자녀)로 임의할당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최종 응답한 북경 600사례, 연변 303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 1-3-7>, <표 1-3-8>과 같다.

표 1-3-7 북경 지역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수	%	구분	수	%
전체	600	100.0			
영유아 구분			부 직업		
영아	300	50.0	고용주	20	3.3
유아	300	50.0	자영업자	57	9.5
자녀연령			상용근로자	517	86.2
0세	100	16.7	임시근로자	2	.3
1세	100	16.7	일용근로자	3	.5
2세	100	16.7	부재	1	.2
3세	100	16.7	모 직업		
4세	100	16.7	고용주	4	.7
5세	100	16.7	자영업자	35	5.8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			상용근로자	524	87.3
이용	251	41.8	임시근로자	24	4.0
미이용	349	58.2	일용근로자	4	.7
자녀 수			무급가족종사자	3	.5
1명	592	98.7	무직	6	1.0
2명	8	1.3			

표 1-3-7 계속

구분	수	%	구분	수	%
부 취업 여부			가구 소득		
취업	599	99.8	5,000~10,000위안 미만	44	7.3
미취업	1	.2	10,000~20,000위안 미만	317	52.8
모 취업 여부			20,000~30,000위안 미만	155	25.8
취업	591	98.5	30,000위안 이상	84	14.0
미취업	9	1.5			

북경 지역은 취업모의 비율이 98.5%로, 취업모가 대부분 응답하였으
며, 연변은 53.1%로 응답 비율의 차이가 있었다.

표 1-3-8 연변 지역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수	%	구분	수	%
전체	303	100.0			
영유아 구분			부 직업		
영아	150	49.5	고용주	8	2.6
유아	153	50.5	자영업자	130	42.9
자녀연령			상용근로자	101	33.3
0세	50	16.5	임시근로자	26	8.6
1세	50	16.5	일용근로자	6	2.0
2세	50	16.5	무급가족종사자	2	.7
3세	51	16.8	무직	4	1.3
4세	51	16.8	부재	12	4.0
5세	51	16.8	무응답/모름	14	4.6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			모 직업		
이용	181	59.7	고용주	2	.7
미이용	122	40.3	자영업자	54	17.8
자녀 수			상용근로자	69	22.8
1명	222	73.3	임시근로자	35	11.6
2명	77	25.4	일용근로자	1	.3
3명	4	1.3	무급가족종사자	5	1.7
부 취업 여부			무직	119	39.3
취업	271	89.4	무응답/모름	18	5.9
미취업	32	10.6			

표 1-3-8 계속

구분	수	%	구분	수	%
모 취업 여부			가구 소득		
취업	161	53.1	5,000위안 미만	6	2.0
미취업	142	46.9	5,000~10,000위안 미만	91	30.0
			10,000~20,000위안 미만	37	12.2
			20,000~30,000위안 미만	8	2.6
			30,000위안 이상	3	1.0
			무직/부재/모름	158	152.1

각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SPSS 20.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술 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하였으며, 일부 문항은 변수별로 차이 검정(t-test, one-way ANOVA),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라. 간담회 개최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을 비교하고,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정책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북경과 연변 지역을 선정하였다. 중국의 저출산 지역 중에서 외부 유입인구가 많은 북경을 도시지역의 사례로, 외부로 이주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자 조선족 밀집 지역인 연변자치주를 농촌지역의 사례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저출산 지역이지만 인구가동 양상에 따라 인구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출산 인구정책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두 지역은 이미 출산 정책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기에 정책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경의 대표 도시인 북경과 소수민족 자치주로서의 연변 지역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기에 제약이 있어 가급적 두 지역의 직접적인 비교를 삼가고, 지역 특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5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어 출산·육아 실태를 방대하게 조사하기에는 예산과 기간의 제약이 있어 북경 600사례, 연변 303사례를 통해 출산·육아 실태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전반적인 출산·육아 실태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제2장 연구의 배경

1. 선행연구 분석
2. 중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4.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정책 변화



본 장에서는 중국의 인구 및 출산 관련 선행연구, 사회인구학적 특성,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정책 변화 등을 고찰하였다.

1. 선행연구 분석

본 절에서는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출산율 감소, 이와 관련한 정책, 중국의 출산·육아 가치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과 전면적 두 자녀 허용 정책 시행 이후 중국 내의 관련 연구를 고찰하였다.

가. 국내 연구

1)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 관련 연구

중국의 인구구조 현황과 변화를 분석한 문익준(2016)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은 인구구조 측면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국가적인 산아제한정책 및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1950년 전쟁 이후 출생률이 증가했다가 2000년까지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의학의 발전 및 복지의 향상으로 인해 사망률이 감소하였으나, 노년층 비율의 증가로 인해 2010년을 기준으로 사망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는 ‘출산장려 및 인구성장 촉진’, ‘출산억제 정책’, ‘만희소 정책’, ‘한 자녀 정책’, ‘전면적 두 자녀 허용 정책’의 5단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중국의 인구 구조가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문익준, 2016).

한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증진국함정 연구를 인구학적으로 살펴본 이성란(2014)의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사회적 불안정

및 구조적 불평등, 국가재정 측면에서의 연금 마련을 위한 부채 악화와 저축 측면에서의 유효수요의 감소를 예측하였는데, 산아제한 정책의 완화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결과, 둘째자녀의 출생 증가에 따른 인구배당 효과의 감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또한 황진영과 정상은(2012)은 중국의 향후 인구구조 변화가 전세계에서 이례적으로 압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이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구구조 변동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효과는 점차 사라지고, 현재의 경제성장이 출산율을 감소시킴으로써 미래 경제성장에 부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이후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은 인적자본을 기반으로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켜온 동아시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률의 완화와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 산업구조의 변화를 모색해야함이 지적되고 있다.

2) 중국의 출산정책 관련 연구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윤정(2015)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저출산 문제는 향후 경제발전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대안을 강구 중인 일본, 싱가포르, 한국, 홍콩 등의 정책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대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하였다. 황판과 김종호(2014)의 연구에서도 중국의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현재까지 독거노인, 노인부양, 소황제, 성비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산아제한이 완화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현 인구정책은 여전히 제한적인 요소가 강하므로 인구 정책의 개정 혹은 폐지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고령인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중국의 출산율 변화가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상은(2016)은 최근 중국 정부가 내놓은 완화된 출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의 변화는 발생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영유아시장의 부상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이후의 중국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내수 및 서비스 산업 위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도경(2015)도 '전면적 두 자녀 허용 정책'이 고령화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연금 체제를 개편하고 경제 발전에서 그 해답을 찾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두 번째 자녀의 출산'을 신청한 인원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고하였다.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65여 년 간 시행되어왔으며, 최근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으나 동 정책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3) 중국의 육아 관련 연구

중국의 육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성호(2015)는 중국의 남성 가사 분담률 및 육아 분담률이 아시아는 물론이고 미주와 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하고, 아내의 소득이 낮을수록,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아내의 교섭력이 높아질수록 남편의 육아 분담률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베이징과 길림성의 유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조정(2014)은 중국 어머니들이 전통적인 집합적 성향을 띠는 반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교육 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농촌의 어머니들에 비해 도시의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 차별적인 행동을 적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조정, 2014).

이 외에도 한족과 조선족 영유아 가정의 양육실태를 조사한 서문희(2011)의 연구에 따르면, 한족에 비해 조선족 부모의 경우 자녀의 성취(부, 사회적 지위, 명예)에 대한 기대 및 자녀의 도구적 가치, 양육의 통제적 태도가 더 높았고,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한편 양육에 관해 혼란스러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빠른 경제의 성장과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인하여 현재 중국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전과 달리 여성들의 생산 활동 참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여성이 전담하던 가사 및 육아를 부부가 분담하거나 외부에 요청하는 모습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중국 연구

최근 중국 내에서 수행된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시행 이후의 변화와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시행 필요성에 대한 실무진의 생각(국민 출산 육아 관념의 변화, 가정 규모의 변화 등, 노령화, 적은 자녀수, 구조적

모순의 해결책)을 밝힌 贺丹(2017)은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2016년 신생아 수가 1,786만 명에 달하고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고하였으며, 둘째아 이상의 출산 비율이 50%를 넘었고, 가임여성 인구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비해 신생아수가 191만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 태어난 둘째아의 지역적 분포 차이가 심한 이유로 과거의 차별화된 출산 정책, 정책 집행 정도 차이, 지역적 문화 차이 등에 기인한다고 하였으며, 출산 제한을 완전히 해제할 수 없는 이유로 불확실성, 인위적인 베이비붐, 공공서비스 과부하 가능성, 여성 취업에 부정적 영향 등을 지적하고, 출산 장려 체제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국민 출산 의향은 1.9명인데 실제 출산 수준은 1.7명인 상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육아 부담이 크기 때문이므로 둘째아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의 수립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贺丹, 2017).

陈淑君과 李欣(2017)은 두자녀 허용 정책 출범 후 여성의 사회보장 현황과 문제점(출산 보험 가입 필요, 여성의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추진에 도움)을 지적하였는데,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출산 보험의 제도적 문제, 여성 취업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 공립 육아 기관 부족 문제, 자녀 교육 문제를 언급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출산 보험의 혜택 강화, 취업 보장 제도 보완, 공립 육아 시설 확충, 교육 지원금 확대를 제안하였다. 또한 张祎(2016)는 제한적 두자녀 허용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로 육아 부담, 여성 권익과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의 어려움, 출산 관념의 변화 및 첫째아의 영향을 지적하였으며, 정부가 적극적인 출산 장려 조치(식품 및 교육 공급 개혁의 필요성, 여성 권익 보호 관련 법률·법규 보완 필요, 정부의 양육 부담 해소)를 취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과 관련하여 중국 도시 여성의 출산 선호(preference)와 출산 계획을 살펴본 靳永愛, 宋健, 陈卫(2016)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지역의 결혼한 가임연령 여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는 1.75명이고 희망하는 자녀의 수는 1.62명이며, 한 명의 자녀가 있는 여성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의 수와 희망하는 자녀의 수는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약간 높았다. 현재 자녀가 한 명 있는 여성 중 24.4%만이 둘째 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5.1%는 둘째 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없다고 대답하여 둘째 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합계는 29.5%였고, 현재 자녀가 한 명 있는 여성의 8.9%는 둘째 아이를 낳을지 말지 아직 확정 지을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靳永愛·宋健·陈卫, 2016). 이와 같은 출산 선호와 출산 계획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했을 때 정책 추진이 본격화 되더라도 출산율 증가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에서는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이후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단기 효과로 출산율의 변화 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출생한 둘째아의 지역 편포, 두자녀 허용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제한적으로 인구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출산장려를 위한 유인책 마련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중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국은 전체 면적이 9,596,961km²에 달하고¹⁾, 인구는 2015년 기준, 13억 7,462만 명으로(중국국가통계국, 2016), 광둥, 산둥, 칭하이 등의

23개 성(省)과 광시장족 등의 5개 자치구(自治區), 베이징, 상하이 등의 4개 직할시(直轄市), 마카오와 홍콩의 2개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로 구성되어 있다(두산백과. 중국, 2017.7.10 인출).

중국은 1950년대부터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해오면서 근래에는 한 자녀를 둔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구형태가 되었다(짱스위엔, 2017). 중국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힘입어 2013년 ‘단독적 두 자녀 정책²⁾’을 시행하고, 2015년에는 ‘전면적 두 자녀 허용정책(the universal two-child policy)’을 도입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있다(中华人民共和国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2015. 11. 6일자)³⁾.

가. 총 인구 수 및 인구증가 추이

1950년 중국의 인구는 5억 5천여 명에서 1990년 11억 4천만 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13억 4천만 명, 2015년에는 13억 7천만 명으로(중국국가통계국, 2016) 최근 인구증가가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두산백과. 중국.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3419&cid=40942&categoryId=34031> (2017. 7. 10. 인출)

2) 단독적 두 자녀 정책이란, 부부 중 한쪽이 독자라면 둘째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뜻함(짱스위엔, 2017:57).

3) 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중국위생과출산계획위원회) (updated 2015. 11. 6.). Q&A about the new two-child policy. http://en.nhfpc.gov.cn/2015-11/06/c_45715.htm(2017. 7. 16 인출).

표 2-2-1 연도별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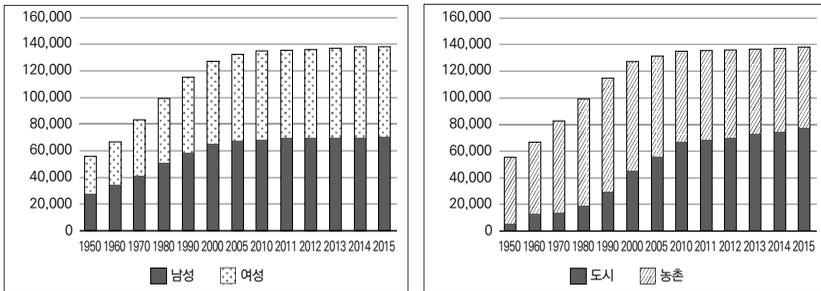
(단위: 만 명, %)

구분	인구수	성별				지역			
		남성	비율	여성	비율	도시	비율	농촌	비율
1950	55,196	28,669	51.94	26,527	48.06	6,169	11.18	49,027	88.82
1960	66,207	34,283	51.78	31,924	48.22	13,073	19.75	53,134	80.25
1970	82,992	42,686	51.43	40,306	48.57	14,424	17.38	68,568	82.62
1980	98,705	50,785	51.45	47,920	48.55	19,140	19.39	79,565	80.61
1990	114,333	58,904	51.52	55,429	48.48	30,195	26.41	84,138	73.59
2000	126,743	65,437	51.63	61,306	48.37	45,906	36.22	80,837	63.78
2010	134,091	68,748	51.27	65,343	48.73	66,978	49.95	67,113	50.05
2011	134,735	69,068	51.26	65,667	48.74	69,079	51.27	65,656	48.73
2012	135,404	69,395	51.25	66,009	48.75	71,182	52.57	64,222	47.43
2013	136,072	69,728	51.24	66,344	48.76	73,111	53.73	62,961	46.27
2014	136,782	70,079	51.23	66,703	48.77	74,916	54.77	61,866	45.23
2015	137,462	70,414	51.22	67,048	48.78	77,116	56.10	60,346	43.90

자료: 1) 문무경·양미선·이윤진·박원순 Jiaxiong Zhu·Minyi Li(2015). 중국 유아교육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과 실태 연구.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p. 49. <표 II-1-1>을 최신자료로 업데이트 함.

2) 중국국가통계국(2016).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 (<http://www.stats.gov.cn/tjsj/ndsj/2016/indexeh.htm>에서 2017. 7. 13. 인출).

그림 2-2-1 중국의 연도별 인구수: 성 및 지역별



자료: <표 2-2-1>을 그림으로 나타냄.

2017년 기준, 중국의 총 인구수는 14억 951만 7천 명으로, 남자 7억 2,632만 명, 여자 6억 8,319만 7천 명이다. 중국은 전세계 인구의

18.7%를 차지한다.

표 2-2-2 인구 수

구분	(단위: 천 명)		
	전체	남자	여자
전체	7,550,262	3,808,932	3,741,330
아프리카(Africa)	1,256,268	627,392	628,876
아시아(Asia)	4,504,428	2,304,731	2,199,697
유럽(Europe)	742,074	358,540	383,534
라틴아메리카 & 캐리비안	645,593	319,085	326,508
북아메리카	361,208	178,828	182,380
오세아니아	40,691	20,356	20,335
중국	1,409,517	726,320	683,197
(비율)	(18.7)	(19.1)	(18.3)

자료: UN(2017).World Population Prospects.

중국 전체 인구 규모는 1982년 10억 1,654만 명에서 1990년 11억 4,333만 명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긴 하였으나 증가 추세이다. 중국 인구변화를 성별 및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2016년 기준 7억 815만 명, 여자 6억 7,456만 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거주 지역별로는 도시가 7억 9,298만 명, 농어촌 5억 8,973만 명이다. 도시 인구는 1982년 2억 1,480만 명에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농어촌 인구는 2억 명 이상 감소하였다.

표 2-2-3 인구 수

(단위: 만 명)					
구분	1982	1990	2000	2015	2016
전체	101,654	114,333	126,743	137,462	138,271
성별					
남자	52,352	58,904	65,437	70,414	70,815
여자	49,302	55,429	61,306	67,048	67,456
거주지역					
도시	21,480	30,195	45,906	77,116	79,298
농어촌	80,174	84,138	80,837	60,346	58,973

자료: NBS(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홈페이지(<http://data.stats.gov.cn/english/tablequery.htm?code=AC01>) 2017년 7월 17일 인출.

출생률은 2016년 12.95%, 사망률 7.09%로 인구증가율이 5.86%이다. 인구증가율은 1982년 15.68%에서 2000년 7.58%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표 2-2-4 인구증가율

(단위: %)					
구분	1982년	1990년	2000년	2015년	2016년
출생률	22.28	21.06	14.03	12.07	12.95
사망률	6.6	6.67	6.45	7.11	7.09
인구증가율	15.68	14.39	7.58	4.96	5.86

자료: NBS(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홈페이지(<http://data.stats.gov.cn/english/tablequery.htm?code=AC01>) 2017년 7월 17일 인출.

〈표 2-2-5〉는 2015년 기준 지역별 인구 규모 및 출생률 및 사망률, 인구증가율 등을 정리한 것이다. 31개 지역 중 광둥성이 2015년 기준 1억 849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티벳이 324만 명으로 가장 적다. 북경과 길림은 각각 2,171만 명, 2,753만 명으로 31개 지역 중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 중의 하나이다.

표 2-2-5 지역별 출생률, 사망률, 자연성장률: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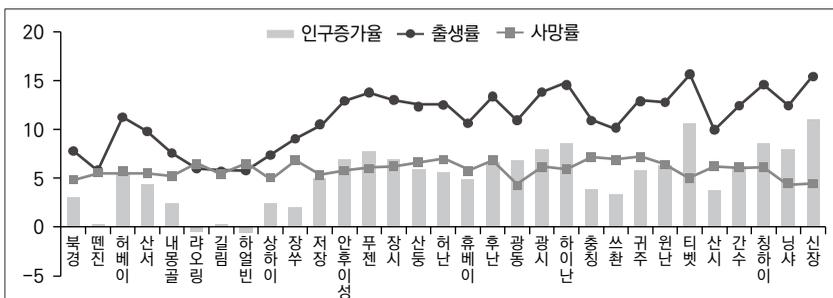
(단위: 만 명, %)

지역	전체 인구	지역규모				출생률	사망률	인구 증가율
		도시 인구		농촌 인구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전체	137,462	77,116	56.10	60,346	43.90	12.07	7.11	4.96
북경	2,171	1,878	86.50	293	13.50	7.96	4.95	3.01
톈진	1,547	1,278	82.64	269	17.36	5.84	5.61	0.23
허베이	7,425	3,811	51.33	3,614	48.67	11.35	5.79	5.56
산서	3,664	2,016	55.03	1,648	44.97	9.98	5.56	4.42
내몽골	2,511	1,514	60.30	997	39.70	7.72	5.32	2.40
랴오링	4,382	2,952	67.35	1,431	32.65	6.17	6.59	-0.42
길림	2,753	1,523	55.31	1,230	44.69	5.87	5.53	0.34
하얼빈	3,812	2,241	58.80	1,571	41.20	6.00	6.60	-0.60
상하이	2,415	2,116	87.60	299	12.40	7.52	5.07	2.45
장쑤	7,976	5,306	66.52	2,670	33.48	9.05	7.03	2.02
저장	5,539	3,645	65.80	1,894	34.20	10.52	5.50	5.02
안후이성	6,144	3,103	50.50	3,041	49.50	12.92	5.94	6.98
푸젠	3,839	2,403	62.60	1,436	37.40	13.90	6.10	7.80
장시	4,566	2,357	51.62	2,209	48.38	13.20	6.24	6.96
산둥	9,847	5,614	57.01	4,233	42.99	12.55	6.67	5.88
허난	9,480	4,441	46.85	5,039	53.15	12.70	7.05	5.65
후베이	5,852	3,327	56.85	2,525	43.15	10.74	5.83	4.91
후난	6,783	3,452	50.89	3,331	49.11	13.58	6.86	6.72
광둥	10,849	7,454	68.71	3,395	31.29	11.12	4.32	6.80
광시	4,796	2,257	47.06	2,539	52.94	14.05	6.15	7.90
하이난	911	502	55.12	409	44.88	14.57	6.00	8.57
충칭	3,017	1,838	60.94	1,178	39.06	11.05	7.19	3.86
쓰촨	8,204	3,913	47.69	4,291	52.31	10.30	6.94	3.36
귀주	3,530	1,483	42.01	2,047	57.99	13.00	7.20	5.80
윈난	4,742	2,055	43.33	2,687	56.67	12.88	6.48	6.40
티벳	324	90	27.74	234	72.26	15.75	5.10	10.65
산시	3,793	2,045	53.92	1,748	46.08	10.10	6.28	3.82
간수	2,600	1,123	43.19	1,477	56.81	12.36	6.15	6.21
칭하이	588	296	50.30	292	49.70	14.72	6.17	8.55
닝샤	668	369	55.23	299	44.77	12.62	4.58	8.04
신장	2,360	1,115	47.23	1,245	52.77	15.59	4.51	11.08

자료: 중국국가통계국(2016).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 (<http://www.stats.gov.cn/tjsj/ndsj/2016/indexeh.htm>) (표 2-8)에서 2017.06.27. 인출

한편 출생률과 사망률에 따른 인구증가율을 살펴보면, 신장이 15.59%로 출생률이 가장 높고, 텐진이 5.84%로 가장 낮으나 사망률은 귀주가 7.20%로 가장 높고, 광둥이 4.32%로 가장 낮다. 출생률과 사망률을 통한 인구증가율은 신장이 가장 높고, 하얼빈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북경은 인구증가율이 3.01%이나 길림은 0.34% 정도이다.

그림 2-2-2 지역별 출생률, 사망률, 인구증가율



연령구간별 인구수를 보면, 2016년 기준 0~14세는 2억 3,091만 명으로 1982년 3억 4,146만 명에서 2015년 2억 2,715만 명까지 줄었으나 이후 다소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82년 4,991만 명 정도이었으나 2016년에는 1억 4,933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2-2-6 연령구간별 인구 수

구분	1982년	1990년	2000년	2015년	2016년
0-14세	34,146	31,659	29,011	22,715	23,091
15-64세	62,517	76,306	88,847	100,361	100,246
65세 이상	4,991	6,368	8,821	14,386	14,933

자료: NBS(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홈페이지(<http://data.stats.gov.cn/english/tablequery.htm?code=AC01>) 2017년 7월 17일 인출.

기대수명은 1990년 남자 68.55세, 여자 66.84세로 남자가 여자보다 1세 정도 많고, 2015년에는 남자 76.34세, 여자 73.64세로 남녀 차이가 더 커졌다.

표 2-2-7 연도별 기대 수명

				(단위: 세)
구분	1990년	2000년	2015년	
남자	68.55	71.4	76.34	
여자	66.84	69.63	73.64	

자료: NBS(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홈페이지(<http://data.stats.gov.cn/english/tablequery.htm?code=AC01>) 2017년 7월 17일 인출.

나. 합계출산율(TFR)

세계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 2.613명, 1990년 2,428명으로 한 명의 여성이 두 자녀 이상을 낳아오던 것이 2000년대 들어 1.4~1.5명 내외로 매우 낮아졌고 2015년에도 1.569명으로 나타났으나(World Bank, 2017.7.13. 인출), 두 자녀 출산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인구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이후에는 출산율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2-2-8 연도별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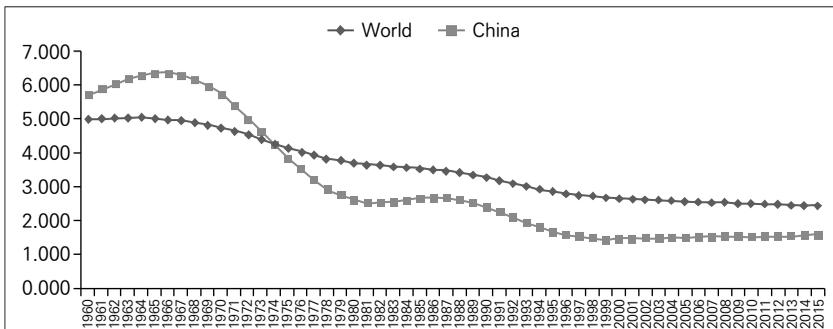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출산율 ^{주)}	2.613	2.428	1.447	1.539	1.544	1.549	1.555	1.562	1.569	-	

주: Fertility rate, total (births per woman)

자료: World bank (updated 2017. 7. 3.). Health nutrition and population statistics. <http://databank.worldbank.org/data/reports.aspx?source=health-nutrition-and-population-statistics&savedlg=1&l=en#> (2017. 7. 13 인출)

2013년부터 중국은 저출산 수준 유지와 인구자질 제고를 목표로 부부 중 한 명이 한 자녀인 경우 둘째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Liu, 2015). 중국 합계출산율은 2015년 기준 1.569명으로 1960년 5.754명에서 1965년 6.385명까지 상승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1986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3년 두자녀 허용 정책 이후 출산율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The World Bank 홈페이지에서 2017년 7월 17일 인출).

그림 2-2-3 중국의 합계출산율(196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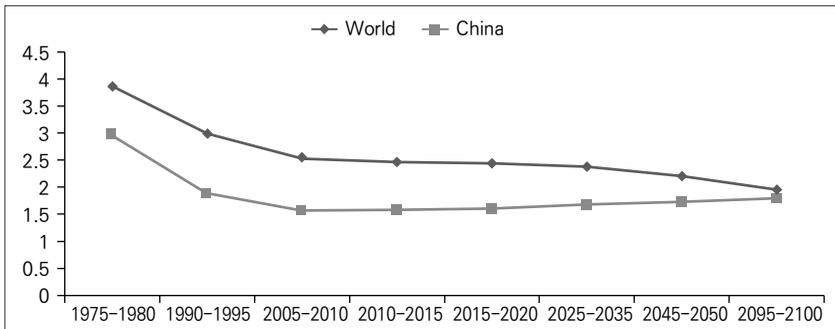
UN 가입국 전체 출산율과 비교하면, 중국은 1974년까지 UN 평균 출산율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1974년 이후부터는 UN 평균보다 낮아졌다. 1975~1980년 사이에는 3.00명 정도이었으나, 그간 강력한 산아제한정책 추진에 따라 2005년 이후부터는 절반 수준인 1.58명으로 급감하여 저출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010~2015년도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60명으로 UN 가입국 평균 2.51명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10~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2-9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전망

구분	(단위: 명)							
	1975-1980	1990-1995	2005-2010	2010-2015	2015-2020	2025-2030	2045-2050	2095-2100
UN 평균	3.87	3.04	2.56	2.51	2.47	2.39	2.24	1.97
중국	3.00	1.90	1.58	1.60	1.63	1.69	1.75	1.80

자료: UN(2017). 2017 Revision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

그림 2-2-4 중국의 합계출산율 전망(1975-2100)



자료: UN(2017). 2017 Revision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

〈표 2-2-10〉은 모 연령에 따른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및 출산율을 나타낸다. 출산율을 기준으로 모의 연령이 25~29세인 경우 출산율이 74.3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24세 54.96%, 30~34세 45.31% 순으로 중국은 아직 고령 임신 및 출산 연령대에는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2-10 모 연령 및 출생순위별 출산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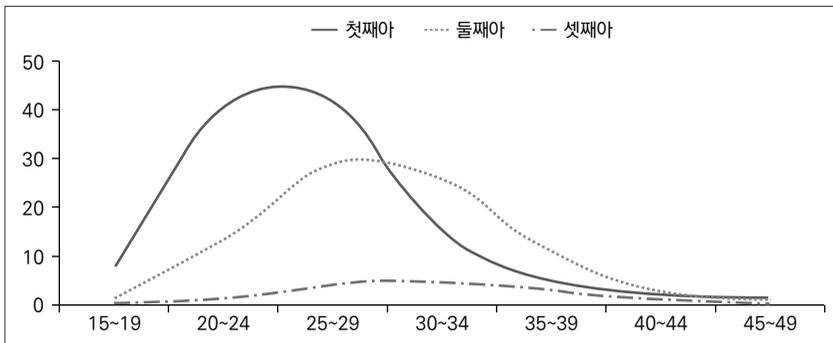
연령	평균 가임 여성 수	출생아				출산율			
		전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전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전체	5,667,870	175,309	93,098	69,695	12,516	30.93	16.43	12.30	2.21
15~19	577,169	5,305	4,614	644	47	9.19	7.99	1.12	0.08
20~24	767,236	42,170	30,821	10,270	1,079	54.96	40.17	13.39	1.41
25~29	957,566	71,154	39,785	27,580	3,788	74.31	41.55	28.80	3.96
30~34	771,732	34,969	11,563	16,919	3,787	45.31	14.98	25.42	4.91
35~39	747,539	13,906	3,459	8,195	2,253	18.60	4.63	10.96	3.01
40~44	914,765	4,908	1,688	2,241	979	5.37	1.85	2.45	1.07
45~49	931,864	2,896	1,167	1,146	583	3.11	1.25	1.23	0.63

주: 2014. 11. 1 ~ 2015. 10.31

자료: 중국국가통계국(2016).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http://www.stats.gov.cn/tjsj/ndsj/2016/indexeh.htm>)에서 <표 2-17> 2017.06.28. 인출

[그림 2-2-5]는 앞서 살펴본 모의 연령에 따른 출생순위별 출산율을 분석한 것이다. 첫째아 출산율은 모의 연령이 25~29세인 경우 41.55%, 20~24세 40.17% 순으로 높지만, 둘째아는 25~29세가 28.80%, 30~34세 25.42% 순이다. 셋째아는 30~34세가 4.91%, 25~29세가 3.96% 정도이다.

그림 2-2-5 모 연령 및 출생순위별 출산율



다. 가족 규모 및 여성 고용률

지역규모별 전체 가구수와 가구원 수별 분포를 정리하면 <표 2-2-11>와 같다. 2015년 기준 가구 수는 총 17만 7,241가구이고,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에 14만 4,780가구, 지방에 3만 2,461가구가 거주한다. 가구원 수별 분포를 보면, 부부와 자녀 1명으로 이루어진 3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28.8%로 전체 가구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4인 가구는 10.4%, 5인 이상 가구는 8.9% 정도이다. 3인 가구는 도시가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지만, 4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는 그와 반대의 양상을 나타낸다.

표 2-2-11 지역규모별 가구원 수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가구수	가구원수별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전체	177,241	20.5	31.4	28.8	10.4	8.9
도시	144,780	20.9	31.3	29.8	10.1	7.9
지방	32,461	18.8	31.8	24.1	12.0	13.3

자료: 중국국가통계국(2016).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http://www.stats.gov.cn/tjsj/ndsj/2016/indexeh.htm>)에서 <표 3-8> 2017.09.15. 인출

마오쩌둥은 일찍 민주혁명시기부터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을 호소하여 ‘중국의 여성을 위대한 인력자원’으로 보았다(짱스위엔, 2017:9). 이러한 사회주의적 통치철학의 영향으로 여성은 국가노동력의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졌다. 중국의 여성노동력은 전체노동인구 대비 1990년 45.23%, 2016년 43.80%으로 지속적으로 약 43~45%의 비율을 유지해왔다. 전체인구 대비 여성인구의 비율이 과거부터 약 48%대를 보인 것(중국국가통계국, 2016 참조)을 감안하면 중국여성들의 노동참여가 매우 활발함을 간접적

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성취업의 보편성은 출산과 육아의 가정환경적 배경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육아에서도 남녀평등한 사회주의적 문화에 따라 남성의 육아참여가 비교적 활발할 것으로 추측된다.

표 2-2-12 연도별 노동인구 대비 여성노동력 비율

구분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여성노동력 (전체 대비 비율)	-	45.23	45.08	44.01	44.01	43.99	43.98	43.95	43.88	43.8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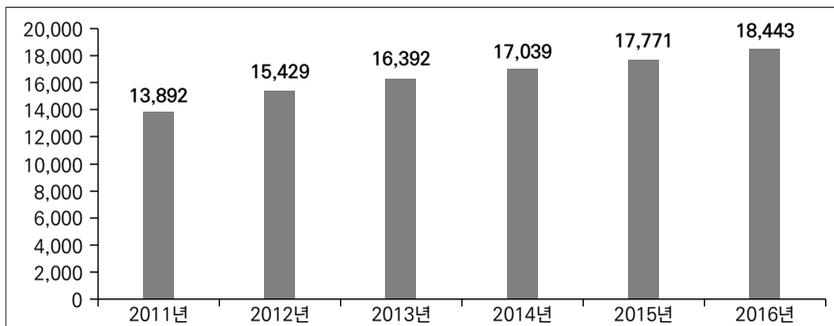
주: Labor force, female (% of total labor force)

자료: World bank (updated 2017. 7. 3.). Health nutrition and population statistics. <http://databank.worldbank.org/data/reports.aspx?source=health-nutrition-and-population-statistics&savedlg=1&l=en#> (2017. 7. 13 인출)

라. 사회보장 제도

중국은 사회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상해보험, 출산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이 있는 생육보험(生育保險) 가입자 수는 2016년 기준, 1억 8,4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672만 명이 증가하였다.

그림 2-2-6 연도별 출산보험 가입자 수



자료: 人力资源和社会保障统计快报数据(2015, 2016). 출산보험 자료 재구성.

〈표 2-2-13〉는 출산보험 가입자 및 수혜자 규모를 나타낸다. 가입자 수는 광둥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쑤, 저장, 산둥, 북경 순이나, 수혜자 수는 장쑤, 광둥, 북경, 저장, 산둥 순이다. 그러나 이를 전체 인구 대비 비율로 산출하면, 가입자 비율은 북경이 43.4%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상하이 30.5%, 광둥 28.4% 순이다. 수혜자 비율은 가입자가 가장 많은 북경이 2.4%로 높지만, 텐진 1.3%, 장쑤 1.2%, 상하이와 저장, 칭하이가 각각 0.9% 순이다.

표 2-2-13 지역별 출산보험 가입자와 수혜자 수 및 비율: 2015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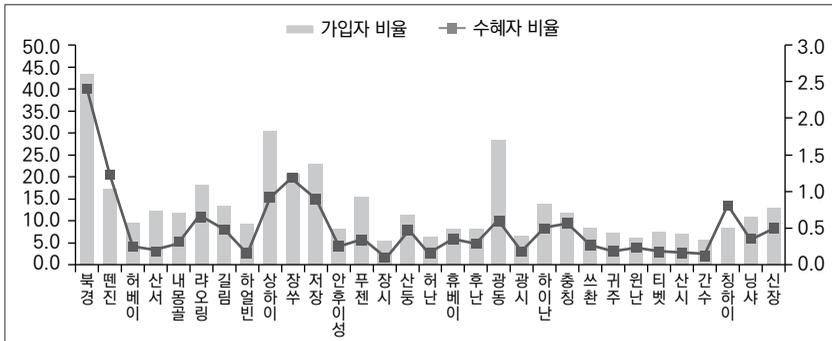
지역	전체 인구	가입자		수혜자	
		전체(만 명)	전체 인구 대비 비율(%)	전체(만 명)	전체 인구 대비 비율(%)
전체	137,462	17,771.0	12.9	641.9	0.5
북경	2,171	941.6	43.4	52.8	2.4
텐진	1,547	269.7	17.4	19.4	1.3
허베이	7,425	713.0	9.6	18.5	0.2
산서	3,664	456.5	12.5	8.0	0.2
내몽골	2,511	302.6	12.1	7.8	0.3
랴오링	4,382	789.3	18.0	29.6	0.7
길림	2,753	367.5	13.3	14.0	0.5
하얼빈	3,812	357.1	9.4	6.4	0.2
상하이	2,415	735.4	30.5	22.9	0.9
장쑤	7,976	1,471.7	18.5	95.3	1.2
저장	5,539	1,285.2	23.2	51.0	0.9
안후이성	6,144	499.3	8.1	15.9	0.3
푸젠	3,839	598.3	15.6	14.0	0.4
장시	4,566	251.3	5.5	4.7	0.1
산둥	9,847	1,111.3	11.3	48.1	0.5
허난	9,480	609.5	6.4	16.5	0.2
후베이	5,852	500.2	8.5	22.3	0.4
후난	6,783	544.0	8.0	20.5	0.3

표 2-2-13 계속

지역	전체 인구	가입자		수혜자	
		전체(만 명)	전체 인구 대비 비율(%)	전체(만 명)	전체 인구 대비 비율(%)
광둥	10,849	3,081.8	28.4	67.0	0.6
광시	4,796	307.9	6.4	9.6	0.2
하이난	911	127.1	14.0	4.7	0.5
충칭	3,017	354.3	11.7	18.3	0.6
쓰촨	8,204	670.3	8.2	24.8	0.3
귀주	3,530	263.6	7.5	7.5	0.2
윈난	4,742	289.8	6.1	12.0	0.3
티벳	324	23.8	7.3	0.7	0.2
산시	3,793	265.3	7.0	6.4	0.2
간수	2,600	154.1	5.9	3.5	0.1
칭하이	588	48.0	8.2	5.0	0.9
닝샤	668	73.7	11.0	2.6	0.4
신장	2,360	307.9	13.0	12.4	0.5

자료: 중국국가통계국(2016).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http://www.stats.gov.cn/tjsj/ndsj/2016/indexeh.htm>)에서 <표 24-36>에서 2017.06.27. 인출

그림 2-2-7 지역별 사회보험 가입자 및 수혜자 비율



다음은 연금보험 및 의료보험 가입자를 정리한 것이다. 연금보험자 수는 2015년 기준 187.6만 명으로 2010년 168.5만 명에서 매년 증가 추

세를 보인다. 농촌 거주자 가입자 수는 2015년 기준 174만 명이다.

표 2-2-14 지역규모별 사회보장 프로그램

(단위: 만 명)

구분	기초 연금보험 가입자 수		의료보험 가입자 수			
	전체	농촌 거주자	전체	아동과 학생	비가입자	실직자
2010	168.5	159.3	143.7	121.3	17.7	4.7
2011	173.4	163.7	159.8	135.5	19.1	5.3
2012	177.3	167.0	151.9	128.6	18.5	4.8
2013	180.1	168.7	160.1	137.5	18.8	3.7
2014	186.2	173.4	173.0	149.8	19.7	3.6
2015	187.6	174.0	181.0	157.7	19.8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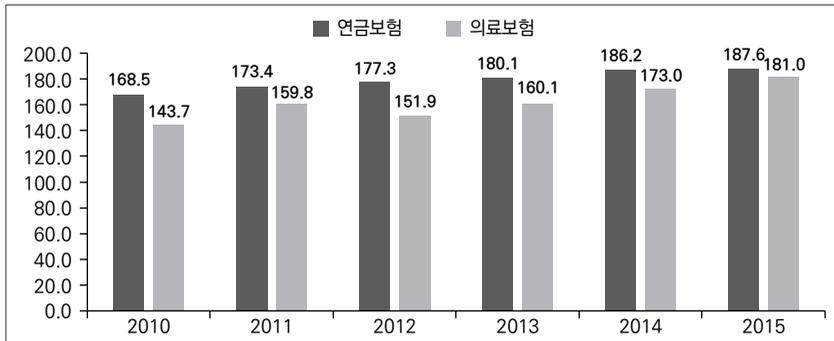
주: 연금보험 가입자 수는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하고 사회 보장 단체와 함께 보험료 납부 기록을 보고 기간 말에 국내법, 규칙 및 관련 정책의 조항에 따라 유지하는 사람의 수를 의미함.

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보험에 가입한 피고용인 및 퇴직자 수를 포함하여 관련 국내 규정에 따라 보고 기간 말에 의료 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수를 의미함.

자료: 중국국가통계국(2016).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 (<http://www.bjstats.gov.cn/nj/main/2016-tjnj/zk/html>)에서 <표 21-4>에서 2017.09.12. 인출.

한편 의료보험 가입자는 2015년 기준 181만 명으로 연금보험 가입자 수보다 다소 적지만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림 2-2-8 연도별 연금보험 및 의료보험 가입자 수



마. 경제

2017년 중국의 1인당 GDP는 8,481\$로 세계 74위이다(IMF, 2017).⁴⁾ 중국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1인당 GDP는 49,992元으로 1978년 385元에 비해 100배 이상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중국국가통계국, 2016). 2015년 1인당 GDP는 북경은 106,497元, 연변이 속한 길림성은 51,086元으로 나타났고(중국국가통계국, 2016),⁵⁾ 중국재정부 주광야오 부부장은 2020년에 이르면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상하이저널, 2015. 7. 27기사)⁶⁾ 중국은 경제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표 2-2-15 국민 1인당 GDP

(단위: 위안)

구분	1978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당 GDP	385	463	866	1,663	5,091	7,942	14,368	30,876	36,403	40,007	43,852	47,203	49,992

자료: 1) 문무경 외(2015).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p. 52, <표 II-1-4>을 최신자료로 업데이트 함.

2) 중국국가통계국(2016).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http://www.stats.gov.cn/tjsj/ndsj/2016/indexeh.htm>에서 2017. 7. 13. 인출).

사회보장 및 고용 지출 규모는 2015년 기준 700.48억 위안으로 2006년 149.22억 위안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지방재정수입 대비 사회보장 및 고용지출 비율과 지방재정지출 대비 사회보장 및 고용지

4) IMF(2017). 중국 1인당 GDP.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y_top&where=nexearch&query=%EC%A4%91%EA%B5%AD+1%EC%9D%B8%EB%8B%B9+gdp&oquery=%ED%95%9C%EA%B5%AD+1%EC%9D%B8%EB%8B%B9+gdp&ie=utf8&tqi=TTIAClpySDosstPSbx4sssssSK-015131(2017. 7. 14 네이버 검색).

5) 중국국가통계국(2016).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 3-10 per capita gross regional product and indices. <http://www.stats.gov.cn/tjsj/ndsj/2016/indexeh.htm>(2017. 7. 14 인출).

6) 상하이저널(2017. 7. 27 기사). 2020년 중국 1인당 GDP 1만달러 시대. [http://shanghaiibang.com/shanghai/news.php?code=&mode=view&num=44614&page=1&wr=\(2017. 7. 14 인출\)](http://shanghaiibang.com/shanghai/news.php?code=&mode=view&num=44614&page=1&wr=(2017. 7. 14 인출)).

출 비율로 산출하면, 2006년 기준 각각 12.1%, 10.6%에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 기준 각각 10.3%, 8.7%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그림 2-2-9 연도별 사회보장 및 고용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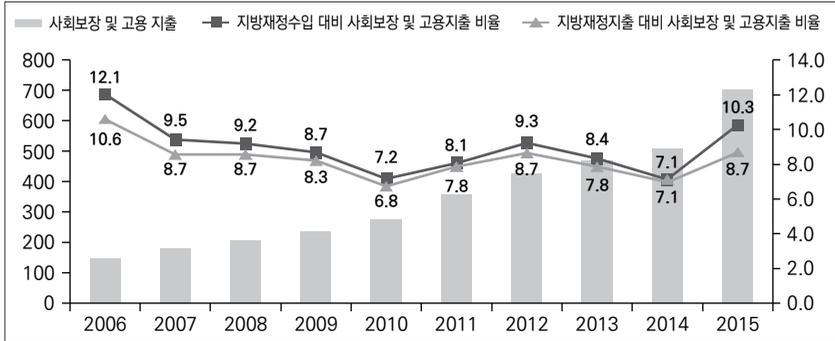


표 2-2-16 사회보장 및 고용지출

(단위: 억 위안, %)

구분	지방재정수입	지방공공 예산수입	지방재정 지출	사회보장 및 고용 지출	지방재정수입 대비 사회보장 및 고용지출 비율	지방재정지출 대비 사회보장 및 고용지출 비율
2006	1,235.78	1,117.15	1,411.58	149.22	12.1	10.6
2007	1,882.04	1,492.64	2,067.65	179.28	9.5	8.7
2008	2,282.04	1,837.32	2,400.93	209.33	9.2	8.7
2009	2,678.77	2,026.81	2,820.86	234.29	8.7	8.3
2010	3,810.91	2,353.93	4,064.97	275.90	7.2	6.8
2011	4,359.10	3,006.28	4,574.94	354.88	8.1	7.8
2012	4,573.72	3,314.93	4,866.43	424.31	9.3	8.7
2013	5,566.08	3,661.11	6,039.42	469.13	8.4	7.8
2014	7,214.54	4,027.16	7,147.75	509.01	7.1	7.1
2015	6,813.84	4,723.86	8,080.71	700.48	10.3	8.7

주: 지방재정수입은 지방공공예산 수입, 정부기금예산수입 및 국영자본운영 예산 등이 포함된 수입을 말함.

지방공공예산수입은 일정 수준의 절차와 특정 절차를 거쳐 예산 관리에 관련된 모든 수입

사회보장 및 고용지출은 사회보장 및 고용 행정 업무, 사회보험기금예산 보조, 국가사회보장기금보조금, 행정직퇴직자 보조금 등 사회보장 및 고용지출 연금, 재직자 채취업, 사회복지, 장애인 사업, 도시거주자의 생활보조금, 기타 사회구제, 농촌 구호, 자연재해구제 보조금, 기업보조금 등

자료: 중국국가통계국(2016).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 (<http://www.bjstats.gov.cn/nj/main/2016-tjnj/zk/html>)에서 (표 6-1)에서 2017.09.12. 인출.

3.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가.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출산·육아)법

중국은 헌법에 의해 계획적인 출산과 양육을 시행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인구와 경제, 사회, 자원,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적인 출산과 양육을 시행하고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가정의 행복과 민족의 번영, 사회의 진보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본 법을 제정한다(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 위원회, <http://www.nhfpc.gov.cn/zwgk/falv/201606/1c0ac828bce44560bd2389cba203663b.shtml>에서 2017. 6. 1 인출).

동법에서는 계획적 출산 양육의 추진을 여성의 교육 및 취업 기회의 확대, 여성의 건강증진, 여성의 지위 향상 등과 결합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법 제1장 제3조). 또한 국무원 산하의 계획적 출산·육아 행정부서가 전국 계획적 출산·육아 업무 및 인구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현(縣)급 이상의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계획적 출산·육아 행정부서가 해당 행정지역의 계획적 출산·육아 업무 및 인구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한다(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법 제1장 제6조).

1) 인구발전계획 수립 및 실시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법」에서 규정한 인구발전계획의 수립, 실시 내용, 홍보, 경비지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2-3-1>과 같다.

표 2-3-1 인구발전계획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인구발전 계획 수립	- 현(縣)급 이상인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전국의 인구 발전 계획 및 상급 인민정부 인구 발전 계획에 따라 현지의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지역의 인구 발전 계획을 편성하고 이를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 - 현(縣)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는 인구 발전계획에 따라 인구 및 계획적 출산·육아 실시방안을 제정하여 실시
인구발전계획 실시	- 현(縣)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의 계획적 출산·육아 행정부서는 인구 및 계획적 출산·육아 실시방안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인구 수량을 통제하고, 모자 보건을 강화하며 인구 소양을 증진시키는 조치를 규정 -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등이 법에 의거하여 계획적 출산·육아 업무 진행 - 국가기관, 군대, 사회단체, 기업체 및 비영리 사업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계획적 출산·육아 업무 진행 - 유동인구의 계획적 출산·육아 문제는 대상자 본인의 호적 소재지 인민정부와 현 거주지의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되 현 거주지의 인민정부가 주된 역할 수행
인구발전계획 홍보	- 계획적 출산·육아,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민정, 신문출판, 방송국 등 부서에서 인구 및 계획적 출산·육아 관련 홍보 교육 진행 - 학교에서는 교육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위생 생리학적 교육과 사춘기 교육, 성교육을 계획적으로 실시
인구발전계획 경비 지원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에 따라 국가는 인구 및 계획적 출산·육아에 대한 경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각급 인민정부는 인구 및 계획적 출산·육아 분야의 필요 경비 확보 - 국가는 사회단체, 기업체 및 비영리 사업체, 개인 등이 인구 및 계획적 출산·육아 사업을 위해 기부하는 것을 장려
기타	- 국가에서 인구 및 계획적 출산·육아 분야의 연구 활동 및 대외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하도록 권장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 위원회 <http://www.nhfpc.gov.cn/zwgk/falv/201606/1c0ac828bce44560bd2389cba203663b.shtml> 에서 2017. 6. 1 인출하여 정리함.

2) 출산·육아 조절

동법에 의하면 국민은 출산의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계획적으로 출산하고 양육하는 의무가 있고, 부부는 계획적 출산·육아를 실천하는 데에 공동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법 제3장 제17조). 출산·육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 2-3-2>와 같다.

표 2-3-2 출산·육아 관련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출산에 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한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독려 -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규정 - 소수민족도 계획적 출산양육을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규정 - 부부 양측의 호적 소재지가 속해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재출산하는 것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원칙 적용
계획적 출산·육아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출산육아를 실천하는 데에 피임이 주된 방법 -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적절한 피임방법이나 산아 제한 방법을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조건 마련 -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가임 연령의 부부는 피임방법이나 산아 제한 방법을 자주적으로 선택
출산·육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출산·육아를 실천하는 가임 연령의 부부는 국가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계획적 출산·육아 서비스를 무료 이용 - 규정에 따른 필요 경비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재정 예산에 포함시키거나 사회보험을 이용해 보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아를 출산한 여성과 불임 여성의 차별 대우 및 학대 금지 - 여아의 차별 대우 및 학대, 유기 금지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 위원회 <http://www.nhfp.gov.cn/zwgk/falv/201606/1c0ac828bce44560bd2389cba203663b.shtml> 에서 2017. 6. 1 인출하여 정리함.

나. 출산 휴가에 대한 최신 규정

국무원이 공포한 <여성 근로자보호 특별규정>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계획적 출산·육아 규정을 어기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획적 출산·육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라는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혼전 출산하거나 초과 출산하는 등 계획적 출산·육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출산 휴가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가 관공서, 비영리 사업체, 국유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는 제외된다(2017년 전국 출산 휴가에 대한 최신 규정 <http://www.yjbys.com/wage/249243.html> 에서 2017. 6. 8 인출).

표 2-3-3 전국 출산 휴가 최신 규정

- 1) 출산 휴가 98일, 이 중에서 15일까지 출산 전 휴가로 사용 가능
- 2) 난산의 경우 출산 휴가 15일 추가
- 3) 다둥이 출산 시: 자녀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출산 휴가 15일씩 추가
- 4) 임신 4개월 미만 유산 시: 출산 휴가 15일
- 5) 임신 4개월 이상 유산 시: 출산 휴가 40일
- 6) 만육(늦은 출산) 출산 휴가 일수는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에서 해당 지역의 계획생육 조례 규정에 따른다.

자료: 2017년 전국 출산 휴가에 대한 최신 규정 <http://www.yjbys.com/wage/249243.html> 에서 2017. 6. 8 인출하여 정리함.

다.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

1) 모자보건법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출생 인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동법을 제정(모자보건법 제1장 제1조)하였다. 동법에 근거하여 각급 인민정부가 모자보건 사업을 주도하며, 모자보건 사업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모자보건법 제1장 제3조). 「모자보건법」에는 혼전 보건, 임신기간 보건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임신기간 보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3-4>과 같다.

표 2-3-4 모자보건법의 임신기간 보건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건 기관에서 가입여성과 임신부에게 제공 - 모자보건 지도: 건강한 아이 출산, 심각한 유전성 질병의 발병 원인 및 예방치료법, 아이오딘 결핍증의 발병원인 및 예방치료법에 대해 의학적 견해 제공 - 임신부 보건: 임신부에게 위생 및 영양, 심리 등에 대한 상담을 해 주고 출산 전 정기적인 의료 검사 서비스 제공 - 태아 보건: 태아의 성장 발육을 보호하고 상담과 의학적인 견해 제공 - 신생아 보건: 신생아의 성장 발육과 수유, 돌봄에 대한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
신생아 출생증명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건 기관과 가정 출산에 종사하는 조산사들이 국무위원회행정부서 규정에 따라 신생아출생증명서 발급 - 임신부나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생아 출생 결함이 있는 경우 위생행정부서에 신고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건 기관이 임신부에게 과학적인 육아 지도와 합리적인 영양 지도, 모유수유 지도 - 의료보건 기관이 영유아에게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실시 - 신생아 질병 검진을 실시하고 영유아 다발성 질환과 영유아에게 흔한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 위원회 <http://www.nhfpc.gov.cn/zwgk/falv/201606/1c0ac828bce44560bd2389cba203663b.shtml> 에서 2017. 6. 1 인출하여 정리함.

2) 모자보건법 실시방안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이하 모자보건법)에 의거하여 본 실시방안을 제정하였으며(모자보건법 실시방안 제1장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모자보건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 및 기관 근무자들은 모자보건법과 본 실시방안을 준수해야 한다(모자보건법 실시방안 제1장 제2조).

표 2-3-5 모자보건법 실시방안의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서비스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자보건 관련 홍보, 교육과 자문 2. 결혼 전 의학적 신체검사 3. 출산 전 진단과 유전성 질환 진단 4. 조산 기술 5. 의학적으로 필요한 정관수술 6. 신생아 질환 검사 7. 출산, 불임 관련 생식보건 서비스

표 2-3-5 계속

구분	세부 내용
서비스 주관 (국무원 위생행정 부서) 및 업무 이행	1. 모자보건법 및 본 실시방안에 맞는 규정과 기술 규범 제정 2. 등급 및 종류에 따른 지도를 원칙으로 전국 모자보건 사업 발전 계획과 실행 절차 규정 3. 모자보건 및 기타 생식 건강에 적합한 기술 홍보 4. 모자보건사업의 진행 감독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 위원회 <http://www.nhfpc.gov.cn/zwgk/falv/201606/1c0ac828bce44560bd2389cba203663b.shtml> 에서 2017. 6. 1 인출하여 정리함.

「모건보건법 실시방안」에서 임신기간 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보건 기관은 가임여성에게 피임이나 불임, 출산, 생식건강 등에 대한 자문과 의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가임 부부가 심각한 유전질환을 앓고 있거나 앓고 있다고 의심될 때 그에 맞는 의학적 의견을 제공하되 기존의 의료 수단으로 확진하기 어려울 때는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가임 부부가 피임이나 불임 등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모자보건법 실시방안 제3장 제17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 2-3-6>과 같다.

표 2-3-6 모자보건법 실시방안 중 임신기간 보건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임산부 의료보건 서비스	1. 임산부에게 의료수첩이나 의료카드를 만들어 주고 출산 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2. 임산부에게 위생, 영양, 심리 등에 대한 의학적 지도와 자문 제공 3. 고위험 임산부에게 간호, 방문지도,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 4. 임산부에게 안정적인 분만 기술 서비스 제공 5. 출산 후 방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과학적인 양육법 교육 6. 피임에 대한 자문과 기술 서비스 제공 7. 임산부 및 가족들에게 생식 건강과 과학적인 육아 지식 교육 8. 기타 임신 기간 보건 서비스 제공
기타	- 기술적인 방법으로 태아의 성별을 판정하는 행위 엄금 - 국가가 입원해서 출산하는 것 독려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 위원회 <http://www.nhfpc.gov.cn/zwgk/falv/201606/1c0ac828bce44560bd2389cba203663b.shtml>에서 2017. 6. 8 인출하여 정리함.

「모건보건법 실시방안」의 영유아 보건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 보건 기관에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신생아 선천성 질환과 유전성 질환을 검사, 진단하고 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모자보건법 실시방안 제4장 제25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 2-3-7>과 같다.

표 2-3-7 모자보건법 실시방안 중 영유아 보건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건 기관에서는 규정에 따라 신생아를 살피고 아동수첩(카드)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실시 - 질병예방, 합리적인 음식 섭취, 지능발달에 대한 과학 지식을 제공하고, 영유아 다발성 질환 등을 예방 치료
모유 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서 모유수유 시행 장려 - 의료 보건 기관은 모유수유를 위해 기술적인 지도를 하고, 입원해서 분만하는 임산부에게 필요한 모유수유 조건 마련 - 의료보건 기관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모유 대용품 추천 금지 - 모유 대용품의 제품 포장에 모유 수유의 우월성 표시
출산 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은 국가에서 정한 출산 휴가 이용 -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 근무시간 내에 일정한 모유수유 시간 마련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 위원회 <http://www.nhfpc.gov.cn/zwgk/falv/201606/1c0ac828bce44560bd2389cba203663b.shtml> 에서 2017. 6. 8 인출하여 정리함.

4.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정책 변화

중국은 70년대 이후로 인구 및 출산 정책에 신경을 써왔고, 대표적인 정책은 인구 및 계획 생육법에 의한 ‘한자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제한 정책에서 허용 정책으로 전환하기까지 중국의 인구 및 출산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돌만 낳자(1971~1977)

1950년대 후반부터 인구증가 억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중국이 산

아제한을 시작한 것은 1971년으로 중국 국무원은 ‘계획 생육에 관한 보고’를 통해 ‘하나도 적지 않고, 둘은 딱 좋고, 셋은 너무 많다’라는 구호 아래 산아제한을 시작했다. 1973년 ‘늦게, 띄엄띄엄, 적게’ 운동을 시작하여 남자는 25세, 여자는 23세 이후에 늦게 결혼하고, 자녀 터울을 3살 이상으로 하며, 한 부부당 둘 이상의 자녀는 낳지 말자는 운동을 하게 된다. 국무원에서는 1973년 계획출산지도위원회를 창립하고, 1977년 3월에는 헌법 제53조에 ‘국가는 계획출산을 제창 추진할 것’을 명시하여 계획출산에 대한 법적규제가 시작되었다(박광준·오영란, 2011).

나. 하나만 낳자(1978~2001)

중국은 1970년대 초중반까지 2명 이하의 자녀를 장려하다가 1978년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3조에서 ‘국가는 계획생육을 제정하고 진행한다’로 규정하여 20세기 내에 인구 총량을 12억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였다. 덩샤오핑은 과도한 인구성장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구 증가 억제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하였다(이삼식·김익기·최효진·杜鵬·陆杰华·奥山正司·高橋泉, 2013).

1982년 ‘농촌의 외동딸 가정은 둘째를 낳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포함하였으나 이후 약 20년간 한자녀 정책은 지속되었다. 중국정부가 1979년부터 실시한 ‘1가구 1자녀’ 정책과 소득 및 교육수준 상승에 따른 저출산 풍조 등으로 출산율이 크게 줄었으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가 1970년 5.5명에서 2010년 1.54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정상은, 2016). 중국 정부는 1990년대 후반까지 한자녀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개혁도 추진하여, 그 결과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말 2.3명 수준(도시 1.4명, 농촌 2.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초에는 인구대체 수준(2.1명) 이하로 감소하였다(이삼식 외, 2013).

다. 제한적 두자녀 허용(2002~2015)

중국 정부는 2000년 ‘출산율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여 부부당 1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권유하되, 상황에 따라서 둘째 자녀도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이삼식 외, 2013). 2002년에 시행된 인구계획법에서는(2001년 12월 29일 제정, 2002년 9월 1일 시행) 만혼을 장려하고, 1부부 1자녀 정책을 원칙으로 하나 부부 모두 독자일 경우, 둘째 자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명문화하였는데, 이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집단별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21세기 들어 중국은 노령화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3년 11월부터 계획생육의 기본 정책을 고수하되, 부부 중 한 명만 독자면 둘째를 낳을 수 있게 하였다. ‘제한적 두자녀 허용’ 정책이 실시된 이후, 2014년 말까지 모두 107만 명의 부부가 두 번째 자녀의 출산을 신청하였으며 2015년 5월까지 전국에서 145만 쌍의 부부가 두 번째 출산을 신청하였다(류지·송차이, 2015).

라. 전면적 두자녀 허용(2016~)

2015년 ‘모든 국민에게 전면적인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인구계획법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정안의 핵심조항은 ‘국가는 1쌍의 부부가 두 명의 자녀를 기르도록 주도한다(중

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법 제18조)이다. 이는 빠른 속도로 진행 되는 고령화와 노동가능 인구의 감소(중국의 노동인구는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4년부터 345만 명 감소하였으며, 2023년 이후에는 매년 평균 8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에 대응하여 중국 경제의 증장기 활력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산당 지도부의 결단으로 인한 결과이다(정상은, 2016).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희망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翟振武·李龙·陈佳鞠(2016a)은 총 인구 규모로 볼 때,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은 인구 전환점을 늦추는 동시에 인구 피크(인구 총량의 최고점, 인구 피크에 달하면 인구는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하게 됨)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에서 한 자녀 출산 정책을 시행하는 전국 인구는 약 37.5%이고, ‘한 자녀 반’ 출산 정책을 시행하는 전국 인구는 약 52.8%이며, 두 자녀(또는 여러 자녀)출산 정책을 시행하는 전국 인구는 약 9.6%(王培安, 2014)이다. 이에 翟振武, 李龙 그리고 陈佳鞠(2016b)은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의 실제 대상을 목표 집단으로 설정하여 출생인구를 예측하고자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의 목표 집단을 한 자녀 출산 정책 지역(북경, 천진, 상해, 강소, 사천, 그리고 중경) 내 여아 1명을 둔 가임 연령의 여성으로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으로 인해 새로 증가하는 출생 인구 수를 추산하였다.

翟振武, 李龙 그리고 陈佳鞠(2016b)에 의하면, 2017~2021년간 예측되는 누적 증가 출생 인구 수가 약 2,541.6만 명이고, 평균 둘째 출산 비율은 약 28%으로 39세 이하(2016년도 기준 연령)의 가임기 연령대의 여성은 2017~2021년 사이에 누계 약 2,030.8만 명(전체의 약 79.9%를 차

지)을 새로 출산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실시 후, 연도별 출생 인구 피크는 2,30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이며, 이는 1990년대 전기의 출생 인구 수준과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것임을 밝혔다(翟振武·李龙·陈佳鞠, 2016b).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아제한정책을 엄격하게 추진해왔던 중국의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은 인구증가 효과로 인한 고령화 문제 해결, 내수시장 확대 등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정책으로 인한 일차적, 단기적 효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인구 총량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보다 많은 상황이다.

제3장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3. 소결



본 장에서는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관련 법, 이와 관련한 정책들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가. 관련 통계

중국 허베이성 중심에 위치한 중국의 수도인 북경은 상하이, 톈진, 충칭과 함께 4대 직할시의 하나로 행정구획은 14구 2현으로 이루어져 있다(중국행정구획총람, 2017.7.14 인출)⁷⁾. 북경에는 전체 중국의 56개의 민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한족이 1,322.9만 명으로 95.7%를 차지하고 있다(2000년 제5차 전국 인구 전면조사). 회족, 만주족, 몽골족의 인구는 평균 만여 명을 넘는다.

1) 인구 및 인구 추이

북경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녀 성비는 1980년도 기준 남성이 여성의 1.025배, 2015년도 기준 1.053배로 보고되어 남성의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도시 인구나 농촌 인구를 살펴보면 1980년도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의 1.36배였으며, 이는 2015년도 6.41배로 보고되어 도시의 인구가 농촌의 인구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출생률의 경우 1980년도 15.56%에서 이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여 2015년에는 7.96%으로 보고되었다. 사망률 또한 1980년도 6.30%에서

7) 중국행정구획총람. 베이징직할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2198&cid=43792&categoryId=51740>(2017. 7. 14 인출).

점차 감소하여 2015년에는 4.95%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성장률은 1980년 9.26%에서 2015년도에는 3.01%로 나타났다. 즉, 북경은 도시 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고, 출생률의 감소에 따라 자연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다.

표 3-1-1 영구 인구 추이: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2015

(단위: 천명, %)

년도	영구 인구 (1000명)	성별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		출생률 (%)	사망률 (%)	자연 성장률 (%)
		남	여	도시 인구	농촌 인구			
1980	904.3	457.8	446.5	521.1	383.2	15.56	6.30	9.26
1985	981.0	500.0	481.0	586.0	395.0	15.45	5.75	9.70
1990	1,086.0	545.0	541.0	798.0	288.0	13.04	5.81	7.23
1995	1,251.1	627.0	624.1	946.2	304.9	7.92	5.12	2.80
2000	1,363.6	710.9	652.7	1,057.4	306.2	6.20	5.30	0.90
2004	1,492.7	779.9	712.8	1,187.2	305.5	6.13	5.39	0.74
2005	1,538.0	778.7	759.3	1,286.1	251.9	6.29	5.20	1.09
2006	1,601.0	817.6	783.4	1,350.2	250.8	6.22	4.94	1.28
2007	1,676.0	850.8	825.2	1,416.2	259.8	8.16	4.83	3.33
2008	1,771.0	900.2	870.8	1,503.6	267.4	7.89	4.59	3.30
2009	1,860.0	949.8	910.2	1,581.1	278.9	7.66	4.33	3.33
2010	1,961.9	1,013.0	948.9	1,686.4	275.5	7.27	4.29	2.98
2011	2,018.6	1,040.7	977.9	1,740.7	277.9	8.29	4.27	4.02
2012	2,069.3	1,068.1	1,001.2	1,783.7	285.6	9.05	4.31	4.74
2013	2,114.8	1,090.7	1,024.1	1,825.1	289.7	8.93	4.52	4.41
2014	2,151.6	1,106.5	1,045.1	1,859.0	292.6	9.75	4.92	4.83
2015	2,170.5	1,113.4	1,057.1	1,877.7	292.8	7.96	4.95	3.01

자료: BEIJING STATISTICAL YEARBOOK(2016). <http://www.bjstats.gov.cn/nj/main/2016-tjnj/zk/indexeh.htm>에서
(표 3-2) 2017.06.27. 인출.(재구성)

연령에 따른 북경의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영구 인구 217만 명 중 4세 이하의 인구는 약 4.3%에 달하며, 19세 이하의 인구는

13.4%에 불과하다. 20세에서 39세까지의 인구는 40.2%에 해당하여 청년층과 중년층 인구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60세 이상의 인구는 15.6%로 유아 및 청소년의 인구에 비해 노년층의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2 연령별 인구 비율: 2015

(단위: 천명, %)

연령	영구인구(1000명)	비율
총합	2,170.5	100.0
0~4	93.8	4.3
5~9	74.0	3.4
10~14	51.3	2.4
15~19	71.4	3.3
20~24	207.7	9.6
25~29	254.1	11.7
30~34	233.2	10.7
35~39	177.1	8.2
40~44	177.2	8.2
45~49	170.7	7.9
50~54	169.3	7.8
55~59	150.2	6.9
60~64	117.7	5.4
65~69	76.7	3.5
70~74	50.6	2.3
75~79	45.7	2.1
80~84	31.6	1.5
85 이상	18.2	0.8

자료: BEIJING STATISTICAL YEARBOOK(2016). <http://www.bjstats.gov.cn/nj/main/2016-tjnj/zk/indexeh.htm>에서
 (표 3-6) 2017.06.27. 인출.

2) 가구 특성

북경의 영구 인구 가족 크기를 살펴보면, 총 177,241가구 중 144,780

가구가 도시 가구로 드러나 농촌 가구에 비해 도시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시와 전체 평균 가정에 비해 농촌의 가정은 1인 가구 비율과 3인 가구의 비율이 각 18.8%와 24.1%로 도시보다 낮은 반면, 4인 가구와 5인 이상의 가구 비율은 각 12.0%와 13.3%로 도시보다 높은 모습을 보였다. 도시와 농촌 모두 2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도시는 5인 이상의 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농촌은 4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3-1-3 영구 인구의 가족 크기(2015)

(단위: 가구, %)

지역	총 가구 수	다양한 크기의 가족의 비율(%)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전체	177,241	20.5	31.4	28.8	10.4	8.9
도시	144,780	20.9	31.3	29.8	10.1	7.9
농촌	32,461	18.8	31.8	24.1	12.0	13.3

자료: BEIJING STATISTICAL YEARBOOK(2016). <http://www.bjstats.gov.cn/nj/main/2016-tjnj/zk/indexeh.htm>에서 (표 3-8) 2017.06.27. 인출.

북경의 전체 가구 기본 생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4만 8,458위안이었으며,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이보다 1.09배 높은 5만 2,859위안인 반면 농촌 가정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이의 0.42배에 불과한 2만 569위안으로 보고되었다. 1인당 소비 지출 또한 도시 주민은 전체 주민의 소비 지출보다 약 1.08배 높은 3만 6,642위안이었으나, 농촌 주민은 전체 주민의 0.47배인 1만 5,811위안에 그쳤다. 앵겔 지수의 경우, 전체 가구와 도시 가구의 수치는 각 22.4와 22.1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농촌 가구의 앵겔 지수는 27.7로 훨씬 높았다.

표 3-1-4 전체 가구의 기본 생활 조건: 2015

(단위: 위안, %)		
항목	2015	2014년 대비 비율
주민 기본 생활 조건		
1인당 가처분 소득	48,458	108.9
1인당 소비 지출	33,803	108.7
가구의 영겉 계수	22.4	
도시 가구의 기본 생활 조건		
1인당 가처분 소득	52,859	108.9
1인당 소비 지출	36,642	108.7
가구의 영겉 계수	22.1	
농촌 가구의 기본 생활 조건		
1인당 가처분 소득	20,569	109.0
1인당 소비 지출	15,811	108.8
가구의 영겉 계수	27.7	

자료: BEIJING STATISTICAL YEARBOOK(2016). <http://www.bjstats.gov.cn/nj/main/2016-tjnj/zk/indexeh.htm>에서 <표 8-1> 2017.06.27. 인출.

3) 경제

1980년 북경의 GDP는 139.1억 위안에 달했으며, 1인당 GDP는 1,544위안이었다. 이는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여 2004년에는 총 GDP가 6,033.2억 위안, 1인당 GDP는 4만 916위안에 도달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증가하여 2010년에는 총 GDP 1조 4,113.6억 위안, 1인당 GDP는 7만 3,856위안으로 보고되었으며, 2015년에는 총 GDP 2조 3,014.6억 위안, 1인당 GDP 10만 6,497위안이다.

표 3-1-5 국내총생산(GDP):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2015

(단위: 1억 위안)

년도	GDP	1인당 GDP (위안/사람)	1인당 GDP (USD/사람)
1980	139.1	1,544	1,009
1985	257.1	2,643	900
1990	500.8	4,635	969
1995	1,507.7	12,690	1,520
2000	3,161.7	24,127	2,915
2004	6,033.2	40,916	4,943
2005	6,969.5	45,993	5,615
2006	8,117.8	51,722	6,488
2007	9,846.8	60,096	7,903
2008	11,115.0	64,491	9,286
2009	12,153.0	66,940	9,799
2010	14,113.6	73,856	10,910
2011	16,251.9	81,658	12,643
2012	17,879.4	87,475	13,857
2013	19,800.8	94,648	15,284
2014	21,330.8	99,995	16,278
2015	23,014.6	106,497	17,099

자료: BEIJING STATISTICAL YEARBOOK(2016). <http://www.bjstats.gov.cn/nj/main/2016-tjnj/zk/indexeh.htm>에서
 〈표 2-1〉 2017.09.12. 인출.(재구성)

4) 유아원 및 원아 수

북경의 유아원 기본 통계를 살펴보면, 1980년도 유아원 수는 3,991개 원, 원아 수는 21만 9,407명이었으나, 유아원의 수가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유아원이 1,361개원, 원아가 19만 7,546명이었다. 2013년부터 유아원 수는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에는 1,487개원에 도달하였으며 원아 수는 39만 4,121명으로 보고되었다.

표 3-1-6 유아원 기본 통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2015

(단위: 개원, 명)

년도	유아원 수	학급 수	원아 수
1980	3,991		219,407
1985	2,955		316,024
1990	3,798		372,555
1995	3,024		315,277
2000	2,047		229,012
<hr/>			
2004	1,422	8,087	205,532
2005	1,358	8,148	202,301
2006	1,361	8,051	197,546
2007	1,306	8,132	214,423
2008	1,266	8,382	226,681
2009	1,253	9,036	247,778
2010	1,245	9,883	276,994
2011	1,305	11,213	311,417
2012	1,266	11,882	331,524
2013	1,384	12,580	348,681
2014	1,426	13,245	364,954
2015	1,487	14,098	394,121

자료: BEIJING STATISTICAL YEARBOOK(2016). <http://www.bjstats.gov.cn/nj/main/2016-tjnj/zk/indexeh.htm>에서
 (표 18-2) 2017.06.27. 인출(재구성)

북경의 전체 유아원 수는 1,487개원으로 그 중 약 73%에 달하는 1,082개의 유아원이 대도시에 분포해있었다. 전체 원아 수는 39만 4,121명이었으며 그 중 여아는 18만 8,977명으로 약 48%에 달했다.

표 3-1-7 유아원 통계: 2015

(단위: 개원, 명)

항목	전체	여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유아원 수	1,487		1,082	197	208
학급 수	14,098		11,502	1,590	1,006
원아 수	394,121	188,977	324,586	44,339	25,196

자료: BEIJING STATISTICAL YEARBOOK(2016). <http://www.bjstats.gov.cn/nj/main/2016-tjnj/zk/indexeh.htm>에서
 (표 18-11) 2017.06.27. 인출.

나. 관련 법규

1) 북경시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2016.3.24. 수정안)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법」을 실행하기 위해 북경시(市)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북경시 인구 및 계획 생육 조례 제1장 제1조), 인구 수량을 통제하고, 인구 소양을 높여 인구 구조와 인구 분포를 개선시키기 위해 각급 인민정부는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북경시 인구 및 계획 생육 조례 제1장 제2조). 또한 시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구 수, 인구 분포를 조절·통제하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절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 3-1-8>과 같다.

표 3-1-8 북경시 인구 및 계획 생육 조례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주관 및 업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구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지역의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업무 주관 - 시, 구 위생 및 계획적 출산·양육 행정부서가 해당 행정지역의 계획적 출산·양육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인구 업무 담당 - 시, 구 인민정부 기타 관련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업무 담당 - 향진(鄉鎮) 인민정부 및 동사무소는 관할지역의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업무 담당 -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부녀연합회 및 계획적 출산·양육 협회 등 사회단체, 기업체, 비영리사업체, 기타 단체 및 국민들은 본 시 각급인민정부를 협조하여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업무 추진 -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법에 의거하여 계획적 출산·양육 업무 전개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인민정부는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사업 경비를 재정 예산에 포함, 관련 비용 투입
인구계획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상황이 시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과 자원, 환경의 수용 능력에 상응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인구 수량과 인구 연령 구조, 인구 분포를 합리적으로 조절·통제하는 데에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 수립 - 시, 구 인민정부는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종합정보 시스템을 수립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인구 총량, 인구 구조, 인구 출생과 사망, 인구 이동 등 인구 변동 추세에 대한 중장기 측정 업무 전개 - 공안부서는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사업의 요구에 따라 호적인구와 유동인구 관리 - 민정부서는 위생 및 계획적 출산·양육 행정부서를 협조하여 혼인 신고 업무를 전개 시 홍보 역할 -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행정부서는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사업의 요구에 따라 노동 취업과 사회 보장 등 관련 정책을 제정 - 농업행정부서는 농촌경제 정책 등 면에서 계획적 출산·양육을 실천하는 가정 지원 - 교육행정부서는 학교를 지도하여 교육 대상자의 특징에 맞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인구 기초 지식 교육과 사춘기 교육, 성교육 실시

표 3-1-8 계속

구분	세부 내용
	- 과학기술, 문화, 신문출판방송 등 행정부서가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에 대한 홍보를 진행해야 하고 대중언론은 사회 공익적 홍보 진행

자료: 북경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http://www.bjrd.gov.cn/tzgg/201603/t20160325_161814.html 에서 2017. 6. 8 인출하여 정리함.

북경의 인구계획 및 관리 조항에는 관련 부처별 계획, 관리 등을 분담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 기초지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히 사항으로 보인다.

한편 「북경시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에 의하면 국민은 출산의 권리가 있고 법에 따라 계획적으로 출산하고 양육하는 의무가 있으며, 부부는 계획적 출산·양육을 실천하는 데 공동책임이 있다(북경시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 제3장 제15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법」에 근거한 것으로 동일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출산 관련 휴가와 혼전 및 임신출산 기간 보건의료, 영유아 건강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9>와 같다.

표 3-1-9 북경시 인구 및 계획 생육 조례의 출산육아 관련 내용

구분	세부 내용
휴가	-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국가에서 정한 결혼 휴가 외에 휴가를 7일 더 사용 - 관공서, 기업체, 비영리사업체, 사회단체 및 기타 단체의 여성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출산한 경우, 국가에서 정한 출산 휴가 외에 출산 포상 휴가 30일을 더 지원해 주고, 그 배우자에게 출산 동안 휴가 15일 지원 - 여성 근로자 및 그 배우자가 휴가 하는 동안 관공서, 기업체, 비영리사업체, 사회단체나 기타 단체에서는 월급을 인하하거나 해고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안됨. - 여성 근로자가 근무자인 관공서, 기업체, 비영리사업체, 사회단체나 기타 단체의 허락을 받으면 출산 휴가를 1~3개월까지 추가로 허용
서비스	- 본 시에서 혼전 보건의료와 임신출산 기간 보건의료를 수립하여 영유아 출생 결함을 줄이고 영유아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 시, 구 인민정부가 위생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계획적 출산육아 서비스 기관과 계획적 출산양육 기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의료 보건 기관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완

자료: 북경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http://www.bjrd.gov.cn/tzgg/201603/t20160325_161814.html 에서 2017. 6. 8 인출하여 정리함.

2) 북경시 출산 휴가 최신 규정

북경시 출산 휴가에 관한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만육(늦은 출산) 휴가를 취소하고 출산 장려 휴가를 늘렸다는 것이 큰 차이점으로 출산 동반 휴가가 15일로 늘었으며, 여성 근로자가 소속 근무지(관공서, 기업체, 비영리 사업체, 사회단체나 기타 단체)의 허락을 받으면 휴가를 1개월~3개월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2017년 전국 출산 휴가에 대한 최신 규정 <http://www.yjbys.com/wage/249245.html>에서 2017. 6. 15 인출). 즉, 근무지의 허락을 받은 전제 하에 앞서 언급한 휴가를 바탕으로 1개월~3개월 정도의 휴가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표 3-1-10 북경시 출산 휴가 관련 최신 규정

- | |
|--|
| 1) 출산 휴가 98일, 이 중에서 15일까지 출산 전 휴가로 사용 가능 |
| 2) 출산 장려 휴가 30일 |
| 3) 난산의 경우 출산 휴가 15일 추가 |
| 4) 다둥이 출산 시: 자녀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출산 휴가 15일씩 추가 |
| 5) 임신 4개월 미만 유산 시: 출산 휴가 15일 |
| 6) 임신 4개월 이상 유산 시: 출산 휴가 42일 |
| 7) 출산 동반 휴가 15일 (남편의 출산 휴가) |

자료: 2017년 전국 출산 휴가에 대한 최신 규정 <http://www.yjbys.com/wage/249245.html>에서 2017. 6. 15 인출하여 정리함.

과거 북경시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면 대체로 국가에서 정한 출산 휴가 98일, 북경 법규에서 정한 만육(늦은 출산) 휴가 30일, 근무지에서 허락한 3개월 외자녀 장려 휴가를 누릴 수 있었는데, 최신 규정에 의하면 여성 근로자가 국가에서 정한 98일 출산휴가 외에 30일 동안의 출산 장려 휴가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자녀 출산 장려 휴가가 취소되었고, 출산 장려 휴가가 원래의 만육(늦은 출산) 휴가를 대체하여 총 출산 휴가의 일수에는 변화가 없다. 한편 북경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면 그 배우자가

출산 동반 휴가 15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 추가된 휴가이다(북경시 둘째아 출산 시 출산 휴가 규정 2017 <http://www.yjbys.com/news/522923.html>에서 2017. 6. 15 인출).

표 3-1-11 북경시 여성근로자 특별보호 규정

구분	세부 내용
출산 휴가	- 여성 근로자가 출산 시 98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중 15일까지 출산 전 휴가로 사용 가능 - 다둥이 출산 시 아이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출산 휴가 일수가 15일씩 추가 - 임신 4개월 미만 유산 시 출산 휴가를 15일 사용할 수 있고, 임신 4개월 이상 유산 시 출산 휴가를 42일 사용
복지	- 고용주는 임신, 출산, 모유수유 등 이유로 여성 근로자의 월급을 인하하거나 여성 근로자 본인을 해고하거나 계약 해지 금지 - 출산 휴가 기간의 월급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 되고, 법적으로 여성의 출산 휴가가 유급휴가라는 것 명시
출산 전후 휴가	- 태아 보호 목적의 출산 전 휴가는 병가로 취급하여, 진료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병가로 처리해서 월급 지급 - 여성 근로자가 임신 7개월 이상 시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 출산 전 휴가를 2.5개월까지 신청 가능 - 지방 법규에서 휴가를 주도록 규정한 경우, 고용주가 허가해 줘야 하며 월급은 기존 월급의 80% 수준으로 지급 - 수유 휴가 기간이 6.5개월 미만일 때 월급은 기존 수준의 80%를 지급받고, 6.5개월을 넘는 경우 70%를 지급 -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실질적 어려움이 있고 업무적으로 허락이 된다면 수유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서 6.5개월 수유 휴가 가능

자료: 북경시 둘째아 출산 시 출산 휴가 규정 2017 <http://www.yjbys.com/news/522923.html>에서 2017. 6. 15 인출하여 정리함.

한편 다둥이 가구의 경우, 1명 출산시마다 15일씩 출산휴가가 추가되며, 유산시 휴가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임신 7개월이 지나면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 출산전 휴가를 2.5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존 월급의 8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 6.5개월 출산후 수유 휴가가 가능하다는 규정 또한 포함되어 있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복리대우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여성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가 노동 계약을 해지하

면 안 되고 월급을 매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기업 근로자 출산보험 관련 문제 처리 방법에 대한 통지」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급 받은 출산보조금은 근로자 본인의 급여총액에 포함시켜야 하고, 고용주가 근로자 대신 출산보조금을 받은 후 근로자 본인에게 월별로 지급해줘야 한다. 또한 출산보조금이 근로자 본인 월급 기준보다 많은 경우 고용주가 중간에서 가로채면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3-1-12 출산 휴가 기간 중 급여

구분	세부 내용
출산 휴가 동안의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가 여성 근로자를 위해 출산 보험금을 납부한 경우 출산 휴가 기간 중 여성 근로자가 출산 보조금, 출산 의료비, 계획적 출산양육 수술 의료비, 국가 및 시에서 정한 기타 비용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비용들은 사회보장 기금으로 전액 지불 - 출산 보조금이란 여성 근로자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월급을 의미하고, 계산 방법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한 월의 보험금 납부 베이스(기준액)를 출산 휴가 일수로 나눔. - 보조금이 여성 근로자 본인의 월급보다 적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채워야 함. - 고용주가 여성 근로자를 위해 출산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여성 근로자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월급을 고용주가 직접 지급 - 여기에 시간급, 성과급, 직무급, 상여급, 보조금과 수당을 포함하고 지급 기준은 출산 휴가 전 월급 기준에 따름. - 이 밖에 여성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출산 의료비와 출산 질환 의료비 청구 가능
출산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는 보통 고용주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휴가가 끝날 때까지 출산 보조금 수급 - 출산보조금은 출산 기간 중 여성 근로자의 월급을 지급하도록 국가가 기업에게 준 지원금으로 산정할 때 사회보험처(處)에 신고된 급여베이스가 기준 - 실제 출산보조금이 출산 휴가 기간 중 월급과 다를 경우, 출산 휴가 기간 중 월급과 출산보조금 중 많은 것을 받도록 규정 - 여성 근로자가 사회보험금을 누적 1년 이상 납입할 시, 근로자 본인이 출산(또는 유산)한 월에 해당하는 도시노령보험 납부 베이스를 규정에 의해 출산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출산 보조금 지급 - 여성 근로자가 사회보험금을 납입하는 기간이 누적 1년 미만 시, 근로자 본인이 출산(또는 유산)한 월에 해당하는 시 최저임금기준을 규정에 의해 출산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출산 보조금 지급 - 출산보조금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한 월의 보험금 납부 베이스를 30으로 나눈 후 출산 휴가 일수와 곱하는 식으로 계산 - 출산보조금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월급이며, 출산보조금 금액이 근로자 본인 월급보다 적은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채워줌.

자료: 북경시 둘째아 출산 시 출산 휴가 규정 2017 <http://www.yjbys.com/news/522923.html>에서 2017. 6. 15 인출하여 정리함.

다. 출산·육아 정책

1) 북경시 전면적 두 자녀 허용 정책⁸⁾

2014년 2월 21일부터 북경시는 ‘제한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한적 두 자녀’를 신청한 가정이 61,810개에 달한다. 추산에 따르면 ‘전면적 두 자녀’ 정책에 부합하는 북경시 거주 가임여성이 236만 명이 추가로 집계되었고, 2017~2021년 사이 북경시에 거주하는 출생인구 수가 58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평균 출생인구 수가 약 11만 명이며 연도 출생인구 최고치는 30만 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북경시 상주인구 출생률이 1.1명에서 1.6명으로 높아지고 누적된 출산 욕구가 3~5년 내에 모두 해소되어 2021년 이후 인구출생률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경시는 「북경시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목표 관리 책임제를 시행하여 만혼·만육(늦은 결혼, 늦은 출산), 출산 간격에 대한 규정을 취소하고 재출산 정책을 보완하였으며, 동시에 출산장려 휴가, 배우자 동반휴가 등 혜택을 추가하였다.

2) 출산보험 및 보조금⁹⁾

북경시에 있는 고용주(기업체, 관공서, 비영리사업체, 사회단체, 민영비기업체, 기금회, 변호사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개인사업자 포함)는 소

8) 북경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에 대한 해석 <http://bj.bendibao.com/news/201617/213422.shtml>에서 2017. 6. 18 인출하여 정리함.

9) 북경시 둘째아 출산 시 출산 휴가 규정 2017 <http://www.yjbys.com/news/522923.html>에서 2017. 6. 18 인출하여 정리함.

속 근로자를 위해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하는 동안 출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은 고용업주가 매월 납부하는 급여의 평균치를 30으로 나눈 후 출산 휴가 일수를 곱해서 지급한다.

출산보조금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급이며 보조금 금액이 근로자 본인의 급여기준보다 많은 경우 고용주가 중간에서 가로채면 안 되고 근로자 본인의 급여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고용주가 채워야 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출산 전 누적 납입기간이 9개월 미만인데 출산 후 보험금을 연속 12개월 납입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출산 보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때 보조금을 지급 받는 월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주가 매월 납부하는 급여의 평균치를 30으로 나눈 후 출산 휴가 일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가. 관련 통계

연변은 길림성 동부에 위치하며 면적이 43,509km², 인구가 229만 명인 '연변조선족자치주'이다(두산백과, 2017. 7. 14 인출)¹⁰. 중국의 동북쪽에 위치하며 북한을 남쪽으로 접하고 있고, 연길시, 도문시 등의 6개시와 왕청현, 안도현의 2현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중국행정구획총람, 2017. 7. 14. 인출)¹¹. 연변에는 한족 외에도 여러 소수민족이 거주하며,

10) 두산백과. 연변조선족자치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5681&cid=40942&categoryId=40012>(2017. 7. 14. 인출).

11) 중국행정구획총람. 연변조선족자치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7324&cid=43792&>

연변지역의 46.5%는 조선족으로 중국 최대의 한인 거주 지역이다(위키백과, 2017. 7. 14 인출)¹²⁾.

1) 인구 및 인구 추이

길림성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수는 2000년도 795.8만 가구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4년 1,000.86만 가구에 도달하였으나 2015년에는 다시 927.55만 가구로 감소하였다. 도시인구 수는 2000년도에 49.66%로 농촌인구에 비해 약간 적게 보고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55.31%에 도달하여 도시인구 수가 농촌인구 수보다 더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생률의 경우 2000년도에 9.53%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5.87%로 보고되었다. 인구의 자연성장률을 살펴본 결과, 2000년도에 4.15%로 보고된 이후 출생률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0.34%로 자연성장률이 매우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1 길림성 인구 통계 추이

(단위: 만 가구, 만 명, %)

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가구	795.80	851.00	900.16	944.81	958.33	989.68	1,000.86	927.55
가구당 평균인구 수	3.32	3.16	2.94	2.91	2.87	2.78	2.75	2.97
전체 인구 수	2,681.70	2,716.00	2,746.60	2,749.41	2,750.40	2,751.28	2,752.38	2,753.32
남자	1,372.80	1,386.90	1,391.39	1,392.88	1,403.53	1,406.18	1,391.05	1,390.45
여자	1,308.90	1,329.10	1,355.21	1,356.53	1,346.87	1,345.10	1,361.33	1,362.87

categoryId=51740(2017. 7. 14. 인출).

12) 위키백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 https://ko.wikipedia.org/wiki/%EC%98%8C%EB%B3%9C_%EC%A1%B0%EC%84%A0%EC%A1%B1_%EC%9E%90%EC%B9%98%EC%A3%BC(2017. 7. 14. 인출).

표 3-2-1 계속

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성비(여자 = 100)	104.90	104.35	102.67	102.68	104.19	104.55	102.19	102.02
도시인구 수	1,331.80	1,426.50	1,465.58	1,468.19	1,476.96	1,491.20	1,508.58	1,522.76
비율	49.66	52.52	53.36	53.36	53.70	54.20	54.81	55.31
농촌인구 수	1,349.90	1,289.50	1,281.02	1,281.22	1,273.44	1,260.08	1,243.80	1,230.56
비율	50.34	47.48	46.64	46.64	46.30	45.80	45.19	44.69
출생인구 수	25.50	21.40	21.73	17.95	15.76	14.75	18.22	16.16
출생률	9.53	7.89	7.91	6.53	5.73	5.36	6.62	5.87
사망인구 수	14.40	15.20	16.15	15.15	14.77	13.87	17.12	15.23
사망률	5.38	5.32	5.88	5.51	5.37	5.04	6.22	5.53
자연성장인구 수	11.10	7.00	5.58	2.80	0.99	0.88	1.10	0.93
자연성장률	4.15	2.57	2.03	1.02	0.36	0.32	0.40	0.34

자료: Jilin Statistical Yearbook(2016). <http://tj.jl.gov.cn/tjnj/2016/ml/indexe.htm> 에서 <표 3-2> 2017.07.11.인출.

길림성의 전체 인구 2,662.08만 명 중 연변자치주의 인구는 213.58만 명으로 약 8%에 해당하였다. 길림성의 0~17세 인구와 18~34세 인구는 각 392.08만 명과 615.59만 명으로 총 인구의 약 14.73%와 23.12%에 해당하는 반면, 연변자치주의 0~17세 인구와 18~34세 인구는 각 26.10만 명과 48.09만 명으로 연변 인구의 약 12.22%와 22.52%에 해당한다. 연변에 거주하는 미성년, 청년층 인구의 비율이 길림성 전체의 미성년과 청년층 비율에 비해 낮다.

또한 길림성의 35~60세 인구와 60세 이상 인구는 각 1,155.02만 명과 499.39만 명으로 총 인구의 약 43.39%와 18.76%에 해당하는 반면, 연변자치주의 35~60세 인구와 60세 이상 인구는 각 97.50만 명과 41.89만 명으로 연변 인구의 약 45.65%와 19.61%에 해당하여 연변에 거주하는 중장년, 노년층 인구의 비율은 길림성 전체의 중장년, 노년층 비율에 비해 높았다.

표 3-2-2 연변자치주 인구 구성: 2015

(단위: 만 명)

시군	전체 인구	0~17세	18~34세	35~60세	60세 이상
전체	2,662.08	392.08	615.59	1,155.02	499.39
연변	213.58	26.10	48.09	97.50	41.89

자료: Jilin Statistical Yearbook(2016). <http://tjj.jl.gov.cn/tjnj/2016/ml/indexe.htm> 에서 <표 19-5> 2017.07.11.인출.(재구성)

2) 경제

길림성의 2015년도 1인당 소비 지출에 대해 살펴보면, 평균 1만 7,972.62위안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이의 56.28%에 해당하는 1만 114.42위안, 중·하류층 가구의 경우 이의 76.1%에 해당하는 1만 3,677.31위안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중상류층 가구의 경우 이의 112.82%에 해당하는 2만 277.34위안, 고소득 가구의 경우 이의 179.34%에 해당하는 3만 2231.87위안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및 중하류층 가구의 소비 지출과 중상류층 및 고소득 가구의 소비 지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3 도시 가구의 1인당 소비 지출: 2015

(단위: 위안)

항목	평균	저소득층 가구	중하류층 가구	중간소득 가구	중상류층 가구	고소득 가구
소비 지출	17,972.62	10,114.42	13,677.31	16,955.91	20,277.34	32,231.87

자료: Jilin Statistical Yearbook(2016). <http://tjj.jl.gov.cn/tjnj/2016/ml/indexe.htm> 에서 <표 10-7> 2017.07.11.인출.(재구성)

길림성의 GDP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도 길림성의 GDP는 98.59억 위안, 1인당 GDP는 445위안으로 보고되었다.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조 4,063.13억 위안과 5만 1,086위안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길림성의 GDP와 1인당 GDP가 35년간 약 142.6배와 114.8배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4 국내총생산(GDP):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2015

(단위: 1억 위안, 위안)

년도	GDP	1인당 GDP
1980	98.59	445
1985	200.44	868
1990	425.28	1,746
1995	1,137.23	4,402
2000	1,951.51	7,351
2004	3,122.01	11,537
2005	3,620.27	13,348
2006	4,275.12	15,720
2007	5,284.69	19,383
2008	6,426.10	23,521
2009	7,278.75	26,595
2010	8,667.58	31,599
2011	10,568.83	38,460
2012	11,939.24	43,415
2013	13,046.40	47,428
2014	13,803.14	50,160
2015	14,063.13	51,086

자료: Jilin Statistical Yearbook(2016). <http://tj.jl.gov.cn/tjnj/2016/ml/indexe.htm> 에서 <표 2-1> 2017.09.12. 인출.(재구성)

3) 유아원 수

길림성 유아원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원 수는 2013년 3,808개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4,174개원으로 보고되었으며, 원아 수 또한 2013년도 44만 명에서 2014년도부터 46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3-2-5 유아원 통계

항목	2013	2014	2015
유아원 수	3,808	4,039	4,174
원아 수 (10,000명)	44	46	46

(단위: 개원, 만 명)

자료: Jilin Statistical Yearbook(2016). <http://tjj.jl.gov.cn/tjnj/2016/ml/indexe.htm> 에서 <표 17-8> 2017.07.11.인출.

나. 관련 법규

1) 길림성¹³⁾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

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에 의하면 국민은 법에 의거하여 출산을 해야 하며, 한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독려한다(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 제4장 29조). 첫째아나 둘째아를 출산하고자 하는 부부는 한 쪽의 호적 소재지 또는 부부 현 거주지의 촌민(주민)위원회에 가서 등록하고, 촌민(주민)위원회가 향진(鄉鎮) 인민정부 또는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 제4장 30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2-6>과 같다.

표 3-2-6 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의 출산·육아 관련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생육 조절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시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수 있다. 1) 부양하고 있는 두 자녀 중 정상적인 노동력이 될 수 없는 장애자녀가 있는 경우 2) 재혼 부부가 재혼 전에 한 쪽이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고 다른 한 쪽이 자녀가 없는 경우나 양쪽이 각각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3) 재혼 부부가 재혼 전에 한 쪽이 자녀 한 명 있고 다른 한 쪽이 자녀가 없지만 재혼 후 자녀 한 명을 낳은 경우 4) 호적 소재지 및 거주지가 국경 근처 현(시, 지역)인 부부가 자녀 두 명이 있는 경우. 5) 상황이 특별하여 다시 출산을 해야 하는 경우

13)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 길림성의 9개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임.

표 3-2-6 계속

구분	세부 내용
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결혼하고 출산하는 부부에게 아래 규정에 따라 장려한다. 1) 법에 의거하여 결혼 신고하는 근로자는 결혼 휴가 15일 2) 여성 근로자는 출산 증명서를 첨부하면 출산 휴가 60일을 더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그 배우자는 출산 동반 휴가 15일 3) 자녀가 만 16세 되기 전에 유아원을 입원하거나 학교 입학할 때, 병원 진료를 받는 데에 드는 비용은 부모 소속 근무지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지원 4) 근로자가 결혼 휴가, 출산 휴가, 출산 동반 휴가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취급하고 급여와 상여금을 원래대로 지급하고, 다른 혜택도 똑같이 유지 - 여성 근로자가 신청해서 소속 근무지의 허락을 받으면 출산 휴가를 1년까지 연장 가능- 연장된 기간 동안 급여는 원래 금액의 75%로 지급 - 급여 조정, 진급, 연속 연수에 영향을 주지 않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 및 계획적 출산·양육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혼전 보건 제도, 임신 전 보건 제도, 임신기간 보건 제도 수립 - 출산 의사가 있고 본 조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생식 보건 서비스와 위생건강 서비스 제공 - 계획적 출산양육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홍보 교육, 임신 여부 확인 검사, 수행방문 서비스를 제공 - 계획적 출산양육을 실천하는 국민이 안전적이고 효과적인 피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지도

자료: 길림성 인구 및 가족계획 http://www.jlrd.gov.cn/dfxfg/201604/t20160407_2192128.html에서 2017. 6. 18 인출하여 정리함.

연변 지역의 경우, 혼인 신고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결혼휴가가 규정되어 있으며, 두자녀 허용 정책 도입 후 출산휴가가 60일 더 증가하였다. 또한 소속 근무지의 허락을 받아 출산휴가를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연장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기존 급여의 75%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연변조선족자치주 인구 및 계획생육에 관한 규정

부부 양쪽의 호적을 전부 자치주행정지역에 두고 있는 경우 「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에서 규정한 재출산 정책 외에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시 허가를 받으면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수 있다.

표 3-2-7 연변조선족 자치주 인구 및 계획생육에 관한 규정

- 1) 부부 한 쪽이 외자녀이고 자녀 한 명밖에 없는 경우
- 2) 부부 한 쪽이 소수민족이고 자녀 한 명밖에 없는 경우
- 3) 부부 양쪽이 다 인구가 1,000만 명 미만인 소수민족이고 부양하고 있는 두 자녀 중 한 명이 비유전성 질환으로 정상적인 노동력이 될 수 없는 경우
- 4) 부부 양쪽이 다 인구가 1,000만 명 미만인 소수민족이고 농촌 호적에다가 두 자녀가 있는 경우
- 5) 부부 한 쪽이 국경 지역의 농촌 호적이고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 경우
- 6) 재혼 부부가 재혼 전에 각자 자녀 한 명씩 있는 경우

자료: 길림성 연립시 위생 및 계획생육국 사이트 <http://wsj.yanji.gov.cn/news/deteil/5/24/66>에서 2017. 6. 8 발췌하여 정리함.

3) 길림성 출산 휴가 최신 규정

「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수정안)」 규정에 따르면, 법에 근거하여 <표 3-2-8>와 같이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수정된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휴가 일수인 98일에 추가로 60일을 이용할 수 있어 출산휴가 일수는 총 158일로 증가하였다.

표 3-2-8 길림성 출산 휴가 관련 최신 규정

- 법에 의거하여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15일 동안 쉴 수 있다.
-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출산한 부부는 출산 휴가를 60일 더 받을 수 있어 국가가 정한 98일 출산 휴가를 더하면 총 158일을 쉴 수 있다.
- 동시에 출산 여성의 배우자가 출산 동반 휴가 15일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 2017년 전국 출산 휴가에 대한 최신 규정 <http://www.yjbys.com/wage/249245.html>에서 2017. 6. 15 인출하여 정리함.

다. 출산·육아 정책

1) 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정책¹⁴⁾: 두자녀 출산과 재출산

「길림성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도시, 지역, 민족과 관계없이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재출

14) 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 실시에 대한 해석 <http://rsj.mhk.gov.cn/Article/ShowArticle.asp?ArticleID=644>에서 2017. 6. 15 발췌하여 정리함.

산이 허용된다. 재출산이란 부부가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법 제29조 제2항 4번 내용 중 '호적 소재지 및 거주지가 국경 근처 현(시, 지역)'이란 외국 영토와 인접한 현(시, 지역)을 의미한다. 통화시의 집안시, 백산시의 훈강구, 임강시, 무송현, 장백조선족 자치현,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훈춘시, 용정시, 안도현, 투먼시, 용시, 장백산보호 개발지역의 지북구, 지서구, 지남구 등 총 13개 현(시,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부부 한 쪽의 호적이 이 13개 현(시, 지역)에 있고 동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셋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 또한 불임 부부가 두 명이나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입양한 후 의학적 수단으로 다시 출산하고자 하는 경우, 두 자녀가 다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두 자녀를 출산했지만 제대혈 치료 목적으로 다시 출산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 따라 재출산을 허용하고 있다.

2) 연변조선자치주 조선족 자녀보조금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조선족 가정이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둘째아를 출산하는 것을 독려하고 둘째아를 출산한 조선족 가정에게 출산육아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둘째아가 태어난 월부터 매월 1,000위안(한화 약 17만 원)을 지급하고 총 50개월 동안 5만 위안(한화 약 750만 원)을 지급한다. 둘째아가 다둥이인 경우 모든 자녀가 둘째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는다(新文化网, 2012. 12. 26, <http://news.xwh.cn/news/system>에서 2017. 7. 14 인출). 그러나 동 정책에 대해서는 연변 지역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계획만 수립되었을 뿐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관련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북경 지역은 도시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아 농촌 인구의 약 6.4배이며, 유아 및 청소년 인구에 비해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2015년 기준, 1인당 GDP는 106,497위안이다. 북경은 전면적 두자녀 정책 허용 정책 도입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법」을 근거로 시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구 수, 인구 분포를 조절·통제하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한 한편,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절하는 조항 역시 포함하고 있어 여전히 제한적 의미의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북경의 인구계획 및 관리 조항에는 관련 부처별 계획, 관리 등을 분담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에 대한 기초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도입 이후, 북경시 출산 휴가에 관한 규정은 만육(늦은 출산) 휴가를 취소했고, 출산 장려 휴가를 확대했다는 것이 정책 도입 전과의 큰 차이점이다. 최신 규정에 의하면 여성 근로자가 국가에서 정한 98일 출산휴가 외에 30일 동안의 출산 장려 휴가를 누릴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 동반 휴가 15일을 이용할 수 있다. 동 정책 시행에 따라 2017년 북경시 상주인구 인구 출생률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측이 모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변 지역이 속해 있는 길림성의 도시인구 비율은 약 55%로 최근 도시 인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연변은 60세 이상의 노년 인구 비율이 약

20%로 길림성 전체 비율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다. 길림성의 1인당 GDP는 2015년 5만 1,086위안으로 1980년 대비 약 115배 증가 하였으나 북경의 약 1/2에 불과하다. 연변 지역의 경우, 결혼 신고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결혼휴가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두자녀 허용 정책 도입 후 출산휴가가 60일 더 확대되었다. 이는 북경보다 30일 더 많은 것으로 기존의 휴가 일수인 98일에 추가로 60일을 더 이용할 수 있어 출산휴가 일수는 총 158일로 증가하였다. 또한 소속 근무지의 허락을 받아 출산휴가를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길림성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도시, 지역, 민족과 관계없이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재출산이 허용된다. 재출산이란 부부가 세 명이나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훈춘시, 용정시, 안도현, 투먼시, 용시, 장백산보호개발지역의 지북구, 지서구, 지남구 등 총 13개 현(시,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북경과는 달리 연변은 자치주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재정 여건의 미비가 정책 가동의 실질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제4장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3.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4. 소결



본 장에서는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관련 정책 요구 등을 조사(설문조사와 심층면담)하여 제시하고, 지역별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가. 출산 및 출산계획

1) 출산·육아휴직

북경 지역 영유아 부모의 출산휴가 이용 여부¹⁵⁾를 살펴보면, 출산휴가를 이용한 경우가 98.7%, 없는 경우가 1.3%로 나타났다. 모의 직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출산휴가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무직, 자영업자, 임신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미이용 비율이 각각 16.7%, 11.4%, 8.3%로 나타나 직군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모든 소득 분위에서 출산휴가를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휴가를 이용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chi^2(df)=11.767(3), p < .01$).

15) 최근 정책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어린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한 결과임.

표 4-1-1 출산휴가 이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수
전체	98.7	1.3	100.0	600
모 직업				
고용주	100.0	0.0	100.0	4
자영업자	88.6	11.4	100.0	35
상용근로자	99.8	.2	100.0	524
임시근로자	91.7	8.3	100.0	24
일용근로자	100.0	0.0	100.0	4
무급종사자	100.0	0.0	100.0	3
무직	83.3	16.7	100.0	6
$\chi^2(df)$		na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93.2	6.8	100.0	44
10,000~20,000위안 미만	98.7	1.3	100.0	317
20,000~30,000위안 미만	99.4	.6	100.0	155
30,000위안 이상	100.0	0.0	100.0	84
$\chi^2(df)$		11.767(3)**		

주: na는 통계검정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 $p < .01$

출산휴가의 산전 이용일은 4~5주 미만일 경우가 46.8%로 가장 높았고, 평균 26.62일로 나타났다.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군의 모가 산전 출산휴가를 4주 이상 사용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가구 소득별로는 모든 소득 분위에서 4~5주 미만 산전 출산휴가를 사용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1-2 출산휴가 이용일(산전)

(단위: %, 명, 일)

구분	1주 미만	1~2주 미만	2~3주 미만	3~4주 미만	4~5주 미만	5주 이상	계	수	평균	t/F
전체	2.5	2.7	20.3	12.8	46.8	14.9	100.0	592	26.62	
모 직업										-
고용주	0.0	0.0	0.0	0.0	50.0	50.0	100.0	4	33.50	
자영업자	3.2	0.0	19.4	12.9	35.5	29.0	100.0	31	28.00	
상용근로자	2.7	2.9	21.0	12.4	48.2	12.8	100.0	523	26.35	
임시근로자	0.0	4.5	4.5	22.7	36.4	31.8	100.0	22	29.50	
일용근로자	0.0	0.0	25.0	0.0	25.0	50.0	100.0	4	30.00	
무급종사자	0.0	0.0	33.3	66.7	0.0	0.0	100.0	3	23.33	
무직	0.0	0.0	20.0	0.0	60.0	20.0	100.0	5	28.00	
가구 소득										1,319
5,000~10,000위안 미만	4.9	2.4	22.0	4.9	58.5	7.3	100.0	41	25.51	
10,000~20,000위안 미만	3.2	2.6	21.1	16.0	42.2	15.0	100.0	313	26.35	
20,000~30,000위안 미만	1.3	2.6	21.4	9.7	51.9	13.0	100.0	154	26.73	
30,000위안 이상	1.2	3.6	14.3	10.7	48.8	21.4	100.0	84	27.98	

출산휴가 산후 이용일은 90~100일 미만인 경우가 43.9%로 가장 높았고, 평균 98.53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북경 지역의 출산휴가일 98일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모든 직업군의 모가 산후 출산휴가를 90일 이상 사용한 비율이 80% 이상이었으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 분위에서 산후 출산휴가를 평균 90일 이상 사용하였으며, 5,000~10,000위안 미만의 가정은 120일 이상 사용한 비율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4-1-3 출산휴가 이용일(산후)

(단위: %, 명, 일)

구분	90일 미만	90~100일 미만	100~120일 미만	120일 이상	계	수	평균	t/F
전체	16.4	43.9	18.8	20.9	100.0	592	98.53	
모 직업								-
고용주	0.0	75.0	25.0	0.0	100.0	4	94.00	
자영업자	12.9	48.4	9.7	29.0	100.0	31	101.81	
상용근로자	17.4	44.6	17.6	20.5	100.0	523	98.07	
임시근로자	9.1	13.6	50.0	27.3	100.0	22	103.86	
일용근로자	0.0	50.0	50.0	0.0	100.0	4	100.75	
무급종사자	0.0	33.3	33.3	33.3	100.0	3	110.00	
무직	0.0	60.0	20.0	20.0	100.0	5	98.00	
자녀 연령								3.219**
0세	15.0	24.0	27.0	34.0	100.0	100	103.20	
1세	17.2	53.5	15.2	14.1	100.0	99	95.23	
2세	18.4	42.9	18.4	20.4	100.0	98	98.37	
3세	18.6	54.6	8.2	18.6	100.0	97	96.30	
4세	10.1	51.5	24.2	14.1	100.0	99	97.79	
5세	19.2	37.4	19.2	24.2	100.0	99	100.19	
가구 소득								8.549***
5,000~10,000위안 미만	2.4	22.0	19.5	56.1	100.0	41	110.10	
10,000~20,000위안 미만	13.7	52.7	18.2	15.3	100.0	313	96.90	
20,000~30,000위안 미만	21.4	37.0	19.5	22.1	100.0	154	98.38	
30,000위안 이상	23.8	34.5	19.0	22.6	100.0	84	99.24	

** $p < .01$, *** $p < .001$

산전휴가를 포함한 출산휴가 총 이용일을 살펴보면, 120~130일인 경우가 31.6%로 가장 높았고, 평균 125.15일로 나타났다. 모든 직업군의 모가 전체 출산휴가를 110~140일간 사용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가구소득별로는($F=8.039$, $p < .001$) 5,000~10,000위안 미만의 가정을 제외한 모든 소득 분위에서 전체 출산휴가를 110~140일간 사용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표 4-1-4 출산휴가 이용일(전체)

(단위: %, 명, 일)

구분	110일 미만	110~120일	120~130일	130~140일	140~149일	150일 이상	계	수	평균	t/F
전체	14.7	17.9	31.6	13.9	7.6	14.4	100.0	592	125.15	
모 직업										-
고용주	0.0	0.0	50.0	50.0	0.0	0.0	100.0	4	127.50	
자영업자	3.2	19.4	32.3	12.9	12.9	19.4	100.0	31	129.81	
상용근로자	15.9	18.5	31.9	12.8	7.3	13.6	100.0	523	124.41	
임시근로자	9.1	9.1	13.6	31.8	13.6	22.7	100.0	22	133.36	
일용근로자	0.0	0.0	75.0	0.0	0.0	25.0	100.0	4	130.75	
무급종사자	0.0	33.3	0.0	33.3	0.0	33.3	100.0	3	133.33	
무직	20.0	0.0	40.0	20.0	0.0	20.0	100.0	5	126.00	
가구 소득										8.039***
5,000~10,000위안 미만	9.8	9.8	14.6	14.6	4.9	46.3	100.0	41	135.61	
10,000~20,000위안 미만	14.4	23.0	32.9	12.8	7.0	9.9	100.0	313	123.25	
20,000~30,000위안 미만	16.2	14.9	31.2	16.2	8.4	13.0	100.0	154	125.10	
30,000위안 이상	15.5	8.3	35.7	13.1	9.5	17.9	100.0	84	127.21	

***p < .001

북경 지역에서 출산휴가는 100% 유급으로 최대 7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아버지의 경우 15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직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활용 가능하며, 이를 배우자가 이양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저는 직장생활을 계속해서 발전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제 아이가 방금 태어났기 때문에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정부도 저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출산휴가를) 안 사용하겠어요(심층면담, 2017. 7월)

한편 출산휴가 기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다소 불충분

하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충분하다는 응답은 3.0%로 가장 낮았다. 가구소득별로는 ‘20,000~30,000위안 미만’을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불충분(매우+다소)하다는 응답이 대체로 50% 이상으로 나타나 출산휴가 기간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F=2.777, p < .05$).

표 4-1-5 출산휴가 기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①매우 불충분	②다소 불충분	③보통	④충분한 편	⑤매우 충분	①+②	③	④+⑤	계	수	평균	t/F
전체	10.8	44.4	26.5	15.2	3.0	55.2	26.5	18.2	100.0	592	2.55	
모 직업	-											
고용주	25.0	25.0	25.0	0.0	25.0	50.0	25.0	25.0	100.0	4	2.75	
자영업자	3.2	51.6	16.1	16.1	12.9	54.8	16.1	29.0	100.0	31	2.84	
상용근로자	11.1	43.8	27.5	15.7	1.9	54.9	27.5	17.6	100.0	523	2.54	
임시근로자	4.5	59.1	22.7	4.5	9.1	63.6	22.7	13.6	100.0	22	2.55	
일용근로자	25.0	75.0	0.0	0.0	0.0	100.0	0.0	0.0	100.0	4	1.75	
무급종사자	33.3	33.3	0.0	0.0	33.3	66.7	0.0	33.3	100.0	3	2.67	
무직	20.0	0.0	40.0	40.0	0.0	20.0	40.0	40.0	100.0	5	3.00	
$\chi^2(df)$	na											
가구 소득	2.777*											
5,000~10,000위안 미만	0.0	53.7	31.7	12.2	2.4	53.7	31.7	14.6	100.0	41	2.63	
10,000~20,000위안 미만	14.4	42.5	26.8	13.4	2.9	56.9	26.8	16.3	100.0	313	2.48	
20,000~30,000위안 미만	7.1	41.6	26.6	20.1	4.5	48.7	26.6	24.7	100.0	154	2.73	
30,000위안 이상	9.5	52.4	22.6	14.3	1.2	61.9	22.6	15.5	100.0	84	2.45	
$\chi^2(df)$	19.176(12)											

* $p < .05$

주: na는 통계검정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적절한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요구를 살펴본 결과, 150~180일이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154.2일로 나타나 현재 출산휴가 일수 평균 125.15일보다 약 30일 정도의 휴가를 더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적절한 출산휴가 기간

(단위: %, 명, 일)

구분	120일 미만	120~150일	150~180일	180일 이상	계	수	평균	t/F
전체	10.3	28.2	34.5	27.0	100.0	600	154.20	
모 직업								-
고용주	25.0	25.0	0.0	50.0	100.0	4	152.00	
자영업자	14.3	42.9	14.3	28.6	100.0	35	143.63	
상용근로자	9.5	26.7	35.9	27.9	100.0	524	155.40	
임시근로자	16.7	37.5	33.3	12.5	100.0	24	143.54	
일용근로자	0.0	50.0	25.0	25.0	100.0	4	197.50	
무급종사자	0.0	0.0	100.0	0.0	100.0	3	156.67	
무직	33.3	33.3	33.3	0.0	100.0	6	125.50	
가구 소득								1.952
5,000~10,000위안 미만	2.3	20.5	34.1	43.2	100.0	44	162.91	
10,000~20,000위안 미만	8.5	28.4	36.6	26.5	100.0	317	155.62	
20,000~30,000위안 미만	17.4	30.3	29.7	22.6	100.0	155	147.83	
30,000위안 이상	8.3	27.4	35.7	28.6	100.0	84	156.04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자녀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의 최소 기간은 1년~1년 6개월 정도로 인식하였다. 이는 수유기간과 아이가 걸을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해서이다.

(아버지) 이 시기에 아이들의 발달을 지켜보고 함께할 필요가 있기 때 문이에요. 이 시기의 발육과정이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 실적으로 본다면 수유하는 기간까지일 거예요. 모유를 수유하는 엄마 는 아주 힘드니까요. ...중략... 그래서 수유기간이 1살 정도에 끝나니까 1년 정도 휴가가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심층면담, 2017. 7월).

(어머니) 1년 받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1살 때 아이는 아직 걸을 수 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1살 반이 되면 걸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 육 아휴직을 한다면 저희가 일할 때 더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심층면담, 2017. 7월).

한편 배우자의 출산동반휴가 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76.2%가 배우자의 출산동반휴가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부가 부재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부의 직업군에서 출산휴가를 이용하는 비율이 이용하지 않는 비율보다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배우자의 출산동반휴가를 이용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30,000위안 이상인 가정이 84.5%로 가장 높았고, 5,000~10,000위안 미만의 가정이 70.5%로 가장 낮았다.

표 4-1-7 배우자(남편) 출산동반휴가 이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수
전체	76.2	23.8	100.0	600
부 직업				
고용주	80.0	20.0	100.0	20
자영업자	71.9	28.1	100.0	57
상용근로자	76.6	23.4	100.0	517
임시근로자	100.0	0.0	100.0	2
일용근로자	66.7	33.3	100.0	3
부재	0.0	100.0	100.0	1
$\chi^2(df)$			na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70.5	29.5	100.0	44
10,000~20,000위안 미만	74.4	25.6	100.0	317
20,000~30,000위안 미만	76.8	23.2	100.0	155
30,000위안 이상	84.5	15.5	100.0	84
$\chi^2(df)$			4.570(3)	

주: na는 통계검정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2)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를 도와준 사람(기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산후도우미 또는 베이비시터를 이용한 경우가 전체의 56.7%로 가장 높았고, 시부모의 도

움을 받은 경우도 43.8%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모와 미취업모 모두 산후도우미 또는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주변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0.7%에 불과한 취업모와 달리 미취업모는 11.1%에 달했다. 가구소득별로는 시부모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응답한 5,000~10,000위안 미만의 가정을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산후도우미 또는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후 산후조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산후도우미(베이비시터)와 시부모의 비중이 높았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시부모보다 산후도우미(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4-1-8 산후조리 도와준 사람 또는 기관(중복응답)

구분	산후도우미/베이비시터					수
	시부모	친정부모	산후조리원	주변 도움 없이 부부가 함께 함		
전체	56.7	43.8	29.2	5.8	0.8	600
모 취업 여부						
취업	56.5	44.2	29.4	5.9	0.7	591
미취업	66.7	22.2	11.1	0.0	11.1	9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34.1	45.5	29.5	2.3	4.5	44
10,000~20,000위안 미만	56.5	45.4	26.2	6.6	0.9	317
20,000~30,000위안 미만	58.7	45.2	36.1	5.8	0.0	155
30,000위안 이상	65.5	34.5	27.4	4.8	0.0	84

산후도우미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을 살펴보면, 30~39일간 이용한 경우가 전체의 40.7%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38.95일로 나타났다. 취업모와 미취업모 모두 30~39일간 이용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미취업모의 경우 50일 이상 이용한 경우도 33.3%로 높은 반면, 취업모의 경우 30일 미만 이용한 경우도 10.2%나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가구소득별로

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30~39일 동안 이용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F=3.661$, $p < .05$).

표 4-1-9 산후도우미 및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단위: %, 명, 일)

구분	30일 미만	30~39일	40~49일	50일 이상	계	수	평균	t/F
전체	10.0	40.7	24.6	24.6	100.0	349	38.95	
모 취업 여부								-
취업	10.2	40.5	24.8	24.5	100.0	343	38.95	
미취업	0.0	50.0	16.7	33.3	100.0	6	39.17	
가구 소득								3.661*
5,000~10,000위안 미만	0.0	60.0	13.3	26.7	100.0	15	37.00	
10,000~20,000위안 미만	7.0	39.5	23.8	29.7	100.0	185	40.90	
20,000~30,000위안 미만	18.1	40.4	19.1	22.3	100.0	94	36.39	
30,000위안 이상	9.1	40.0	40.0	10.9	100.0	55	37.31	

* $p < .05$

산후도우미 및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살펴보면, 산후도우미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이 10,000~15,000위안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30.4%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11,214위안으로 나타났다.

표 4-1-10 산후도우미(베이비시터) 이용 비용

(단위: %, 명, 위안)

구분	8,000 위안 미만	8,000~9,000 위안 미만	9,000~10,000 위안 미만	10,000~15,000 위안 미만	15,000 위안 이상	계	수	평균	t/F
전체	9.7	23.8	14.6	30.4	21.5	100.0	349	11,213.54	
모 취업 여부									-
취업	9.9	23.9	14.3	30.3	21.6	100.0	343	11,201.24	
미취업	0.0	16.7	33.3	33.3	16.7	100.0	6	11,916.67	
가구 소득									.174
5,000~10,000위안 미만	0.0	33.3	13.3	26.7	26.7	100.0	15	11,233.33	
10,000~20,000위안 미만	10.8	24.3	17.3	24.3	23.2	100.0	185	11,301.34	
20,000~30,000위안 미만	11.7	22.3	9.6	40.4	16.0	100.0	94	10,958.94	
30,000위안 이상	5.5	21.8	14.5	34.5	23.6	100.0	55	11,347.96	

3) 추가 출산계획

추가 출산계획 여부를 살펴본 결과,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55.0%로 가장 높았으며, 생각 중이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8%로 그 뒤를 이었다. 향후 출산 자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21.2%로 나타났으나 현재 2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고작 9.0%였다.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 분위에서 추가 자녀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추가 자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chi^2(df)=22.825(6)$, $p < .001$).

표 4-1-11 향후 추가 출산 계획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생각 중/ 잘 모르겠음	계	수
전체	21.2	55.0	23.8	100.0	600
자녀 수					
1명	27.6	42.1	30.3	100.0	592
2명	9.0	77.6	13.5	100.0	8
3명	100.0	0	0	100.0	4
$\chi^2(df)$			-		
모 취업 여부					
취업	21.3	55.2	23.5	100.0	591
미취업	11.1	44.4	44.4	100.0	9
$\chi^2(df)$			-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9.1	65.9	25.0	100.0	44
10,000~20,000위안 미만	16.7	57.7	25.6	100.0	317
20,000~30,000위안 미만	26.5	47.7	25.8	100.0	155
30,000위안 이상	34.5	52.4	13.1	100.0	84
$\chi^2(df)$			22.825(6)***		

*** $p < .001$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희망 자녀 수는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9%로 가장 높았으며, 2명이라는 응답은 11%로 나타나 평균 1명의 자녀를 더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12 추가 출산시 희망 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1명	2명	계	수	평균	t/F
전체	89.0	11.0	100.0	127	1.11	
모 취업 여부						.351
취업	88.9	11.1	100.0	126	1.11	
미취업	100.0	0.0	100.0	1	1.00	
가구 소득						2.066
5,000~10,000위안 미만	100.0	0.0	100.0	4	1.00	
10,000~20,000위안 미만	81.1	18.9	100.0	53	1.19	
20,000~30,000위안 미만	92.7	7.3	100.0	41	1.07	
30,000위안 이상	96.6	3.4	100.0	29	1.03	

추가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에 선호 성별을 살펴본 결과, 전체의 58.3%가 선호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아라는 응답이 27.6%, 남아라는 응답은 14.2%로 나타났다.

표 4-1-13 추가 출산시 선호 성별

(단위: %, 명)					
구분	남아	여아	선호 없음	계	수
전체	14.2	27.6	58.3	100.0	127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0.0	100.0	0.0	100.0	4
10,000~20,000위안 미만	17.0	32.1	50.9	100.0	53
20,000~30,000위안 미만	9.8	17.1	73.2	100.0	41
30,000위안 이상	17.2	24.1	58.6	100.0	29

추가 출산 미계획 이유를 살펴보면, 직장 생활로 바빠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28.0%로 가장 높았으며, 양육 비용의 부담이 25.6%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2.1%로 가장 낮았다. 가구소득별로는 5,000~10,000위안 미만의 가정과 20,000~30,000위안 미만은 직장생활로 바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10,000~20,000위안 미만의 가정은 양육 비용 부담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반면 30,000위안 이상의 가정은 현재 자녀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추가 출산계획이 없는 집단특성별 이유가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chi^2(df)=41.126(21), p < .01$).

표 4-1-14 추가 출산 미계획 이유

(단위: %, 명)

구분	양육 비용 부담 때문에	교육비 부담 때문에	직장 생활로 바빠서	건강이 안 좋아서 ¹⁾	현재 자녀로 충분 해서	부모 나이가 많아서	개인 시간 ²⁾ 이 필요 해서	자녀를 돌봐줄 사람 ³⁾ 이 없어서	계	수
전체	25.6	14.4	28.0	2.8	15.7	4.0	7.4	2.1	100.0	472
자녀 수										
1명	25.4	14.2	28.4	2.8	15.3	4.1	7.5	2.2	100.0	464
2명	37.5	25.0	0.0	0.0	37.5	0.0	0.0	0.0	100.0	8
$\chi^2(df)$					-					
모 취업 여부										
취업	25.6	14.7	27.6	2.6	15.7	4.1	7.5	2.2	100.0	464
미취업	25.0	0.0	50.0	12.5	12.5	0.0	0.0	0.0	100.0	8
$\chi^2(df)$					-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17.5	15.0	25.0	2.5	12.5	2.5	20.0	5.0	100.0	40
10,000~20,000위안 미만	32.2	14.4	26.1	2.3	13.3	4.2	7.2	.4	100.0	264
20,000~30,000위안 미만	16.8	13.3	34.5	3.5	16.8	5.3	6.2	3.5	100.0	113
30,000위안 이상	18.2	16.4	25.5	3.6	27.3	1.8	1.8	5.5	100.0	55
$\chi^2(df)$					41.126(21)**					

주: 1) 불임, 질병 등 2) 자기계발, 여가 등 3) 조부모 및 친인척 등

** $p < .01$

북경에서 면담한 영유아 부모들도 둘째 자녀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자녀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① 맞벌이 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돌보아야 하는 부담, ② 어머니 연령이 많으므로 출산에 따른 건강문제에 대한 우려, ③ 한 자녀에 온전히 집중하여 더 잘 돌보고 교육하고자 하는 부모의 의지 및 ④ 3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기관에 보내는 것에 대한 부모의 불안 등이 언급되었다.

한편 추가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바람직한 자녀의 수에 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2명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2.5%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1.8명으로, 약 2명의 자녀라고 응답하였다. 자녀의 수, 모의 취업여부, 가구 소득에 따른 경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15 바람직한 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계	수	평균·명	t/F
전체	24.1	72.5	2.8	0.6	100.0	527	1.80	
자녀 수								-
1명	24.3	72.3	2.9	0.6	100.0	519	1.80	
2명	12.5	87.5	0.0	0.0	100.0	8	1.88	
모 취업 여부								-
취업	23.9	72.6	2.9	0.6	100.0	519	1.80	
미취업	37.5	62.5	0.0	0.0	100.0	8	1.63	
가구 소득								2.190
5,000~10,000위안 미만	34.1	63.6	2.3	0.0	100.0	44	1.68	
10,000~20,000위안 미만	21.3	75.3	2.7	0.7	100.0	291	1.83	
20,000~30,000위안 미만	28.8	69.6	.8	0.8	100.0	125	1.74	
30,000위안 이상	20.9	71.6	7.5	0.0	100.0	67	1.87	1

추가 출산 계획시 두 자녀 전면 허용정책의 영향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9.2%로 가장 높았으

며, 영향을 받았다(어느 정도+매우)고 응답한 비율이 39.7%에 달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나타나 정부의 두 자녀 허용 정책이 추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16 추가 출산 계획시 두 자녀 전면 허용정책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① 전혀 영향 없음	② 별로 영향 없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영향 받음	⑤ 매우 영향 받음	①+②	③	④+⑤	계	수	평균	t/F
전체	11.8	28.5	20.1	29.2	10.4	40.2	20.1	39.7	100.0	527	2.98	
자녀 수												-
1명	11.4	28.5	19.8	29.7	10.6	39.9	19.8	40.3	100.0	519	3.00	
2명	37.5	25.0	37.5	0.0	0.0	62.5	37.5	0.0	100.0	8	2.00	
$\chi^2(df)$						-						
모 취업 여부												-
취업	11.8	28.1	20.4	29.1	10.6	39.9	20.4	39.7	100.0	519	2.99	
미취업	12.5	50.0	0.0	37.5	0.0	62.5	0.0	37.5	100.0	8	2.63	
$\chi^2(df)$						-						
가구 소득												1.494
5,000~10,000위안 미만	18.2	27.3	25.0	22.7	6.8	45.5	25.0	29.5	100.0	44	2.73	
10,000~20,000위안 미만	11.3	28.5	23.0	26.5	10.7	39.9	23.0	37.1	100.0	291	2.97	
20,000~30,000위안 미만	9.6	25.6	16.8	36.8	11.2	35.2	16.8	48.0	100.0	125	3.14	
30,000위안 이상	13.4	34.3	10.4	31.3	10.4	47.8	10.4	41.8	100.0	67	2.91	
$\chi^2(df)$						13.564(12)						

4) 임신 및 출산 정책

출산휴가에 대한 정부지원 인지 및 이용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의 99.6%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도 98.9%에 달했다.

표 4-1-17 정부 지원 인지 및 이용 여부(출산휴가)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이용 유무			
	알고 있음	모름	계	수	지원 받음	지원받지 않음	계	수
전체	99.6	.4	100.0	527	98.9	1.1	100.0	525
모 취업 여부								
취업	99.6	.4	100.0	519	99.0	1.0	100.0	517
미취업	100.0	0.0	100.0	8	87.5	12.5	100.0	8
$\chi^2(df)$			-				-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97.7	2.3	100.0	44	95.3	4.7	100.0	43
10,000~20,000위안 미만	100.0	0.0	100.0	291	98.6	1.4	100.0	291
20,000~30,000위안 미만	99.2	.8	100.0	125	100.0	0.0	100.0	124
30,000위안 이상	100.0	0.0	100.0	67	100.0	0.0	100.0	67
$\chi^2(df)$			6.120(3)				7.031(3)	

출산휴가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0.7%로 높게 나타났다. 모의 취업 유무에 따른 출산휴가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구소득별로는 20,000~30,000위안 미만의 가정이 가장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고, 10,000~20,000위안 미만의 가정이 가장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chi^2(df)=23.504(12), p < .05$).

표 4-1-18 정부 지원 만족도(출산휴가)

(단위: %, 명,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③	④+⑤	계	수	평균	t/F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체	2.5	8.3	18.5	39.5	31.2	10.8	18.5	70.7	100.0	519	3.89	
모 취업 여부												
취업	2.5	8.4	18.4	39.3	31.4	10.9	18.4	70.7	100.0	512	3.89	
미취업	0.0	0.0	28.6	57.1	14.3	0.0	28.6	71.4	100.0	7	3.86	
$\chi^2(df)$								-				

표 4-1-18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③	④+⑤	계	수	평균	t/F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가구 소득												3.655*
5,000~10,000위안 미만	0.0	9.8	17.1	41.5	31.7	9.8	17.1	73.2	100.0	41	3.95	
10,000~20,000위안 미만	3.8	10.8	18.1	37.6	29.6	14.6	18.1	67.2	100.0	287	3.78	
20,000~30,000위안 미만	.8	4.8	15.3	37.9	41.1	5.6	15.3	79.0	100.0	124	4.14	
30,000위안 이상	1.5	3.0	26.9	49.3	19.4	4.5	26.9	68.7	100.0	67	3.82	
$\chi^2(df)$						23.504(12)*						

*p < .05

출산보조금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의 99.4%는 출산보조금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비율도 전체의 99.2%로 매우 높았다. 5,000~10,000위안 미만의 가정보다는 10,000위안 이상의 가정이, 10,000~30,000위안 미만의 가정보다는 30,000위안 이상의 가정이 출산보조금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chi^2(df)=9.762(3)$, $p < .05$).

표 4-1-19 정부 지원 인지 및 이용 여부(출산보조금)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이용 유무			
	알고 있음	모름	계	수	지원 받음	지원받지 않음	계	수
전체	99.4	.6	100.0	527	99.2	.8	100.0	524
모 취업 여부								
취업	99.6	.4	100.0	519	99.2	.8	100.0	517
미취업	87.5	12.5	100.0	8	100.0	0.0	100.0	7
$\chi^2(df)$					-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97.7	2.3	100.0	44	95.3	4.7	100.0	43
10,000~20,000위안 미만	99.3	.7	100.0	291	99.7	.3	100.0	289
20,000~30,000위안 미만	100.0	0.0	100.0	125	99.2	.8	100.0	125
30,000위안 이상	100.0	0.0	100.0	67	100.0	0.0	100.0	67
$\chi^2(df)$	3.427(3)				9.762(3)*			

*p < .05

출산보조금 정책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매우+약간)는 응답이 전체의 71.9%로 높았으며,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20 정부 지원 만족도(출산보조금)

(단위: %, 명,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계	수	평균	t/F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체	.8	6.3	21.0	41.0	31.0	7.1	71.9	100.0	520	3.95	
모 취업 여부											-
취업	.8	6.2	20.9	40.7	31.4	7.0	72.1	100.0	513	3.96	
미취업	0.0	14.3	28.6	57.1	0.0	14.3	57.1	100.0	7	3.43	
$\chi^2(df)$						-					
가구 소득											1.059
5,000~10,000위안 미만	0.0	14.6	26.8	29.3	29.3	14.6	58.5	100.0	41	3.73	
10,000~20,000위안 미만	1.4	4.2	21.9	43.8	28.8	5.6	72.6	100.0	288	3.94	
20,000~30,000위안 미만	0.0	8.1	16.9	39.5	35.5	8.1	75.0	100.0	124	4.02	
30,000위안 이상	0.0	7.5	20.9	38.8	32.8	7.5	71.6	100.0	67	3.97	
$\chi^2(df)$											15.686(12)

모자보건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의 99.4%는 모자보건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비율도 전체의 99.8%로 매우 높았다. 가구 소득에 따른 모자보건서비스의 인지 및 이용 여부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4-1-21 정부 지원 인지 및 이용 여부(모자보건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이용 유무			
	알고 있음	모름	계	수	지원 받음	지원받지 않음	계	수
전체	99.4	.6	100.0	527	99.8	.2	100.0	524
모 취업 여부								
취업	99.4	.6	100.0	519	99.8	.2	100.0	516
미취업	100.0	0.0	100.0	8	100.0	0.0	100.0	8
$\chi^2(df)$								

표 4-1-21 계속

구분	인지 여부				이용 유무			
	알고 있음	모름	계	수	지원 받음	지원받지 않음	계	수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97.7	2.3	100.0	44	100.0	0.0	100.0	43
10,000~20,000위안 미만	99.7	.3	100.0	291	99.7	.3	100.0	290
20,000~30,000위안 미만	99.2	.8	100.0	125	100.0	0.0	100.0	124
30,000위안 이상	100.0	0.0	100.0	67	100.0	0.0	100.0	67
$\chi^2(df)$			3.019(3)				.808(3)	

모자보건서비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매우+약간)는 응답이 전체의 77.1%로 높았으며,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22 정부 지원 만족도(모자보건서비스)

(단위: %, 명, 점)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①+②	④+⑤	계	수	평균	t/F
전체	.6	3.4	18.9	37.7	39.4	4.0	77.1	100.0	523	4.12	
모 취업 여부											-
취업	.6	3.3	19.2	37.7	39.2	3.9	76.9	100.0	515	4.12	
미취업	0.0	12.5	0.0	37.5	50.0	12.5	87.5	100.0	8	4.25	
$\chi^2(df)$											-
가구 소득											.565
5,000~10,000위안 미만	0.0	4.7	23.3	34.9	37.2	4.7	72.1	100.0	43	4.05	
10,000~20,000위안 미만	1.0	3.1	17.6	39.8	38.4	4.2	78.2	100.0	289	4.11	
20,000~30,000위안 미만	0.0	3.2	20.2	30.6	46.0	3.2	76.6	100.0	124	4.19	
30,000위안 이상	0.0	4.5	19.4	43.3	32.8	4.5	76.1	100.0	67	4.04	
$\chi^2(df)$											8.546(12)

자녀보조금 정부 지원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의 84.3%는 자녀 보조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를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57.2%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여부와 가구 소득에 따른 자녀보조금의 인지 및 이용 여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1-23 정부 지원 인지 및 이용 여부(자녀보조금)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이용 유무			
	알고 있음	모름	계	수	지원 받음	지원받지 않음	계	수
전체	84.3	15.7	100.0	527	57.2	42.8	100.0	444
모 취업 여부								
취업	84.2	15.8	100.0	519	57.4	42.6	100.0	437
미취업	87.5	12.5	100.0	8	42.9	57.1	100.0	7
$\chi^2(df)$		-				-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79.5	20.5	100.0	44	65.7	34.3	100.0	35
10,000~20,000위안 미만	85.6	14.4	100.0	291	58.2	41.8	100.0	249
20,000~30,000위안 미만	84.0	16.0	100.0	125	59.0	41.0	100.0	105
30,000위안 이상	82.1	17.9	100.0	67	43.6	56.4	100.0	55
$\chi^2(df)$		1.356(3)				5.425(3)		

자녀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매우+약간)는 응답이 전체의 66.9%였으며,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24 정부 지원 만족도(자녀보조금)

(단위: %, 명, 점)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①+②	④+⑤	계	수	t/F
전체	2.8	6.3	24.0	38.2	28.7	9.1	66.9	100.0	254	
모 취업 여부										-
취업	2.8	6.4	24.3	37.8	28.7	9.2	66.5	100.0	251	
미취업	0.0	0.0	0.0	66.7	33.3	0.0	100.0	100.0	3	
$\chi^2(df)$					-					
가구 소득										3.310*
5,000~10,000위안 미만	0.0	8.7	17.4	34.8	39.1	8.7	73.9	100.0	23	
10,000~20,000위안 미만	3.4	8.3	27.6	37.9	22.8	11.7	60.7	100.0	145	
20,000~30,000위안 미만	0.0	1.6	19.4	43.5	35.5	1.6	79.0	100.0	62	
30,000위안 이상	8.3	4.2	20.8	29.2	37.5	12.5	66.7	100.0	24	
$\chi^2(df)$					15.941(12)					

*p < .05

출산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의 98.3%가 가입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1.7%에 불과하였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높았다($\chi^2(df)=8.624(3)$, $p < .05$).

표 4-1-25 출산보험 가입 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입함	가입하지 않음	계	수	
전체	98.3	1.7	100.0	527	
모 직업					
고용주	100.0	0.0	100.0	3	
자영업자	87.9	12.1	100.0	33	
상용근로자	99.6	.4	100.0	456	
임시근로자	91.3	8.7	100.0	23	
일용근로자	100.0	0.0	100.0	4	
무급종사자	100.0	0.0	100.0	2	
무직	83.3	16.7	100.0	6	
$\chi^2(df)$			na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93.2	6.8	100.0	44	
10,000~20,000위안 미만	98.3	1.7	100.0	291	
20,000~30,000위안 미만	99.2	.8	100.0	125	
30,000위안 이상	100.0	0.0	100.0	67	
$\chi^2(df)$			8.624(3)*		

* $p < .05$

주: na는 통계검정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출산휴가 사용 시 월급을 보전해주는 정도를 살펴보면, 출산 휴가 전체기간 동안 통상 월급의 100%를 받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58.3%로 가장 높았으며, 출산 휴가 전체기간 동안 통상 월급의 일부를 받는다는 응답이 23.7%로 그 뒤를 이었다. 모의 취업여부, 모의 직업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출산 휴가 전체 혹은 일부기간 동안 통상 월급의 100%를 받는 비율이 높았다($\chi^2(df)=32.572(9)$, $p < .001$).

표 4-1-26 출산 휴가 중 급여 정도

(단위: %, 명)

구분	출산휴가 전체기간 동안 통상 월급의 100%를 받음	출산휴가 일부기간 동안 통상 월급의 100%를 받음	출산휴가 전체기간 동안 통상 월급의 일부를 받음	출산휴가 일부기간 동안 통상 월급의 일부를 받음	계	수
전체	58.3	16.2	23.7	1.7	100.0	518
모 취업 여부						
취업	58.5	16.2	23.5	1.8	100.0	511
미취업	42.9	14.3	42.9	0.0	100.0	7
$\chi^2(df)$			-			
모 직업						
고용주	100.0	0.0	0.0	0.0	100.0	3
자영업자	72.4	10.3	13.8	3.4	100.0	29
상용근로자	56.4	17.0	24.9	1.8	100.0	454
임시근로자	71.4	14.3	14.3	0.0	100.0	21
일용근로자	100.0	0.0	0.0	0.0	100.0	4
무급종사자	50.0	0.0	50.0	0.0	100.0	2
무직	40.0	20.0	40.0	0.0	100.0	5
$\chi^2(df)$			na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51.2	2.4	46.3	0.0	100.0	41
10,000~20,000위안 미만	54.5	19.9	23.8	1.7	100.0	286
20,000~30,000위안 미만	66.9	12.1	21.0	0.0	100.0	124
30,000위안 이상	62.7	16.4	14.9	6.0	100.0	67
$\chi^2(df)$			32.572(9)***			

*** $p < .001$

주: na는 χ^2 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나. 육아 실태

1) 육아 주체 및 육아 시간

평일 주 양육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엄마가 주 양육자인 경우가 전체의 42.2%로 가장 높았으며, 친조부모가 40.5%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아빠라는 응답은 0.8%로 가장 낮았다. 북경 지역 취업모는 대부분 친조

부모의 육아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아는 조부모가, 유아는 엄마가 주 양육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chi^2(df)=17.729(5)$, $p < .01$). 가구 소득이 5,000~10,000위안 미만인 경우, 부모가 주양육자인 비율이 높았다($\chi^2(df)=31.497(15)$, $p < .01$).

표 4-1-27 평일 주양육자

								(단위: %, 명)	
구분	엄마	아빠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베이비시터	계	수	
전체	42.2	.8	40.5	9.8	1.8	4.8	100.0	600	
영유아 구분									
영아	35.7	0.0	45.0	12.0	2.3	5.0	100.0	300	
유아	48.7	1.7	36.0	7.7	1.3	4.7	100.0	300	
	$\chi^2(df)$		17.729(5)**						
자녀연령									
0세	42.0	0.0	37.0	15.0	0.0	6.0	100.0	100	
1세	33.0	0.0	51.0	9.0	3.0	4.0	100.0	100	
2세	32.0	0.0	47.0	12.0	4.0	5.0	100.0	100	
3세	44.0	0.0	43.0	9.0	0.0	4.0	100.0	100	
4세	49.0	3.0	31.0	6.0	4.0	7.0	100.0	100	
5세	53.0	2.0	34.0	8.0	0.0	3.0	100.0	100	
	$\chi^2(df)$		45.283(25)**						
모 취업 여부									
취업	41.6	.8	40.9	10.0	1.9	4.7	100.0	591	
미취업	77.8	0.0	11.1	0.0	0.0	11.1	100.0	9	
	$\chi^2(df)$		-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54.5	2.3	36.4	2.3	0.0	4.5	100.0	44	
10,000~20,000위안 미만	41.0	1.3	37.9	11.0	1.6	7.3	100.0	317	
20,000~30,000위안 미만	40.6	0.0	48.4	9.7	.6	.6	100.0	155	
30,000위안 이상	42.9	0.0	38.1	9.5	6.0	3.6	100.0	84	
	$\chi^2(df)$		31.497(15)**						

** $p < .01$

북경 지역의 경우, 퇴근시간 이후 및 주말에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1차적인 육아 주체이기는 하나, 대부분 조부모가 주중에 함께 거주

또는 근거리에서 거주하면서 기관이용 시간(3~6세 유아) 및 시간제 프로그램 이용시간(0~2세 영아)이외의 나머지 시간에 손자녀를 돌보는 주요한 육아 지원자이다. 일부 가정에서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여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육아방식에 있어서 조부모와 부모간의 차이는 존재하며, 대부분 부모가 조부모와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TV 시청시간 제한, 자연식 간식 등과 같이 조부모가 부모의 육아방식에 맞추어 손자녀를 돌보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을 맞춰가야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과 저희의 의견이 다를 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서 아주머니도 도와주세요. 저희가 저희의 생각을 아주머니께 전하고 소통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확실히 정의하고 계세요. 자신은 보조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내가 돌본다'는 것과 '보조하고 도와준다'는 것은 다르잖아요. '내가 돌본다'라고 하면 자신 위주로 하실텐데, 도와주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저희의 생각을 중점으로 해 주세요(심층면담, 2017. 7월).

한편 평일 주 양육자의 돌봄시간에 대해 알아본 결과, 6~9시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26.7%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약 11시간으로 나타났다. 유아보다는 영아($t=6.918, p < .001$),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F=14.738, p < .001$) 주양육자의 돌봄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미취업모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주양육자의 돌봄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4-1-28 평일 주양육자의 돌봄 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3~6 시간 미만	6~9 시간 미만	9~12 시간 미만	12~15 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계	수	평균 -시간	t/F
전체	8.3	26.7	25.0	19.2	20.8	100.0	600	11.00	
영유아 구분									6.918***
영아	2.3	20.7	26.3	23.3	27.3	100.0	300	12.25	
유아	14.3	32.7	23.7	15.0	14.3	100.0	300	9.76	
자녀연령									14.738***
0세	1.0	16.0	20.0	27.0	36.0	100.0	100	13.35	
1세	1.0	19.0	31.0	24.0	25.0	100.0	100	12.31	
2세	5.0	27.0	28.0	19.0	21.0	100.0	100	11.08	
3세	15.0	29.0	16.0	14.0	26.0	100.0	100	10.78	
4세	16.0	44.0	21.0	10.0	9.0	100.0	100	8.80	
5세	12.0	25.0	34.0	21.0	8.0	100.0	100	9.69	
모 취업 여부									-
취업	8.5	26.1	25.4	19.5	20.6	100.0	591	10.97	
미취업	0.0	66.7	0.0	0.0	33.3	100.0	9	12.89	
가구 소득									1.242
5,000~10,000위안 미만	2.3	22.7	22.7	20.5	31.8	100.0	44	11.98	
10,000~20,000위안 미만	9.5	24.9	26.8	18.0	20.8	100.0	317	11.06	
20,000~30,000위안 미만	7.7	29.7	20.0	19.4	23.2	100.0	155	10.96	
30,000위안 이상	8.3	29.8	28.6	22.6	10.7	100.0	84	10.36	

*** $p < .001$

자녀가 어제 엄마와 함께 한 시간을 알아본 결과, 3~6시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29.2%로 가장 높았으며, 하루 평균 약 8.21시간으로 나타났다. 유아보다는 영아($t=2.265, p < .05$),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F=5.415, p < .001$) 엄마와 함께 한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t=-6.316, p < .00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F=5.716, p < .001$) 엄마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4-1-29 자녀가 어제 엄마와 함께 한 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3시간 미만	3~6시간 미만	6~9시간 미만	9~12시간 미만	12~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계	수	평균	t/F
전체	6.5	29.2	27.8	10.5	10.2	15.8	100.0	600	8.21	
영유아 구분										2.265*
영아	5.0	30.3	21.3	13.7	11.3	18.3	100.0	300	8.63	
유아	8.0	28.0	34.3	7.3	9.0	13.3	100.0	300	7.78	
자녀연령										5.415***
0세	1.0	22.0	20.0	17.0	12.0	28.0	100.0	100	10.16	
1세	6.0	29.0	25.0	11.0	13.0	16.0	100.0	100	8.36	
2세	8.0	40.0	19.0	13.0	9.0	11.0	100.0	100	7.37	
3세	10.0	29.0	28.0	1.0	9.0	23.0	100.0	100	8.32	
4세	10.0	30.0	31.0	10.0	11.0	8.0	100.0	100	7.38	
5세	4.0	25.0	44.0	11.0	7.0	9.0	100.0	100	7.64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										-6.316***
이용	6.4	32.7	40.2	8.8	7.6	4.4	100.0	251	6.92	
미이용	6.6	26.6	18.9	11.7	12.0	24.1	100.0	349	9.13	
모 취업 여부										-
취업	6.6	29.4	27.6	10.3	10.0	16.1	100.0	591	8.20	
미취업	0.0	11.1	44.4	22.2	22.2	0.0	100.0	9	8.44	
가구 소득										5.716***
5,000~10,000위안 미만	9.1	31.8	13.6	15.9	18.2	11.4	100.0	44	8.00	
10,000~20,000위안 미만	7.9	22.1	27.4	9.8	12.0	20.8	100.0	317	8.83	
20,000~30,000위안 미만	3.2	37.4	30.3	7.7	7.1	14.2	100.0	155	7.83	
30,000위안 이상	6.0	39.3	32.1	15.5	4.8	2.4	100.0	84	6.63	

* $p < .05$, *** $p < .001$

자녀가 어제 아빠와 함께 한 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3~6시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36.8%로 가장 높았으며, 하루 평균 5.44시간이었다.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었으며($t=-6.896$, $p < .001$), 10,000~20,000위안 미만의 가구에서 자녀가 아빠와 함께 한 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F=5.291$, $p < .001$).

표 4-1-30 자녀가 어제 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3시간 미만	3~6시간 미만	6~9시간 미만	9~12시간 미만	12~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계	수	평균	t/F
전체	25.8	36.8	16.0	11.7	6.5	3.2	100.0	600	5.44	
영유아 구분										1.745
영아	23.0	38.3	14.3	13.3	7.0	4.0	100.0	300	5.71	
유아	28.7	35.3	17.7	10.0	6.0	2.3	100.0	400	5.16	
자녀연령										1.852
0세	21.0	36.0	12.0	18.0	7.0	6.0	100.0	100	6.25	
1세	19.0	41.0	16.0	11.0	10.0	3.0	100.0	100	5.83	
2세	29.0	38.0	15.0	11.0	4.0	3.0	100.0	100	5.06	
3세	27.0	31.0	18.0	18.0	5.0	1.0	100.0	100	5.48	
4세	33.0	38.0	13.0	6.0	6.0	4.0	100.0	100	4.84	
5세	26.0	37.0	22.0	6.0	7.0	2.0	100.0	100	5.16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										-6.896***
이용	32.7	39.4	19.9	6.0	1.2	.8	100.0	251	4.26	
미이용	20.9	35.0	13.2	15.8	10.3	4.9	100.0	349	6.28	
부 취업 여부										-
취업	25.7	36.9	16.0	11.7	6.5	3.2	100.0	599	5.45	
미취업	100.0	0.0	0.0	0.0	0.0	0.0	100.0	1	0.00	
가구 소득										5.291***
5,000~10,000위안 미만	34.1	40.9	15.9	2.3	4.5	2.3	100.0	44	4.30	
10,000~20,000위안 미만	27.4	31.5	11.4	15.1	10.4	4.1	100.0	317	5.94	
20,000~30,000위안 미만	21.3	40.6	20.0	12.3	2.6	3.2	100.0	155	5.30	
30,000위안 이상	23.8	47.6	26.2	2.4	0.0	0.0	100.0	84	4.38	

*** $p < .001$

2) 육아 및 가사 참여

부모의 육아참여 비율의 합을 100%로 놓았을 때 모의 육아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60~80%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56.8%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65.62%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구분,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4-1-31 육아참여 비율(엄마)

(단위: %, 명)

구분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계	수	평균-%	t/F
전체	1.8	19.3	56.8	22.0	100.0	600	65.62	
영유아 구분								.637
영아	2.0	17.3	57.7	23.0	100.0	300	65.96	
유아	1.7	21.3	56.0	21.0	100.0	300	65.28	
자녀연령								2.165
0세	2.0	18.0	64.0	16.0	100.0	100	64.97	
1세	3.0	21.0	56.0	20.0	100.0	100	63.85	
2세	1.0	13.0	53.0	33.0	100.0	100	69.06	
3세	1.0	26.0	54.0	19.0	100.0	100	64.63	
4세	3.0	14.0	58.0	25.0	100.0	100	66.55	
5세	1.0	24.0	56.0	19.0	100.0	100	64.67	
자녀 수								-
1명	1.9	19.4	56.9	21.8	100.0	592	65.56	
2명	0.0	12.5	50.0	37.5	100.0	8	70.00	
모 취업 여부								.919
취업	1.7	19.5	56.7	22.2	100.0	591	65.68	
미취업	11.1	11.1	66.7	11.1	100.0	9	61.67	

부의 육아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20~40%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7.2%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34.38%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구분,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4-1-32 육아참여 비율(아빠)

(단위: %, 명)

구분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계	수	평균-%	t/F
전체	7.3	47.2	42.0	2.5	1.0	100.0	600	34.38	
영유아 구분									-0.637
영아	5.7	51.7	38.7	2.7	1.3	100.0	300	34.04	
유아	9.0	42.7	45.3	2.3	0.7	100.0	300	34.72	
자녀연령									2.165
0세	4.0	51.0	41.0	3.0	1.0	100.0	100	35.03	
1세	6.0	44.0	44.0	3.0	3.0	100.0	100	36.15	
2세	7.0	60.0	31.0	2.0	0.0	100.0	100	30.94	
3세	12.0	36.0	50.0	2.0	0.0	100.0	100	35.37	
4세	10.0	46.0	41.0	1.0	2.0	100.0	100	33.45	
5세	5.0	46.0	45.0	4.0	0.0	100.0	100	35.33	
자녀 수									-
1명	7.3	47.1	42.1	2.5	1.0	100.0	592	34.44	
2명	12.5	50.0	37.5	0.0	0.0	100.0	8	30.00	
부 연령									-
20대	6.1	50.0	38.5	2.7	2.7	100.0	148	34.24	
30대	7.6	45.7	43.7	2.5	.4	100.0	446	34.60	
40대이상	0.0	100.0	0.0	0.0	0.0	100.0	5	26.00	
부재	100.0	0.0	0.0	0.0	0.0	100.0	1	0.00	
부 취업 여부									-
취업	7.2	47.2	42.1	2.5	1.0	100.0	599	34.44	
미취업	100.0	0.0	0.0	0.0	0.0	100.0	1	0.00	

부모의 가사참여 비율의 합을 100%로 놓았을 때 모의 가사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60~80%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50.0%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61.13%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구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4-1-33 가사참여 비율(엄마)

(단위: %, 명)

구분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계	수	평균-%	t/F
전체	.2	3.8	30.2	50.0	15.8	100.0	600	61.13	
영유아 구분									1.348
영아	.3	3.3	27.7	51.7	17.0	100.0	300	61.93	
유아	0.0	4.3	32.7	48.3	14.7	100.0	300	60.33	
자녀연령									2.882*
0세	1.0	5.0	33.0	53.0	8.0	100.0	100	58.40	
1세	0.0	4.0	26.0	50.0	20.0	100.0	100	62.51	
2세	0.0	1.0	24.0	52.0	23.0	100.0	100	64.89	
3세	0.0	4.0	28.0	53.0	15.0	100.0	100	60.44	
4세	0.0	1.0	37.0	43.0	19.0	100.0	100	61.82	
5세	0.0	8.0	33.0	49.0	10.0	100.0	100	58.72	
자녀 수									-
1명	.2	3.9	30.2	49.7	16.0	100.0	592	61.11	
2명	0.0	0.0	25.0	75.0	0.0	100.0	8	62.50	
모 취업 여부									-
취업	.2	3.9	30.1	49.7	16.1	100.0	591	61.15	
미취업	0.0	0.0	33.3	66.7	0.0	100.0	9	60.00	

*p < .05

부의 가사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40~60%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9.3%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38.87%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구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4-1-34 가사참여 비율(아빠)

(단위: %, 명)

구분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계	수	평균-%	t/F
전체	6.2	33.3	49.3	10.0	1.2	100.0	600	38.87	
영유아 구분									-1.348
영아	6.7	36.0	47.3	8.7	1.0	100.0	300	38.07	
유아	5.7	30.7	51.3	11.3	1.0	100.0	300	39.67	
자녀연령									2.882*
0세	3.0	34.0	49.0	12.0	2.0	100.0	100	41.60	
1세	7.0	34.0	50.0	8.0	1.0	100.0	100	37.49	
2세	10.0	40.0	43.0	6.0	1.0	100.0	100	35.11	
3세	5.0	28.0	59.0	6.0	2.0	100.0	100	39.56	
4세	7.0	29.0	54.0	10.0	0.0	100.0	100	38.18	
5세	5.0	35.0	41.0	18.0	1.0	100.0	100	41.28	
자녀 수									-
1명	6.3	33.1	49.3	10.1	1.2	100.0	592	38.89	
2명	0.0	50.0	50.0	0.0	0.0	100.0	8	37.50	
부 연령									-
20대	12.2	37.2	41.2	7.4	2.0	100.0	148	36.51	
30대	4.0	32.3	51.8	11.0	0.9	100.0	446	39.70	
40대 이상	0.0	20.0	80.0	0.0	0.0	100.0	5	42.00	
부재	100.0	0.0	0.0	0.0	0.0	100.0	1	0.00	
부 취업 여부									-
취업	6.0	33.4	49.4	10.0	1.2	100.0	599	38.93	
미취업	100.0	0.0	0.0	0.0	0.0	100.0	1	0.00	

*p < .05

3) 자녀의 기관 이용 현황

자녀의 기관 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58.2%로 가장 높았으며, 유아원이 37.3%로 그 뒤를 이었다. 유아보다는 영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4-1-35 현재 기관 이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탁아소	유아원	이용하지 않음 (집에서 돌봄)	계	수
전체	4.5	37.3	58.2	100.0	600
영유아 구분					
영아	4.7	0.0	95.3	100.0	300
유아	4.3	74.7	21.0	100.0	300
$\chi^2(df)$			366.527(1)***		
자녀연령					
0세	0.0	0.0	100.0	100.0	100
1세	5.0	0.0	95.0	100.0	100
2세	9.0	0.0	91.0	100.0	100
3세	13.0	43.0	44.0	100.0	100
4세	0.0	88.0	12.0	100.0	100
5세	0.0	93.0	7.0	100.0	100
$\chi^2(df)$			na		
모 취업 여부					
취업	4.6	37.4	58.0	100.0	591
미취업	0.0	33.3	66.7	100.0	9
$\chi^2(df)$			-		

주: na는 통계검정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 $p < .001$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이용기간은 1~2년 미만이 전체의 41.8%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17.1개월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F=111.625, p < .001$), 가구소득이 적을수록($F=5.126, p < .01$) 이용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4-1-36 기관 이용기간

(단위: %, 명, 개월)

구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계	수	평균-개월	t/F
전체	4.8	8.8	9.6	41.8	31.9	3.2	100.0	251	17.10	
영유아 구분										-6.223***
영아	7.1	42.9	14.3	35.7	0.0	0.0	100.0	14	7.86	
유아	4.6	6.8	9.3	42.2	33.8	3.4	100.0	237	17.65	
자녀연령										111.625***
1세	0.0	60.0	0.0	40.0	0.0	0.0	100.0	5	7.40	
2세	11.1	33.3	22.2	33.3	0.0	0.0	100.0	9	8.11	
3세	19.6	25.0	28.6	26.8	0.0	0.0	100.0	56	6.84	
4세	0.0	2.3	4.5	78.4	14.8	0.0	100.0	88	15.90	
5세	0.0	0.0	2.2	17.2	72.0	8.6	100.0	93	25.81	
모 취업 여부										-
취업	4.8	8.9	9.7	41.9	31.9	2.8	100.0	248	16.98	
미취업	0.0	0.0	0.0	33.3	33.3	33.3	100.0	3	26.67	
가구 소득										5.126**
5,000~10,000위안 미만	0.0	0.0	6.7	26.7	60.0	6.7	100.0	15	23.60	
10,000~20,000위안 미만	3.3	10.6	4.9	41.5	36.6	3.3	100.0	123	18.13	
20,000~30,000위안 미만	7.7	5.1	15.4	43.6	25.6	2.6	100.0	78	15.71	
30,000위안 이상	5.7	14.3	14.3	45.7	17.1	2.9	100.0	35	13.80	

p < .01, *p < .001

자녀의 기관 하루 이용시간은 6~9시간 미만이 전체의 57.8%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501.65분(약 8.36시간)이었다.

표 4-1-37 기관 하루 이용시간

(단위: %, 명, 분)

구분	3~6시간 미만	6~9시간 미만	9~12시간 미만	계	수	평균-분	t/F
전체	3.2	57.8	39.0	100.0	251	501.65	
영유아 구분							1.310
영아	0.0	64.3	35.7	100.0	14	527.64	
유아	3.4	57.4	39.2	100.0	237	500.11	
자녀연령							1.395
1세	0.0	80.0	20.0	100.0	5	491.00	
2세	0.0	55.6	44.4	100.0	9	548.00	
3세	0.0	55.4	44.6	100.0	56	512.04	
4세	1.1	61.4	37.5	100.0	88	499.45	
5세	7.5	54.8	37.6	100.0	93	493.55	
모 취업 여부							-
취업	2.8	58.1	39.1	100.0	248	502.88	
미취업	33.3	33.3	33.3	100.0	3	400.00	
가구 소득							3.227*
5,000~10,000위안 미만	0.0	80.0	20.0	100.0	15	478.00	
10,000~20,000위안 미만	5.7	60.2	34.1	100.0	123	490.92	
20,000~30,000위안 미만	1.3	51.3	47.4	100.0	78	510.87	
30,000위안 이상	0.0	54.3	45.7	100.0	35	528.91	

*p < .05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3~6세 유아를 둔 부모들은 전업주부를 포함하여 실제 대부분 8시간~12시간(오전 7:40부터 오후 4:30~7:20)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경 지역은 대부분 맞벌이 가구이긴 하지만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전업주부의 자녀도 종일제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0~2세 영아는 대부분 조부모 또는 가정에서 고용한 보모에 의하여 가정에서 돌보고 있다.

한편 기관 이용시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용비용 부담이 전체의 28.3%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 근로시간보다 기관 운영시간이 짧다는 것이 25.9%로 그 뒤를 이었다.

표 4-1-38 기관 이용 시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기관 부족 (충분하지 않음) 및 대기 기간	이용비용 부담	집에서 기관까지의 거리가 가깝지 않음(20분 이상 걸림)	부모 근로시간보다 기관 운영시간이 짧음	기관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미흡	계	수
전체	11.6	28.3	23.9	25.9	10.4	100.0	251
영유아 구분							
영아	14.3	7.1	21.4	42.9	14.3	100.0	14
유아	11.4	29.5	24.1	24.9	10.1	100.0	237
자녀연령							
1세	0.0	0.0	20.0	80.0	0.0	100.0	5
2세	22.2	11.1	22.2	22.2	22.2	100.0	9
3세	5.4	28.6	25.0	32.1	8.9	100.0	56
4세	14.8	34.1	22.7	21.6	6.8	100.0	88
5세	11.8	25.8	24.7	23.7	14.0	100.0	93
모 취업 여부							
취업	11.3	28.2	23.8	26.2	10.5	100.0	248
미취업	33.3	33.3	33.3	0.0	0.0	100.0	3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6.7	33.3	26.7	33.3	0.0	100.0	15
10,000~20,000위안 미만	13.8	33.3	21.1	22.8	8.9	100.0	123
20,000~30,000위안 미만	10.3	23.1	28.2	26.9	11.5	100.0	78
30,000위안 이상	8.6	20.0	22.9	31.4	17.1	100.0	35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기관이 많지 않아 거주 지역(구)에 따라 2~3년 정도로 대기시간이 긴 편이며, 각 구마다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양질의 기관일수록 신청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구역 내의 유치원에만 이용 신청이 가능하므로 부모들은 양질의 기관이 많은 북경 내의 동부지역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었다.

4) 육아 비용

평일 주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는 경우, 지불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정기적으로 현금 지불'이 전체의 52.6%로 가장 높았으며, '지불 안함'이 30.4%로 그 뒤를 이었다. 영유아의 구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0세의 경우,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세의 아동은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chi^2(df)=29.747(15), p < .05$).

표 4-1-39 평일 주양육자에게 양육비 지불 방법

(단위: %, 명)

구분	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비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현물로 지불	지불 안 함	계	수
전체	52.6	12.0	5.0	30.4	100.0	342
영유아 구분						
영아	54.9	12.4	4.7	28.0	100.0	193
유아	49.7	11.4	5.4	33.6	100.0	149
$\chi^2(df)$			1.460			
자녀연령						
0세	75.9	6.9	3.4	13.8	100.0	58
1세	41.8	17.9	4.5	35.8	100.0	67
2세	50.0	11.8	5.9	32.4	100.0	68
3세	58.9	8.9	1.8	30.4	100.0	56
4세	50.0	10.4	2.1	37.5	100.0	48
5세	37.8	15.6	13.3	33.3	100.0	45
$\chi^2(df)$			29.747(15)*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26.3	10.5	15.8	47.4	100.0	19
10,000~20,000위안 미만	61.2	13.1	4.4	21.3	100.0	183
20,000~30,000위안 미만	42.4	7.6	3.3	46.7	100.0	92
30,000위안 이상	50.0	16.7	6.3	27.1	100.0	48
$\chi^2(df)$			-			

* $p < .05$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조부모의 돌봄 지원에 대한 재정적 보상(예: 용돈 제공 등)은 거의 없으며, 부모의 요청에 의해 조부모가 자발적으로 손자녀 돌봄을 도와주는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신다고 해서 돈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아마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 가지는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돌봐 주시는 동시에 저희를 도와주시고 계신 거예요(심층면담, 2017. 7월).

한편 평일 주양육자에게 지불하는 월 평균 양육비를 알아본 결과, 2,000~3,000위안 미만이 전체의 34.9%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2,921.81위안으로 응답되었다. 유아(2,735.26위안)보다는 영아(3,054.68위안)의 양육비가 다소 높았다.

표 4-1-40 평일 주양육자에게 지불하는 월평균 양육비

(단위: %, 명, 위안)

구분	1,000	1,000~	2,000~	3,000~	4,000~	5,000	계	수	평균 -위안	t/F
	위안 미만	2,000 위안 미만	3,000 위안 미만	4,000 위안 미만	5,000 위안 이상					
전체	2.5	12.2	34.9	34.5	7.6	8.4	100.0	238	2,921.81	
영유아 구분										1.555
영아	0.7	10.8	40.3	30.2	7.2	10.8	100.0	139	3,054.68	
유아	5.1	14.1	27.3	40.4	8.1	5.1	100.0	99	2,735.26	
자녀연령										1.380
0세	0.0	6.0	50.0	30.0	8.0	6.0	100.0	50	2,954.00	
1세	2.3	7.0	32.6	39.5	7.0	11.6	100.0	43	3,106.98	
2세	0.0	19.6	37.0	21.7	6.5	15.2	100.0	46	3,115.22	
3세	0.0	5.1	23.1	53.8	15.4	2.6	100.0	39	3,073.08	
4세	3.3	20.0	23.3	40.0	6.7	6.7	100.0	30	2,730.00	
5세	13.3	20.0	36.7	23.3	0.0	6.7	100.0	30	2,301.37	
가구 소득										1.105
5,000~10,000위안 미만	10.0	40.0	10.0	10.0	10.0	20.0	100.0	10	2,880.00	
10,000~20,000위안 미만	3.5	9.7	37.5	33.3	9.0	6.9	100.0	144	2,858.97	
20,000~30,000위안 미만	0.0	18.4	34.7	34.7	2.0	10.2	100.0	49	2,800.00	
30,000위안 이상	0.0	5.7	31.4	45.7	8.6	8.6	100.0	35	3,362.86	

월평균 기관이용비를 알아본 결과, 1,000~2,000위안이 전체의 32.3%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2,254.41위안으로 나타났다.

표 4-1-41 월평균 기관이용비

(단위: %, 명, 위안)

구분	500위안 미만	500~1,000위안	1,000~2,000위안	2,000~3,000위안	3,000~4,000위안	4,000위안 이상	계	수	평균-위안
전체	5.6	12.4	32.3	17.1	16.3	16.3	100.0	251	2,254.41
영유아 구분									
영아	0.0	14.3	14.3	14.3	35.7	21.4	100.0	14	2971.43
유아	5.9	12.2	33.3	17.3	15.2	16.0	100.0	237	2212.05
자녀연령									
1세	0.0	20.0	20.0	0.0	20.0	40.0	100.0	5	3,520.00
2세	0.0	11.1	11.1	22.2	44.4	11.1	100.0	9	2,666.67
3세	0.0	10.7	26.8	17.9	26.8	17.9	100.0	56	2,635.71
4세	2.3	11.4	30.7	25.0	13.6	17.0	100.0	88	2,360.25
5세	12.9	14.0	39.8	9.7	9.7	14.0	100.0	93	1,816.71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6.7	13.3	66.7	13.3	0.0	0.0	100.0	15	1,141.33
10,000~20,000위안 미만	9.8	12.2	35.0	26.0	13.0	4.1	100.0	123	1,794.61
20,000~30,000위안 미만	1.3	16.7	28.2	6.4	23.1	24.4	100.0	78	2,535.88
30,000위안 이상	0.0	2.9	17.1	11.4	20.0	48.6	100.0	35	3,720.00

양육 및 교육 관련 월 평균 비용과 가계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육아비용이 월 평균 1,585.40위안으로 가장 높았으며, 탁아소 및 유치원 등 기관이용비는 월 평균 1,245.35위안, 사교육비는 498.66위안으로 가장 낮았다. 육아비용의 경우 부담정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29.7%로 가장 높았으며, 기관 이용비와 사교육비는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4-1-42 월 평균 비용과 가계부담 정도

(단위: %, 명, 위안)

구분	부담 정도							월평균 비용 (위안)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별로 부담되지 않음	③ 적절함	④ 다소 부담됨	⑤ 매우 부담됨	①+②	④+⑤		계(수)
육아비용	20.5	29.3	29.7	18.8	1.7	49.8	20.5	100.0 (600)	1585.40
기관이용비	28.5	23.7	23.0	20.2	4.7	52.2	24.8	100.0 (600)	1245.35
사교육비	46.0	21.2	23.2	8.2	1.5	67.2	9.7	100.0 (600)	498.66

북경에서는 3~6세 유아가 공립기관 이용 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사립기관은 전혀 지원이 없다. 한편 공립기관 수는 사립기관보다 적으므로 부모의 비용 부담도 상당히 크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 참여한 부모 3인은 자녀가 북경사범대 부속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었으며, 월 평균 교육비는 원아 1인당 3,000~4,000위안(한화 60~70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정규 유치원 이외에 쇼핑몰 등에서 시간제로 운영하는 음악, 미술, 운동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영아부터 이용가능하나, 1회 40분 정도 이용비용이 300위안(한화 약 5만 4천 원)으로 금액이 높은 편이다.

수업마다 달라요. 저희는 회원카드를 만들어야 해요. 평균으로 계산하면 아마 한 시간(1교시에 40분)에 300위안 정도 될 거예요. 수업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요. 가끔은 한 시간 수업에 두 시간의 수업비용이 필요하기도 하지요(심층면담, 2017. 7월).

면담한 영아 부모는 1주일에 3개의 프로그램을 6~7회 동안 이용하

로 주당 약 1,800~2,100위안(한화 약 32만 4천 원~37만 8천 원)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1개월간 약 한화 120만 원에 달하는 높은 수준의 금액을 문화센터 등 사교육에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한자녀 가구의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대로 자녀교육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 향후 영유아 사교육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5) 육아의 어려움

급할 때 자녀를 맡기는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부모가 전체의 64.8%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의 형제자매가 14.3%로 그 뒤를 이었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의 경우 기관을 이용하는 자녀보다 조부모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많았다($\chi^2(df)=22.156(5), p < .001$). 가구 소득 별로는 10,000~20,000위안 미만 가정은 조부모에 맡기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0,000위안 이상의 가정은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유아원에 맡기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chi^2(df)=49.133(15), p < .001$).

표 4-1-43 급할 때 자녀를 맡기는 사람(기관)

구분	맡기는 사람(기관)						(단위: %, 명)	
	조부모 (친가, 외가)	부모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부모의 친구, 이웃, 동료	유아원	베이비시터	없음 (부모가 직접 돌봄)	계	수
전체	64.8	14.3	4.8	7.3	3.8	4.8	100.0	600
영유아 구분								
영아	69.3	12.7	3.7	5.0	4.3	5.0	100.0	300
유아	60.3	16.0	6.0	9.7	3.3	4.7	100.0	300
	$\chi^2(df)$							
					9.607(5)			
자녀연령								
0세	72.0	10.0	4.0	5.0	5.0	4.0	100.0	100
1세	74.0	8.0	4.0	3.0	4.0	7.0	100.0	100
2세	62.0	20.0	3.0	7.0	4.0	4.0	100.0	100

표 4-1-43 계속

구분	조부모 (친가, 외가)	부모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부모의 친구, 이웃, 동료	유아원	베이비시터	없음 (부모가 직접 돌봄)	계	수
3세	67.0	14.0	4.0	9.0	4.0	2.0	100.0	100
4세	54.0	21.0	5.0	9.0	4.0	7.0	100.0	100
5세	60.0	13.0	9.0	11.0	2.0	5.0	100.0	100
$\chi^2(df)$				29.827(25)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								
이용	56.2	16.7	7.2	11.6	3.6	4.8	100.0	251
미이용	71.1	12.6	3.2	4.3	4.0	4.9	100.0	349
$\chi^2(df)$				22.156(5)***				
자녀 수								
1명	64.7	14.5	4.9	7.3	3.9	4.7	100.0	592
2명	75.0	0.0	0.0	12.5	0.0	12.5	100.0	8
$\chi^2(df)$				na				
모 취업 여부								
취업	64.8	14.6	4.9	7.3	3.7	4.7	100.0	591
미취업	66.7	0.0	0.0	11.1	11.1	11.1	100.0	9
$\chi^2(df)$				-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56.8	27.3	0.0	2.3	4.5	9.1	100.0	44
10,000~20,000위안 미만	69.1	13.2	4.1	4.7	6.0	2.8	100.0	317
20,000~30,000위안 미만	60.6	16.1	8.4	10.3	0.0	4.5	100.0	155
30,000위안 이상	60.7	8.3	3.6	14.3	2.4	10.7	100.0	84
$\chi^2(df)$				49.133(15)***				

주: na는 통계검정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 $p < .001$

한편 급할 때 자녀 돌봄에 도움을 주는 사람 수는 2명이라는 응답이 48.7%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2.4명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구분,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자녀가 5세인 경우, 급할 때 자녀 돌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3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비율이 가장 높았고, 3세 일 때 가장 낮았다.($F=3.657, p < .01$)

표 4-1-44 급할 때 자녀 돌봄에 도움 주는 사람 수

									(단위: %,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계	수	평균	t/F
전체	17.7	48.7	15.2	14.2	4.2	100.0	571	2.40	
영유아 구분									.958
영아	13.3	51.9	15.8	15.4	3.5	100.0	285	2.45	
유아	22.0	45.5	14.7	12.9	4.9	100.0	286	2.36	
자녀연령									3.657**
0세	14.6	57.3	9.4	17.7	1.0	100.0	96	2.34	
1세	9.7	45.2	22.6	17.2	5.4	100.0	93	2.65	
2세	15.6	53.1	15.6	11.5	4.2	100.0	96	2.35	
3세	18.4	57.1	14.3	8.2	2.0	100.0	98	2.21	
4세	25.8	48.4	10.8	12.9	2.2	100.0	93	2.17	
5세	22.1	30.5	18.9	17.9	10.5	100.0	95	2.68	
가구 소득									2.554
5,000~10,000위안 미만	17.5	45.0	12.5	20.0	5.0	100.0	40	2.53	
10,000~20,000위안 미만	20.8	46.8	12.7	15.3	4.5	100.0	308	2.38	
20,000~30,000위안 미만	12.8	60.1	16.9	8.1	2.0	100.0	148	2.26	
30,000위안 이상	14.7	36.0	24.0	18.7	6.7	100.0	75	2.68	

** $p < .01$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을 알아본 결과, ‘개인시간의 부족’이 전체의 35.5%로 가장 높았으며, ‘민고 맡길 수 있는 유아원의 부족’이 20.0%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사교육비의 부담’은 2.0%로 가장 낮았다. 영아와 유아 모두 ‘개인시간의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으나 영아의 경우 그 수치가 더 높았으며, ‘육아 비용의 부담’이 유아에 비해 높았다. 반면 유아의 경우 영아에 비해 ‘기관 이용비용의 부담’이 높았다($\chi^2(df)=68.126(5)$, $p < .001$). 자녀 연령별로 살펴보면, 1세와 2세는 ‘개인 시간의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인 반면, 4세와 5세의 경우 ‘기관이용 비용의 부담’이 가장 높았다($\chi^2(df)=156.078(25)$, $p < .001$).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관이용 비용의 부담’이 가장 높

았으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시간의 부족’이 가장 높았다($\chi^2(df)=76.289(5)$, $p < .001$). 한편 가구소득별로는 5,000~10,000위안 미만 가구와 30,000위안 이상 가구는 ‘개인 시간의 부족’이 매우 높았으며,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의 부족’을 두 번째 어려움으로 들었다. 반면 10,000~30,000위안 미만 가구는 ‘개인시간의 부족’에 응답한 비율이 낮았으며, 두 번째 어려움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원의 부족’으로 나타났다($\chi^2(df)=36.681(15)$, $p < .001$).

표 4-1-45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개인 시간이 부족함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원이 부족함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	유아원 등 기관이용 비용이 부담됨	육아 비용이 부담됨 (육아용품 등)	사교육비 (학원 등)가 부담됨	계	수
전체	35.5	20.0	17.2	14.5	10.8	2.0	100.0	600
영유아 구분								
영아	43.3	18.7	20.0	4.0	13.3	.7	100.0	300
유아	27.7	21.3	14.3	25.0	8.3	3.3	100.0	300
$\chi^2(df)$				68.126(5)***				
자녀연령								
0세	24.0	27.0	18.0	6.0	25.0	0.0	100.0	100
1세	48.0	19.0	16.0	5.0	10.0	2.0	100.0	100
2세	58.0	10.0	26.0	1.0	5.0	0.0	100.0	100
3세	30.0	35.0	16.0	14.0	4.0	1.0	100.0	100
4세	27.0	17.0	12.0	33.0	7.0	4.0	100.0	100
5세	26.0	12.0	15.0	28.0	14.0	5.0	100.0	100
$\chi^2(df)$				156.078(25)***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								
이용	25.9	17.1	15.5	28.3	9.6	3.6	100.0	251
미이용	42.4	22.1	18.3	4.6	11.7	.9	100.0	349
$\chi^2(df)$				76.289(5)***				
자녀 수								
1명	35.3	20.1	17.1	14.5	11.0	2.0	100.0	592
2명	50.0	12.5	25.0	12.5	0.0	0.0	100.0	8
$\chi^2(df)$				-				

표 4-1-45 계속

구분	개인 시간이 부족함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원이 부족함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	유아원 등 기관이용 비용이 부담됨	육아 비용이 부담됨 (육아용품 등)	사교육비 (학원 등)가 부담됨	계	수
모 취업 여부								
취업	35.5	20.0	17.1	14.7	10.7	2.0	100.0	591
미취업	33.3	22.2	22.2	0.0	22.2	0.0	100.0	9
$\chi^2(df)$				-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43.2	11.4	18.2	6.8	15.9	4.5	100.0	44
10,000~20,000위안 미만	32.2	22.1	16.1	13.9	13.9	1.9	100.0	317
20,000~30,000위안 미만	36.1	24.5	14.2	14.8	9.0	1.3	100.0	155
30,000위안 이상	42.9	8.3	26.2	20.2	0.0	2.4	100.0	84
$\chi^2(df)$				36.681(15)***				

*** $p < .001$

부모들이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는 자녀가 아플 때이며, 대부분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심층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직장생활을 하는 조부모의 경우는 부모인 자녀 대신 휴기를 내어 손자녀를 돌봄). 또한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도우미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양질의 도우미를 구하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요컨대, 중국의 경우 취학 전 자녀 돌봄은 전적으로 개별가정의 문제로 조부모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와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는 문항에 매우, 혹은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53.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는 문항에 전혀, 혹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1.0%로 가장 높았다.

표 4-1-46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도

(단위: %(명))

문항 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④+⑤	계 (수)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13.2	30.7	25.7	22.8	7.7	43.8	30.5	100.0 (600)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16.0	32.3	23.7	20.7	7.3	48.3	28.0	100.0 (600)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8.5	19.5	18.3	32.5	21.2	28.0	53.7	100.0 (600)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23.5	37.5	19.0	15.7	4.3	61.0	20.0	100.0 (600)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12.8	29.7	27.3	23.0	7.2	42.5	30.2	100.0 (600)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7.3	15.2	30.7	32.5	14.3	22.5	46.8	100.0 (600)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25.3	32.8	23.2	13.7	5.0	58.2	18.7	100.0 (600)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7.8	18.5	38.7	23.8	11.2	26.3	35.0	100.0 (600)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7.2	17.7	21.5	38.3	15.3	24.8	53.7	100.0 (60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10.3	33.8	28.3	20.5	7.0	44.2	27.5	100.0 (600)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면,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는 문항에 대해 매우, 혹은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이 90.2%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문항에 대해 매우, 혹은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85.2%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혀, 혹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2.0%로 가장 높았다.

표 4-1-47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치

(단위: %(명))

문항 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④+⑤	계(수)
정서적 가치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8	2.7	6.3	36.7	53.5	3.5	90.2	100.0 (600)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8	3.0	10.8	47.0	38.3	3.8	83.0	100.0 (600)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5	3.5	10.8	40.5	44.7	4.0	85.2	100.0 (600)
도구적 가치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7	7.2	30.0	39.5	21.7	8.8	61.2	100.0 (600)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1.5	9.3	18.3	41.5	29.3	10.8	70.8	100.0 (600)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4.8	6.5	20.3	39.5	28.8	11.3	68.3	100.0 (600)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2.7	9.3	24.0	40.2	23.8	12.0	64.0	100.0 (600)

다. 육아 정책에 대한 요구

출산·육아 관련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알아본 결과,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70.0%로 가장 높았으며, 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2.8%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은 1.8%로 가장 낮았다.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며,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더 낮았다($\chi^2(df)=11.947(3), p < .01$). 또한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chi^2(df)=17.512(9), p < .05$).

표 4-1-48 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 필요성

(단위: %, 명, 점)

구분	① 전적으로 지원	② 어느 정도 지원	③ 별로 필요 없음	④ 전혀 필요 없음	①+②	③+④	계	수	평균	t/F
전체	22.8	70.0	5.3	1.8	92.8	7.2	100.0	600	3.14	
영유아 구분										1.480
영아	20.0	73.0	4.3	2.7	93.0	7.0	100.0	300	1.90	
유아	25.7	67.0	6.3	1.0	92.7	7.3	100.0	300	1.83	
$\chi^2(df)$										6.279(3)
자녀연령										2.362*
0세	17.0	77.0	4.0	2.0	94.0	6.0	100.0	100	3.09b	
1세	24.0	67.0	5.0	4.0	91.0	9.0	100.0	100	3.11b	
2세	19.0	75.0	4.0	2.0	94.0	6.0	100.0	100	3.11b	
3세	17.0	72.0	9.0	2.0	89.0	11.0	100.0	100	3.04b	
4세	24.0	71.0	5.0	0.0	95.0	5.0	100.0	100	3.19ab	
5세	36.0	58.0	5.0	1.0	94.0	6.0	100.0	100	3.29a	
$\chi^2(df)$										22.718(15)
기관 이용 여부										-2.304*
이용	29.1	63.3	6.4	1.2	92.4	7.6	100.0	251	3.20	
미이용	18.3	74.8	4.6	2.3	93.1	6.9	100.0	349	3.09	
$\chi^2(df)$										11.947(3)**
자녀 수										-
1명	22.6	70.4	5.1	1.9	93.1	6.9	100.0	592	3.14	
2명	37.5	37.5	25.0	0.0	75.0	25.0	100.0	8	3.13	
$\chi^2(df)$										-
모 취업 여부										-
취업	22.7	70.1	5.4	1.9	92.7	7.3	100.0	591	3.14	
미취업	33.3	66.7	0.0	0.0	100.0	0.0	100.0	9	3.33	
$\chi^2(df)$										-
가구 소득										2.135
5,000~10,000위안 미만	25.0	75.0	0.0	0.0	100.0	0.0	100.0	44	3.25	
10,000~20,000위안 미만	23.3	71.3	4.7	.6	94.6	5.4	100.0	317	3.17	
20,000~30,000위안 미만	20.0	69.7	7.7	2.6	89.7	10.3	100.0	155	3.07	
30,000위안 이상	25.0	63.1	6.0	6.0	88.1	11.9	100.0	84	3.07	
$\chi^2(df)$										17.512(9)*

* $p < .05$, ** $p < .01$

북경지역에서 심층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육아는 개별가정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나, 정부가 안전한 육아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였다. 면담한 부모들이 자국 정부가 출산·육아와 관련하여 지원받기를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없었으며, 희망하는 출산·육아지원 정책에 관한 질문은 면담을 통하여 본 연구진이 ‘부모들의 지원 요구’로 간주할 수 있는 사항들을 추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출산·육아 정책 1순위를 살펴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가 전체의 27.3%로 가장 높았으며, 비용 지원이 18.0%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베이비시터 인력 관리는 5.2%로 가장 낮았다.

표 4-1-49 우선 희망하는 출산·육아지원 정책(1순위)

(단위: %, 명)

구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비용 지원 (유아원비, 양육수당 등)	공립 유아원 확충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자녀 건강 관련 지원	유아원 운영시간 연장	영유아 문화 및 놀이시설 확대	베이비시터 인력 관리	계	수
전체	27.3	18.0	14.9	11.0	10.6	7.5	5.6	5.2	100.0	557
영유아 구분										
영아	25.4	17.9	11.8	11.1	13.3	7.2	6.8	6.5	100.0	279
유아	29.1	18.0	18.0	10.8	7.9	7.9	4.3	4.0	100.0	278
자녀연령										
0세	14.9	21.3	14.9	11.7	16.0	7.4	9.6	4.3	100.0	94
1세	34.1	14.3	9.9	8.8	12.1	8.8	4.4	7.7	100.0	91
2세	27.7	18.1	10.6	12.8	11.7	5.3	6.4	7.4	100.0	94
3세	18.0	16.9	20.2	16.9	10.1	7.9	5.6	4.5	100.0	89
4세	26.3	20.0	20.0	8.4	8.4	9.5	3.2	4.2	100.0	95
5세	42.6	17.0	13.8	7.4	5.3	6.4	4.3	3.2	100.0	94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										
이용	31.5	18.1	18.5	10.3	7.8	5.6	4.3	3.9	100.0	232
미이용	24.3	17.8	12.3	11.4	12.6	8.9	6.5	6.2	100.0	325
자녀 수										
1명	27.4	17.8	14.9	10.9	10.7	7.6	5.4	5.3	100.0	551
2명	16.7	33.3	16.7	16.7	0.0	0.0	16.7	0.0	100.0	6

표 4-1-49 계속

구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비용 지원 (유아원비, 양육수당 등)	공립 유아원 확충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자녀 건강 관련 지원	유아원 운영시간 연장	영유아 문화 및 놀이시설 확대	베이비시터 인력 관리	계	수
모 취업 여부										
취업	27.7	18.1	15.0	11.1	10.2	7.5	5.5	4.9	100.0	548
미취업	0.0	11.1	11.1	0.0	33.3	11.1	11.1	22.2	100.0	9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15.9	27.3	13.6	9.1	20.5	2.3	4.5	6.8	100.0	44
10,000~20,000위안 미만	30.3	16.0	16.3	9.0	9.7	9.7	5.0	4.0	100.0	300
20,000~30,000위안 미만	24.5	22.3	10.8	15.8	9.4	4.3	6.5	6.5	100.0	139
30,000위안 이상	27.0	12.2	17.6	10.8	10.8	8.1	6.8	6.8	100.0	74

희망하는 출산·육아 정책 1순위와 1+2순위를 비교하면,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가 1순위와 1+2순위 모두에서 각 27.3%, 41.5%로 가장 높았으며, 비용 지원이 각 18.0%, 39.1%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베이비시터 인력 관리는 각 5.2%, 11.5%로 가장 낮았다.

표 4-1-50 우선 희망하는 출산·육아지원 정책: 1순위, 1+2순위 비교

(단위: %, 명)

구분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 확대	비용지원 (유아원비, 양육수당 등)	공립 유아원 확충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자녀 건강 관련 지원	유아원 운영시간 연장	영유아 문화 및 놀이시설 확대	베이비시터 인력관리	수
1순위	27.3	18.0	14.9	11.0	10.6	7.5	5.6	5.2	557
1+2순위	41.5	39.1	26.8	23.3	23.3	18.9	15.6	11.5	557

출산·육아에 대한 직장지원 요구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9.3%로 가장 높았으며, 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15.5%로 그 뒤를 이었다. 영아의 경우 전적으로 지원해야한

다는 응답이 유아에 비해 높았으며, 유아의 경우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chi^2(df)=7.907(3)$, $p < .05$). 자녀 연령,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 가구 소득, 자녀 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4-1-51 자녀 출산·육아 직장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

(단위: %, 명, 점)

구분	① 전적으로 지원	② 어느 정도 지원	③ 별로 불필요	④ 전혀 불필요	①+②	③+④	계	수	평균	t/F
전체	15.5	79.3	4.5	.7	94.8	5.2	100.0	600	3.10	
영유아 구분										-1.401
영아	18.7	75.3	5.7	.3	94.0	6.0	100.0	300	1.88	
유아	12.3	83.3	3.3	1.0	95.7	4.3	100.0	300	1.93	
$\chi^2(df)$					7.907(3)*					
자녀연령										.488
0세	17.0	78.0	5.0	0.0	95.0	5.0	100.0	100	3.12	
1세	19.0	76.0	5.0	0.0	95.0	5.0	100.0	100	3.14	
2세	20.0	72.0	7.0	1.0	92.0	8.0	100.0	100	3.11	
3세	10.0	87.0	1.0	2.0	97.0	3.0	100.0	100	3.05	
4세	12.0	84.0	4.0	0.0	96.0	4.0	100.0	100	3.08	
5세	15.0	79.0	5.0	1.0	94.0	6.0	100.0	100	3.08	
$\chi^2(df)$					na					
자녀의 기관 이용여부										.398
이용	15.1	79.7	4.0	1.2	94.8	5.2	100.0	251	3.09	
미이용	15.8	79.1	4.9	.3	94.8	5.2	100.0	349	3.10	
$\chi^2(df)$					-					
자녀 수										-
1명	15.5	79.2	4.6	.7	94.8	5.2	100.0	592	3.10	
2명	12.5	87.5	0.0	0.0	100.0	0.0	100.0	8	3.13	
$\chi^2(df)$					-					
모 취업 여부										-
취업	15.7	79.0	4.6	.7	94.8	5.2	100.0	591	3.10	
미취업	0.0	100.0	0.0	0.0	100.0	0.0	100.0	9	3.00	
$\chi^2(df)$					-					
가구 소득										1.608
5,000~10,000위안 미만	4.5	90.9	4.5	0.0	95.5	4.5	100.0	44	3.00	
10,000~20,000위안 미만	13.2	82.0	3.8	.9	95.3	4.7	100.0	317	3.08	
20,000~30,000위안 미만	18.1	78.1	3.9	0.0	96.1	3.9	100.0	155	3.14	
30,000위안 이상	25.0	65.5	8.3	1.2	90.5	9.5	100.0	84	3.14	
$\chi^2(df)$					na					

주: na는 χ^2 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 $p < .05$

육아지원 인프라의 충분성을 알아본 결과, 탁아소, 유치원, 놀이터, 도서관, 미술관, 문화센터의 경우 약간 충분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박물관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충분하다(매우+약간)는 응답이 가장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는 탁아소와 유치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육아지원 인프라는 박물관으로 나타났다.

표 4-1-52 육아지원 인프라의 충분성

(단위: %, 명, 개)

구분	충분성								이용가능 기관 수 (개)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보통	④ 약간 충분	⑤ 매우 충분	①+②	④+⑤	계 (수)	
탁아소	2.2	11.5	21.8	44.2	20.3	13.7	64.5	100.0(600)	2.90
유치원	1.8	11.3	22.3	40.2	24.3	13.2	64.5	100.0(600)	2.91
놀이터	4.0	10.7	35.3	37.5	12.5	14.7	50.0	100.0(600)	1.93
도서관	6.0	18.7	32.7	33.0	9.7	24.7	42.7	100.0(600)	1.44
미술관	14.8	21.3	27.8	29.5	6.5	36.2	36.0	100.0(600)	1.14
박물관	18.3	22.7	27.5	24.7	6.8	41.0	31.5	100.0(600)	0.96
문화센터	7.0	15.5	32.5	35.7	9.3	22.5	45.0	100.0(600)	1.45

한편 영아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 여부를 알아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7.7%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2.3%였다. 영유아 구분, 자녀연령,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4-1-53 영아 이용기관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계	사례수
전체	57.7	42.3	100.0	600
영유아 구분				
영아	58.0	42.0	100.0	300
유아	57.3	42.7	100.0	300
$\chi^2(df)$.027(1)	

표 4-1-53 계속

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계	사례수
자녀연령				
0세	58.0	42.0	100.0	100
1세	56.0	44.0	100.0	100
2세	60.0	40.0	100.0	100
3세	60.0	40.0	100.0	100
4세	63.0	37.0	100.0	100
5세	49.0	51.0	100.0	100
$\chi^2(df)$		4.806(5)		
모 취업 여부				
취업	57.5	42.5	100.0	591
미취업	66.7	33.3	100.0	9
$\chi^2(df)$		-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56.8	43.2	100.0	44
10,000~20,000위안 미만	58.0	42.0	100.0	317
20,000~30,000위안 미만	57.4	42.6	100.0	155
30,000위안 이상	57.1	42.9	100.0	84
$\chi^2(df)$.045(3)		

희망하는 영아 돌봄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여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돌본다’는 응답이 전체의 44.7%로 가장 높았으며, ‘가정에서 돌보기가 여의치 않으므로 적합한 기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31.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조부모, 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아 가정에서 돌본다’는 응답은 23.8%로 가장 낮았다. 자녀 연령별로는 3세의 경우, 조부모나 도우미의 도움을 가장 희망하였고, 4세의 경우, 기관의 이용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df)=30.588(10)$, $p < .001$). 영유아 구분,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4-1-54 희망하는 영아 돌봄 방법

(단위: %, 명)

구분	향후 국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여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돌본다.	가정에서 돌보기가 여의치 않으므로 적합한 기관을 이용한다.	조부모, 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아 가정에서 돌본다.	계	수
전체	44.7	31.5	23.8	100.0	600
영유아 구분					
영아	45.7	30.7	23.7	100.0	300
유아	43.7	32.3	24.0	100.0	300
$\chi^2(df)$.274(2)			
자녀연령					
0세	43.0	31.0	26.0	100.0	100
1세	46.0	27.0	27.0	100.0	100
2세	48.0	34.0	18.0	100.0	100
3세	35.0	25.0	40.0	100.0	100
4세	42.0	44.0	14.0	100.0	100
5세	54.0	28.0	18.0	100.0	100
$\chi^2(df)$		30.588(10)***			
자녀 수					
1명	44.3	31.8	24.0	100.0	592
2명	75.0	12.5	12.5	100.0	8
$\chi^2(df)$		-			
모 취업 여부					
취업	44.8	31.3	23.9	100.0	591
미취업	33.3	44.4	22.2	100.0	9
$\chi^2(df)$		-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50.0	25.0	25.0	100.0	44
10,000~20,000위안 미만	42.9	30.3	26.8	100.0	317
20,000~30,000위안 미만	45.8	32.9	21.3	100.0	155
30,000위안 이상	46.4	36.9	16.7	100.0	84
$\chi^2(df)$		na			

*** $p < .001$

주: na는 χ^2 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적절한 영아 돌봄 기관 설치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0~2세 영아 전담 탁아시설 확대 설치가 전체의 76.2%로 가장 높았으며, 유아원 취원

연령 하향 조정 및 유아원 내 영아반 설치는 23.8%로 나타났다. 영유아 구분,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4-1-55 적절한 영아 돌봄 기관 설치 방안

(단위: %, 명)

구분	0-2세 영아 전담 탁아시설 확대 설치	유아원 취원연령 하향 조정 및 유아원 내 영아반 설치	계	수
전체	76.2	23.8	100.0	189
영유아 구분				
영아	81.5	18.5	100.0	92
유아	71.1	28.9	100.0	97
$\chi^2(df)$		2.809(1)		
자녀연령				
0세	83.9	16.1	100.0	31
1세	85.2	14.8	100.0	27
2세	76.5	23.5	100.0	34
3세	76.0	24.0	100.0	25
4세	61.4	38.6	100.0	44
5세	82.1	17.9	100.0	28
$\chi^2(df)$		8.093(5)		
자녀 수				
1명	76.1	23.9	100.0	188
2명	100.0	0.0	100.0	1
$\chi^2(df)$		-		
모 취업 여부				
취업	76.8	23.2	100.0	185
미취업	50.0	50.0	100.0	4
$\chi^2(df)$		-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72.7	27.3	100.0	11
10,000~20,000위안 미만	75.0	25.0	100.0	96
20,000~30,000위안 미만	80.4	19.6	100.0	51
30,000위안 이상	74.2	25.8	100.0	31
$\chi^2(df)$		-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중국 정부가 2015년 “전면적 두 자녀 허용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연변자치주는 “부부 양측이 모두 독자 또는 독녀일 경우”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지역이다(제주발전연구원중국연구센터, 2015: 4). 연변 지역의 영유아 어머니의 출산 및 출산계획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과 육아지원 인력(기관), 추가 출산 계획, 임신 및 출산 정책을 살펴보았다.

가. 출산 및 출산계획

1) 출산·육아휴직

연변지역 영유아 어머니는 출산휴가를 이용한 경험이 29.4%로 나타났다. 직업군별로는 상용근로자가 84.1%로 출산휴가 이용이 가장 높았고, 고용주가 50.0%, 자영업 22.2%, 임시근로자 17.1%로 나타났다.

표 4-2-1 출산휴가 이용 여부

구분				(단위: %, 명)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계	수
전체	29.4	70.3	0.3	100.0	303
모 직업					
고용주	50.0	50.0	0.0	100.0	2
자영업자	22.2	77.8	0.0	100.0	54
상용근로자	84.1	15.9	0.0	100.0	69
임시근로자	17.1	82.9	0.0	100.0	35
일용근로자	0.0	100.0	0.0	100.0	1
무급종사자	0.0	100.0	0.0	100.0	5
무직	5.0	95.0	0.0	100.0	119
무응답/모름	33.3	61.1	5.6	100.0	18

표 4-2-1 계속

구분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계	수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33.3	66.7	0.0	100.0	6
5,000~10,000위안 미만	52.7	47.3	0.0	100.0	91
10,000~20,000위안 미만	43.2	56.8	0.0	100.0	37
20,000~30,000위안 미만	62.5	37.5	0.0	100.0	8
30,000위안 이상	33.3	66.7	0.0	100.0	3
무직/부재/모름	10.8	88.6	0.6	100.0	158

출산휴가를 이용한 경우, 출산 전 이용일은 평균 24.01일이며, 1주 미만 이용자가 56.2%로 가장 높았으며, 4~5주 미만이 13.5%, 2~3주 미만이 12.4%, 5주 이상 10.1%, 1~2주 미만이 7.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2 출산휴가 이용일(산전)

(단위: %, 명, 일)

구분	1주 미만	1~2주 미만	2~3주 미만	4~5주 미만	5주 이상	계	수	평균
전체	56.2	7.9	12.4	13.5	10.1	100.0	89	24.01
모 직업								
고용주	100.0	0.0	0.0	0.0	0.0	100.0	1	0.00
자영업자	33.3	8.3	0.0	8.3	50.0	100.0	12	79.75
상용근로자	60.3	6.9	17.2	12.1	3.4	100.0	58	12.16
임시근로자	50.0	16.7	16.7	16.7	0.0	100.0	6	11.00
무직	50.0	0.0	0.0	33.3	16.7	100.0	6	60.00
무응답/모름	66.7	16.7	0.0	16.7	0.0	100.0	6	8.17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50.0	0.0	50.0	0.0	0.0	100.0	2	11.50
5,000~10,000위안 미만	56.3	8.3	14.6	16.7	4.2	100.0	48	13.06
10,000~20,000위안 미만	56.3	0.0	18.8	12.5	12.5	100.0	16	36.19
20,000~30,000위안 미만	40.0	0.0	0.0	0.0	60.0	100.0	5	78.00
30,000위안 이상	0.0	100.0	0.0	0.0	0.0	100.0	1	10.00
무직/부재/모름	64.7	11.8	0.0	11.8	11.8	100.0	17	29.88

출산 이후에 출산휴가 이용일 수는 평균 113.13일로 나타났으며, 120

일 이상이 50.6%로 가장 높았고, 90~100일 미만 18.0%, 90일 미만과 100~120일 미만이 15.7%의 순이었다.

표 4-2-3 출산휴가 이용일(산후)

(단위: %, 명, 일)

구분	90일 미만	90~100일 미만	100~120일 미만	120일 이상	계	수	평균
전체	15.7	18.0	15.7	50.6	100.0	89	113.13
모 직업							
고용주	0.0	0.0	0.0	100.0	100.0	1	120.00
자영업자	16.7	41.7	16.7	25.0	100.0	12	93.17
상용근로자	10.3	15.5	15.5	58.6	100.0	58	117.91
임시근로자	50.0	16.7	0.0	33.3	100.0	6	90.17
무직	33.3	16.7	0.0	50.0	100.0	6	138.00
무응답/모름	16.7	0.0	50.0	33.3	100.0	6	103.83
자녀 연령							
0세	0.0	11.1	0.0	88.9	100.0	9	130.44
1세	11.8	0.0	0.0	88.2	100.0	17	124.29
2세	37.5	12.5	0.0	50.0	100.0	16	102.06
3세	16.7	25.0	25.0	33.3	100.0	12	110.25
4세	17.6	29.4	35.3	17.6	100.0	17	100.47
5세	5.6	27.8	27.8	38.9	100.0	18	117.67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50.0	0.0	0.0	50.0	100.0	2	101.00
5,000~10,000위안 미만	12.5	16.7	12.5	58.3	100.0	48	113.17
10,000~20,000위안 미만	18.8	12.5	6.3	62.5	100.0	16	122.88
20,000~30,000위안 미만	20.0	20.0	20.0	40.0	100.0	5	106.00
30,000위안 이상	0.0	100.0	0.0	0.0	100.0	1	90.00
무직/부재/모름	17.6	23.5	35.3	23.5	100.0	17	108.76

연변지역 영유아 어머니의 출산휴가 이용일(산전·후 전체)은 평균 137.15일로 나타났고, 110일 미만이 34.8%, 150일 이상이 27.0%, 120~130일 미만과 130~140일 미만이 각각 15.7%, 110~120일 미만과 140~149일 미만이 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4 출산휴가 이용일(전체)

(단위: %, 명, 일)

구분	110일 미만	110~120일	120~130일	130~140일	140~149일	150일 이상	계	수	평균
전체	34.8	3.4	15.7	15.7	3.4	27.0	100.0	89	137.15
모 직업									
고용주	25.0	0.0	50.0	0.0	0.0	25.0	100.0	4	127.50
자영업자	39.1	4.3	4.3	13.0	4.3	34.8	100.0	23	145.26
상용근로자	28.0	4.0	22.0	20.0	2.0	24.0	100.0	50	130.36
임시근로자	60.0	0.0	0.0	0.0	0.0	40.0	100.0	5	204.00
무직	100.0	0.0	0.0	0.0	0.0	0.0	100.0	1	97.00
무응답/모름	50.0	0.0	0.0	16.7	16.7	16.7	100.0	6	120.00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50.0	0.0	0.0	50.0	0.0	0.0	100.0	2	112.50
5,000~10,000위안 미만	31.3	2.1	20.8	16.7	4.2	25.0	100.0	48	126.23
10,000~20,000위안 미만	25.0	6.3	12.5	31.3	0.0	25.0	100.0	16	159.06
20,000~30,000위안 미만	0.0	0.0	20.0	0.0	0.0	80.0	100.0	5	184.00
30,000위안 이상	100.0	0.0	0.0	0.0	0.0	0.0	100.0	1	100.00
무직/부재/모름	58.8	5.9	5.9	0.0	5.9	23.5	100.0	17	138.65

중국의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최대 158일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법적 보장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이지만, 예전에는 법정 보장일 보다 적게 사용하는 게 일반적임을 심층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법적으로 158일이요. 이게 표준이에요. 근데 이거 요즘 들어서 변한 거예요. 그 전에는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정도 사용했어요(심층면담, 2017. 7월).

한편 출산휴가가 충분한 지에 대한 연변지역 영유아 어머니의 인식은 불충분하다(매우 불충분+다소 불충분)가 55.1%로 과반수에 이르며, 충분하다(충분했음+매우충분)는 인식은 18.0%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4-2-5 출산휴가 기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① 매우 불충분	② 다소 불충분	③ 보통	④ 충분했 음	⑤ 매우 충분	①+②	③	④+⑤	계	수	평균
전체	16.9	38.2	27.0	15.7	2.2	55.1	27.0	18.0	100.0	89	2.48
모 직업											
고용주	0.0	100.0	0.0	0.0	0.0	100.0	0.0	0.0	100.0	1	2.00
자영업자	8.3	33.3	33.3	16.7	8.3	41.7	33.3	25.0	100.0	12	2.83
상용근로자	19.0	39.7	22.4	19.0	0.0	58.6	22.4	19.0	100.0	58	2.41
임시근로자	33.3	33.3	33.3	0.0	0.0	66.7	33.3	0.0	100.0	6	2.00
무직	16.7	50.0	0.0	16.7	16.7	66.7	0.0	33.3	100.0	6	2.67
무응답/모름	0.0	16.7	83.3	0.0	0.0	16.7	83.3	0.0	100.0	6	2.83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0.0	100.0	0.0	0.0	0.0	100.0	0.0	0.0	100.0	2	2.00
5,000~10,000위안 미만	16.7	37.5	27.1	18.8	0.0	54.2	27.1	18.8	100.0	48	2.48
10,000~20,000위안 미만	12.5	56.3	18.8	6.3	6.3	68.8	18.8	12.5	100.0	16	2.38
20,000~30,000위안 미만	0.0	40.0	60.0	0.0	0.0	40.0	60.0	0.0	100.0	5	2.60
30,000위안 이상	0.0	0.0	0.0	100.0	0.0	0.0	0.0	100.0	100.0	1	4.00
무직/부재/모름	29.4	17.6	29.4	17.6	5.9	47.1	29.4	23.5	100.0	17	2.53

출산휴가로 적절한 기간에 대해서는 60.0%가 180일 이상이라고 응답하였고, 120일 미만 25.6%, 150~180일 8.4%, 120~150일이 6.0%로 나타나 약 4개월 미만 혹은 약 6개월 이상이라는 양극단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6 적절한 출산휴가 기간

(단위: %, 명, 일)

구분	120일 미만	120~150일	150~180일	180일 이상	계	수	평균
전체	25.6	6.0	8.4	60.0	100.0	250	196.05
모 직업							
고용주	50.0	0.0	0.0	50.0	100.0	2	197.50
자영업자	33.3	12.8	0.0	53.8	100.0	39	197.69
상용근로자	13.4	10.4	4.5	71.6	100.0	67	223.75
임시근로자	40.7	0.0	14.8	44.4	100.0	27	170.67

표 4-2-6 계속

구분	120일 미만	120~150일	150~180일	180일 이상	계	수	평균
일용근로자	100.0	0.0	0.0	0.0	100.0	1	30.00
무급종사자	0.0	0.0	0.0	100.0	100.0	1	365.00
무직	27.2	2.9	11.7	58.3	100.0	103	178.52
무응답/모름	10.0	0.0	20.0	70.0	100.0	10	252.50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20.0	0.0	0.0	80.0	100.0	5	236.00
5,000~10,000위안 미만	22.0	9.8	8.5	59.8	100.0	82	213.46
10,000~20,000위안 미만	27.6	10.3	3.4	58.6	100.0	29	173.45
20,000~30,000위안 미만	12.5	12.5	0.0	75.0	100.0	8	250.63
30,000위안 이상	66.7	33.3	0.0	0.0	100.0	3	103.33
무직/부채/모름	27.6	1.6	10.6	60.2	100.0	123	186.85

남편의 출산동반휴가 이용 여부는 이용한 경우가 24.8%로 낮게 나타났다. 직업군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편이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이용률이 50.5%에 달하지만, 임시직/일용직인 경우는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7 배우자(남편) 출산동반휴가 이용 여부

구분				(단위: %, 명)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계	수
전체	24.8	65.7	9.6	100.0	303
부 직업					
고용주	37.5	50.0	12.5	100.0	8
자영업자	10.0	76.9	13.1	100.0	130
상용근로자	50.5	49.5	0.0	100.0	101
임시근로자	15.4	84.6	0.0	100.0	26
일용근로자	0.0	83.3	16.7	100.0	6
무급종사자	0.0	100.0	0.0	100.0	2
무직	0.0	100.0	0.0	100.0	4
부채	0.0	41.7	58.3	100.0	12
무응답/모름	28.6	50.0	21.4	100.0	14

표 4-2-7 계속

구분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계	수
가구 소득 ¹					
5,000위안 미만	50.0	33.3	16.7	100.0	6
5,000~10,000위안 미만	36.3	56.0	7.7	100.0	91
10,000~20,000위안 미만	29.7	64.9	5.4	100.0	37
20,000~30,000위안 미만	25.0	62.5	12.5	100.0	8
30,000위안 이상	0.0	100.0	0.0	100.0	3
무직/부재/모름	16.5	72.2	11.4	100.0	158

2) 출산·육아지원

연변지역 어머니의 산후조리를 도와준 사람(혹은 기관)은 친정부모 61.7%, 시부모 48.5%로 대부분 영유아의 조부모가 도와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주변 도움 없이 부부가 한 경우도 8.6%, 산후도우미/베이비시터 6.9%, 산후조리원 0.3%로 나타났다.

표 4-2-8 산후조리 도와준 사람 또는 기관(중복응답)

구분	(단위: %, 명)							
	친정부모	시부모	주변 도움없이 부부가 함께 함	산후 도우미/ 베이비시터	모름/ 무응답	산후 조리원	기타	수
전체	61.7	48.5	8.6	6.9	3.6	.3	.3	303
모 취업 여부								
취업	59.6	44.7	9.9	6.8	2.5	.6	0.0	161
미취업	64.1	52.8	7.0	7.0	4.9	0.0	.7	142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33.3	83.3	16.7	0.0	0.0	0.0	0.0	6
5,000~10,000위안 미만	70.3	42.9	7.7	8.8	0.0	1.1	0.0	91
10,000~20,000위안 미만	54.1	54.1	8.1	2.7	0.0	0.0	0.0	37
20,000~30,000위안 미만	25.0	50.0	0.0	12.5	12.5	0.0	0.0	8
30,000위안 이상	33.3	33.3	33.3	0.0	0.0	0.0	0.0	3
무직/부재/모름	62.0	49.4	8.9	7.0	6.3	0.0	.6	158

산후도우미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이용기간은 평균 48.64일로

나타났고, 30~39일 이용이 72.7%로 가장 높았고, 50일 이상이 13.6%, 30일 미만 9.1%, 40~49일이 4.5% 순이었다.

표 4-2-9 산후도우미 및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단위: %, 명, 일)

구분	30일 미만	30~39일	40~49일	50일 이상	계	수	평균
전체	9.1	72.7	4.5	13.6	100.0	22	48.64
모 취업 여부							
취업	8.3	66.7	8.3	16.7	100.0	12	59.58
미취업	10.0	80.0	0.0	10.0	100.0	10	35.50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11.1	66.7	0.0	22.2	100.0	9	68.33
10,000~20,000위안 미만	0.0	100.0	0.0	0.0	100.0	1	30.00
20,000~30,000위안 미만	0.0	100.0	0.0	0.0	100.0	1	30.00
무직/부재/모름	9.1	72.7	9.1	9.1	100.0	11	35.91

산후도우미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평균 9,172.73위안(한화 약 160만 원)으로 나타났고, 8,000위안 미만(한화 약 140만 원) 68.2%로 가장 높았고, 10,000위안~15,000위안 13.6%, 8,000~9,000위안 미만과 15,000위안 이상이 각각 9.1%로 나타났다.

표 4-2-10 산후도우미 및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단위: %, 명, 위안)

구분	8,000위안 미만	8,000~9,000위안 미만	10,000~15,000위안 미만	15,000위안 이상	계	수	평균
전체	68.2	9.1	13.6	9.1	100.0	22	9172.73
모 취업 여부							
취업	58.3	8.3	25.0	8.3	100.0	12	9708.33
미취업	80.0	10.0	0.0	10.0	100.0	10	8530.00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55.6	11.1	22.2	11.1	100.0	9	10444.44
10,000~20,000위안 미만	100.0	0.0	0.0	0.0	100.0	1	6000.00
20,000~30,000위안 미만	100.0	0.0	0.0	0.0	100.0	1	6500.00
무직/부재/모름	72.7	9.1	9.1	9.1	100.0	11	8663.64

3) 추가 출산 계획

연변지역 영유아 어머니는 향후 추가 자녀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가 10.9%, 생각 중/잘 모르겠음이 25.7%로 나타났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출산계획 있음 14.4%, 생각 중/잘 모르겠음 30.6%로 출산 여지가 있는 비율이 두 자녀가 이미 있는 가정보다 높았다.

표 4-2-11 향후 추가 자녀 계획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생각 중/ 잘 모르겠음	계	수
전체	10.9	63.4	25.7	100.0	303
자녀 수					
1명	14.4	55.0	30.6	100.0	222
2명	1.3	85.7	13.0	100.0	77
3명	0.0	100.0	0.0	100.0	4
$\chi^2(df)$			-		
모 취업 여부					
취업	9.3	62.1	28.6	100.0	161
미취업	12.7	64.8	22.5	100.0	142
$\chi^2(df)$			1.935(2)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0.0	50.0	50.0	100.0	6
5,000~10,000위안 미만	8.8	67.0	24.2	100.0	91
10,000~20,000위안 미만	10.8	67.6	21.6	100.0	37
20,000~30,000위안 미만	0.0	75.0	25.0	100.0	8
30,000위안 이상	33.3	66.7	0.0	100.0	3
무직/부재/모름	12.7	60.1	27.2	100.0	158
$\chi^2(df)$			na		

주: na는 통계검정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추가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 출산 희망 자녀 수는 평균 1.12명이며, 1명 90.9%, 2명 6.1%, 3명 3.0%로 나타났다.

표 4-2-12 추가 출산시 희망 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1명	2명	3명	계	수	평균
전체	90.9	6.1	3.0	100.0	33	1.12
모 취업 여부						
취업	93.3	6.7	0.0	100.0	15	1.07
미취업	88.9	5.6	5.6	100.0	18	1.17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87.5	12.5	0.0	100.0	8	1.13
10,000~20,000위안 미만	100.0	0.0	0.0	100.0	4	1.00
30,000위안 이상	100.0	0.0	0.0	100.0	1	1.00
무직/부재/모름	90.0	5.0	5.0	100.0	20	1.15

추가출산 시 선호하는 성별이 없는 경우가 60.6%였으며, 선호 성별이 있는 경우 남아 24.2%, 여아 15.2%로 나타났다.

표 4-2-13 추가 출산시 선호 성별

(단위: %, 명)

구분	남아	여아	선호 없음	계	수
전체	24.2	15.2	60.6	100.0	33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37.5	0.0	62.5	100.0	8
10,000~20,000위안 미만	0.0	0.0	100.0	100.0	4
30,000위안 이상	0.0	100.0	0.0	100.0	1
무직/부재/모름	25.0	20.0	55.0	100.0	20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31.5%,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18.5%, ‘교육비 부담 때문에’ 9.6%, ‘직장생활로 바빠서’ 8.9%, ‘자녀돌볼 사람이 없어서’ 8.5%, ‘개인시간이 필요해서’ 6.7%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응답은 현재 2~3명 자녀가 있는 경우에 현저하게 높았으며, 이를 제외한 이유들은 비용 부담(양

육 + 교육비)과 자녀를 대신 돌봐줄 사람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4-2-14 추가 출산 미계획 이유

(단위: %, 명)

구분	양육 비용 부담 때문에	교육비 부담 때문에	직장 생활로 비껴서	건강이 안 좋아서 ¹⁾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부모 나이가 많아서	개인 시간 ²⁾ 이 필요해서	자녀돌봄 사람 ³⁾ 없어서	기타	모름/ 무응답	계	수
전체	18.5	9.6	8.9	1.9	31.5	0.7	6.7	8.5	0.4	13.3	100.0	270
자녀 수												
1명	20.5	11.6	12.1	2.1	20.5	1.1	8.9	10.5	0.0	12.6	100.0	190
2명	14.5	5.3	1.3	1.3	55.3	0.0	1.3	3.9	1.3	15.8	100.0	76
3명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4
$\chi^2(df)$						-						
모 취업 여부												
취업	16.4	11.0	14.4	0.7	26.0	0.0	6.2	10.3	0.0	15.1	100.0	146
미취업	21.0	8.1	2.4	3.2	37.9	1.6	7.3	6.5	0.8	11.3	100.0	124
$\chi^2(df)$						6.549(7)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33.3	16.7	16.7	0.0	16.7	16.7	0.0	0.0	0.0	0.0	100.0	6
5,000~10,000위안 미만	19.3	13.3	13.3	0.0	24.1	0.0	3.6	13.3	1.2	12.0	100.0	83
10,000~20,000위안 미만	9.1	6.1	21.2	3.0	45.5	0.0	3.0	6.1	0.0	6.1	100.0	33
20,000~30,000위안 미만	12.5	0.0	25.0	0.0	25.0	0.0	12.5	12.5	0.0	12.5	100.0	8
30,000위안 이상	50.0	0.0	0.0	0.0	0.0	0.0	0.0	0.0	0.0	50.0	100.0	2
무직/부재/모름	19.6	8.7	2.2	2.9	34.1	0.7	9.4	6.5	0.0	15.9	100.0	138
$\chi^2(df)$						na						

주: 1) 불임, 질병 등 2) 자기계발, 여가 등 3) 조부모 및 친인척 등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중국 기업이나 조직이 자녀돌봄에 대해 허용적 이고 배려하는 문화이지만, “두 자녀 허용정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출산을 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부담’을 주로 꼽았다.

아이가 태어나면 일단 비용문제도 많이 들고요. 지금은 임신부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검사부터. 또 애가 크면 지금은 기저귀 값에 분유 값에. 지금은 물가도 만만치 않으니깐. 애들이 하루 먹는 과일 비용도……(심층면담, 2017. 7월).

면담참여자들은 모두 추가출산에 대한 계획은 없었으며, 육아의 어려움, 개인시간 부족, 양육비 부담 등의 이유로 추가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두 명으로 충분해요. 자유시간이 없어서요. 이제 세 명까지 낳으면 제 생활이 없어질 것 같아요(심층면담, 2017. 7월).

저도 두 명으로 충분해요. 근데 애기 아빠가 자꾸(웃음). 지금 저하고 애기아빠가 서른 살이거든요. 서른 살인데 둘째가 세 살이니깐 마흔쯤 돼서 셋째를 허용한다면 자꾸 생각한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싫어요(심층면담, 2017. 7월).

추가출산을 꺼리는 데 있어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일·가정 양립의 고충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기업이나 기관은 육아에서 만큼은 배려해 주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추가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바람직한 자녀 수는 평균 1.76명으로 나타났고, 2명 71.4%, 1명 25.8%, 3명 1.8%로 두 자녀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4-2-15 바람직한 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1명	2명	3명	모름/무응답	계	수	평균-명	t/F
전체	25.8	71.4	1.8	1.1	100.0	283	1.76	
자녀 수								-
1명	35.5	62.6	.5	1.5	100.0	203	1.65	
2명	1.3	94.7	3.9	0.0	100.0	76	2.03	
3명	0.0	75.0	25.0	0.0	100.0	4	2.25	
모 취업 여부								1.258
취업	22.5	73.5	2.0	2.0	100.0	151	1.79	
미취업	29.5	68.9	1.5	0.0	100.0	132	1.72	
가구 소득								-
5,000위안	16.7	83.3	0.0	0.0	100.0	6	1.83	
5,000~10,000위안 미만	24.4	74.4	0.0	1.2	100.0	86	1.75	
10,000~20,000위안 미만	15.2	78.8	3.0	3.0	100.0	33	1.88	
20,000~30,000위안 미만	25.0	62.5	0.0	12.5	100.0	8	1.71	
30,000위안 이상	33.3	66.7	0.0	0.0	100.0	3	1.67	
무직/부재/모름	29.3	68.0	2.7	0.0	100.0	147	1.73	

추가 출산 계획 시 두 자녀 전면 허용정책의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없음(전혀+어느정도)이 74.6%, 영향있음(어느정도+매우)이 7.8%로 새로운 정책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바람직한 자녀 수가 2명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므로 현재 1자녀인 경우 추가 출산계획을 갖기 위한 변수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국가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친다면 정책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2-16 추가 출산 계획시 두 자녀 전면 허용정책의 영향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① 전혀 영향 없음	② 어느 정도 영향 없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영향 받음	①+②	③	④+⑤	모름/ 무응답	계	수	평균	t/F
전체	51.9	22.6	16.3	7.8	74.6	16.3	7.8	1.4	100.0	283	1.80	
자녀 수												-
1명	51.7	21.7	16.3	9.4	73.4	16.3	9.4	1.0	100.0	203	1.83	
2명	52.6	26.3	14.5	3.9	78.9	14.5	3.9	2.6	100.0	76	1.69	
3명	50.0	0.0	50.0	0.0	50.0	50.0	0.0	0.0	100.0	4	2.00	
$\chi^2(df)$							na					
모 취업 여부												-0.312
취업	54.3	21.2	13.9	9.3	75.5	13.9	9.3	1.3	100.0	151	1.78	
미취업	49.2	24.2	18.9	6.1	73.5	18.9	6.1	1.5	100.0	132	1.82	
$\chi^2(df)$							2.687(4)					
가구 소득												-
5,000위안 미만	16.7	33.3	16.7	16.7	50.0	16.7	16.7	16.7	100.0	6	2.40	
5,000~10,000위안 미만	41.9	24.4	19.8	12.8	66.3	19.8	12.8	1.2	100.0	86	2.04	
10,000~20,000위안 미만	69.7	15.2	9.1	6.1	84.8	9.1	6.1	0.0	100.0	33	1.52	
20,000~30,000위안 미만	50.0	25.0	12.5	12.5	75.0	12.5	12.5	0.0	100.0	8	1.88	
30,000위안 이상	10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3	1.00	
무지/부재/모름	54.4	23.1	16.3	4.8	77.6	16.3	4.8	1.4	100.0	147	1.71	
$\chi^2(df)$							na					

4) 임신 및 출산 정책

출산휴가를 알고 있는 연변지역 영유아 어머니는 86.2%, 모르는 경우는 13.8%로 나타났고, 이용률은 35.2%로 나타났다. 출산휴가 정책의 이용 유무는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chi^2(df)=57.287(1)$, $p < .001$).

표 4-2-17 정부 지원 인지 및 이용 여부(출산휴가)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이용 유무			
	알고 있음	모름	계	수	지원 받음	지원받지 않음	계	수
전체	86.2	13.8	100.0	283	35.2	64.8	100.0	244
모 취업 여부								
취업	86.1	13.9	100.0	151	56.9	43.1	100.0	130
미취업	86.4	13.6	100.0	132	10.5	89.5	100.0	114
$\chi^2(df)$.004(1)				57.287(1)***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66.7	33.3	100.0	6	50.0	50.0	100.0	4
5,000~10,000위안 미만	88.4	11.6	100.0	86	61.8	38.2	100.0	76
10,000~20,000위안 미만	78.8	21.2	100.0	33	53.8	46.2	100.0	26
20,000~30,000위안 미만	87.5	12.5	100.0	8	71.4	28.6	100.0	7
30,000위안 이상	66.7	33.3	100.0	3	50.0	50.0	100.0	2
무직/부재/모름	87.8	12.2	100.0	147	13.2	86.8	100.0	129
$\chi^2(df)$		-				-		

*** $p < .001$

출산휴가를 이용한 경우, 만족도는 평균 3.37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불만족(매우+다소) 16.9%, 만족(약간+매우) 38.2%로 나타났다.

표 4-2-18 정부 지원 만족도(출산휴가)

(단위: %, 명, 점)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①+②	④+⑤	모름/무응답	계	수	평균
	전체	3.4	13.5	39.3	21.3	16.9	16.9	38.2	5.6	100.0	89
모 취업 여부											
취업	3.9	15.6	36.4	19.5	18.2	19.5	37.7	6.5	100.0	77	3.35
미취업	0.0	0.0	58.3	33.3	8.3	0.0	41.7	0.0	100.0	12	3.50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0.0	50.0	0.0	50.0	0.0	50.0	50.0	0.0	100.0	2	3.00
5,000~10,000위안 미만	2.1	17.0	38.3	29.8	8.5	19.1	38.3	4.3	100.0	47	3.27
10,000~20,000위안 미만	14.3	14.3	21.4	14.3	35.7	28.6	50.0	0.0	100.0	14	3.43
20,000~30,000위안 미만	0.0	20.0	60.0	0.0	0.0	20.0	0.0	20.0	100.0	5	2.75
30,000위안 이상	0.0	0.0	0.0	100.0	0.0	0.0	100.0	0.0	100.0	1	4.00
무직/부재/모름	0.0	0.0	55.0	5.0	30.0	0.0	35.0	10.0	100.0	20	3.72

출산보조금 정책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57.2%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률이 47.9%로 나타났다. 현재 취업모인 경우 66.2%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출산 보조금 정책의 인지 여부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chi^2(df)=5.168(1), p < .05$). 출산 보조금 정책의 이용 여부 또한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chi^2(df)=25.514(1), p < .001$).

표 4-2-19 정부 지원 인지 및 이용 여부(출산 보조금)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이용 유무			
	알고 있음	모름	계	수	지원 받음	지원받지 않음	계	수
전체	42.8	57.2	100.0	283	47.9	52.1	100.0	121
모 취업 여부								
취업	49.0	51.0	100.0	151	66.2	33.8	100.0	74
미취업	35.6	64.4	100.0	132	19.1	80.9	100.0	47
$\chi^2(df)$		5.168(1)*				25.514(1)***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33.3	66.7	100.0	6	100.0	0.0	100.0	2
5,000~10,000위안 미만	58.1	41.9	100.0	86	64.0	36.0	100.0	50
10,000~20,000위안 미만	51.5	48.5	100.0	33	64.7	35.3	100.0	17
20,000~30,000위안 미만	12.5	87.5	100.0	8	0.0	100.0	100.0	1
30,000위안 이상	33.3	66.7	100.0	3	0.0	100.0	100.0	1
무직/부재/모름	34.0	66.0	100.0	147	26.0	74.0	100.0	50
$\chi^2(df)$			-				-	

* $p < .05$, *** $p < .001$

출산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만족도는 평균 3.53점이며, 불만족(매우+다소) 6.8%, 만족(약간+매우) 44.1%로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2-20 정부 지원 만족도(출산 보조금)

(단위: %, 명, 점)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①+②	④+⑤	모름/ 무응답	계	수	평균
	전체	3.4	3.4	47.5	25.4	18.6	6.8	44.1			
모 취업 여부											
취업	2.0	2.0	49.0	28.6	16.3	4.1	44.9	2.0	100.0	49	3.56
미취업	10.0	10.0	40.0	10.0	30.0	20.0	40.0	0.0	100.0	10	3.40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2	3.00
5,000~10,000위안 미만	0.0	3.1	56.3	28.1	12.5	3.1	40.6	0.0	100.0	32	3.50
10,000~20,000위안 미만	9.1	0.0	27.3	45.5	9.1	9.1	54.5	9.1	100.0	11	3.50
무직/부재/모름	7.1	7.1	35.7	7.1	42.9	14.3	50.0	0.0	100.0	14	3.71

모자보건서비스는 인지도가 68.9%로 높았고, 이용률도 8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4-2-21 정부 지원 인지 및 이용 여부(모자보건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이용 유무			
	알고 있음	모름	계	수	지원 받음	지원받지 않음	계	수
전체	68.9	31.1	100.0	283	81.5	18.5	100.0	195
모 취업 여부								
취업	64.2	35.8	100.0	151	83.5	16.5	100.0	97
미취업	74.2	25.8	100.0	132	79.6	20.4	100.0	98
$\chi^2(df)$			3.290(1)				.496(1)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50.0	50.0	100.0	6	100.0	0.0	100.0	3
5,000~10,000위안 미만	68.6	31.4	100.0	86	88.1	11.9	100.0	59
10,000~20,000위안 미만	63.6	36.4	100.0	33	85.7	14.3	100.0	21
20,000~30,000위안 미만	37.5	62.5	100.0	8	33.3	66.7	100.0	3
30,000위안 이상	66.7	33.3	100.0	3	50.0	50.0	100.0	2
무직/부재/모름	72.8	27.2	100.0	147	78.5	21.5	100.0	107
$\chi^2(df)$			-				-	

모자보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94점으로 나타났고, 만족(약간+매우) 70.0%, 불만족(매우+다소) 3.8%로 만족도가 높았다.

표 4-2-22 정부 지원 만족도(모자보건서비스)

(단위: %, 명, 점)

구분	①매우 불만족	②다소 불만족	③보통	④약간 만족	⑤매우 만족	①+②	④+⑤	모름/ 무응답	계	수	평균	t/F
전체	2.5	1.3	25.6	40.0	30.0	3.8	70.0	.6	100.0	160	3.94	
모 취업 여부												1.317
취업	2.4	2.4	19.5	39.0	35.4	4.9	74.4	1.2	100.0	82	4.04	
미취업	2.6	0.0	32.1	41.0	24.4	2.6	65.4	0.0	100.0	78	3.85	
$\chi^2(df)$												6.963(5)
가구 소득												-
5,000위안 미만	0.0	0.0	0.0	33.3	66.7	0.0	100.0	0.0	100.0	3	4.67	
5,000~10,000 위안 미만	1.9	3.8	17.0	49.1	26.4	5.7	75.5	1.9	100.0	53	3.96	
10,000~20,000 위안 미만	5.6	0.0	22.2	27.8	44.4	5.6	72.2	0.0	100.0	18	4.06	
20,000~30,000 위안 미만	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1	3.00	
30,000위안 이상	0.0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1	5.00	
무직/부재/모름	2.4	0.0	32.1	38.1	27.4	2.4	65.5	0.0	100.0	84	3.88	
$\chi^2(df)$												-

자녀 보조금 정책의 인지도는 38.9%로 다소 낮게 나타났고, 이용률은 9.1%로 매우 낮았다.

표 4-2-23 정부 지원 인지 및 이용 여부(자녀 보조금)

(단위: %, 명)

구분	인지 여부				이용 유무			
	알고 있음	모름	계	수	지원 받음	지원받지 않음	계	수
전체	38.9	61.1	100.0	283	9.1	90.9	100.0	110
모 취업 여부								
취업	39.1	60.9	100.0	151	13.6	86.4	100.0	59
미취업	38.6	61.4	100.0	132	3.9	96.1	100.0	51
$\chi^2(df)$.006(1)			
					3.074(1)			

표 4-2-23 계속

구분	인지 여부				이용 유무			
	알고 있음	모름	계	수	지원 받음	지원받지 않음	계	수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16.7	83.3	100.0	6	0.0	100.0	100.0	1
5,000~10,000위안 미만	48.8	51.2	100.0	86	14.3	85.7	100.0	42
10,000~20,000위안 미만	33.3	66.7	100.0	33	0.0	100.0	100.0	11
20,000~30,000위안 미만	0.0	100.0	100.0	8				
30,000위안 이상	33.3	66.7	100.0	3	0.0	100.0	100.0	1
무직/부재/모름	37.4	62.6	100.0	147	7.3	92.7	100.0	55
$\chi^2(df)$			-				-	

자녀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만족도는 평균 3.44점이었고, 만족(약간 +매우) 40.0%, 보통 40.0%, 매우 불만족 10.0%로 나타났다.

표 4-2-24 정부 지원 만족도(자녀 보조금)

(단위: %, 명, 점)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만족	⑤ 매우만족	①+②	④+⑤	모름/ 무응답	계	수	평균
전체	10.0	40.0	20.0	20.0	10.0	40.0	10.0	100.0	10	3.44
모 취업 여부										
취업	12.5	37.5	25.0	12.5	12.5	37.5	12.5	100.0	8	3.29
미취업	0.0	50.0	0.0	50.0	0.0	50.0	0.0	100.0	2	4.00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16.7	33.3	33.3	16.7	16.7	50.0	0.0	100.0	6	3.33
무직/부재/모름	0.0	50.0	0.0	25.0	0.0	25.0	25.0	100.0	4	3.67

출산보험 가입률은 22.6%로 나타났고, 현재 취업모인 경우 35.8%, 직업군에 따라서도 상용근로자가 63.6%로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산보험의 가입 여부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chi^2(df) = 31.972(1), p < .001$).

표 4-2-25 출산보험 가입 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입함	가입하지 않음	계	수
전체	22.6	77.4	100.0	283
모 취업 여부				
취업	35.8	64.2	100.0	151
미취업	7.6	92.4	100.0	132
$\chi^2(df)$		31.972(1)***		
모 직업				
고용주	50.0	50.0	100.0	2
자영업자	12.0	88.0	100.0	50
상용근로자	63.6	36.4	100.0	66
임시근로자	15.6	84.4	100.0	32
일용근로자	0.0	100.0	100.0	1
무급종사자	0.0	100.0	100.0	5
무직	4.5	95.5	100.0	111
무응답/모름	31.3	68.8	100.0	16
$\chi^2(df)$		-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33.3	66.7	100.0	6
5,000~10,000위안 미만	38.4	61.6	100.0	86
10,000~20,000위안 미만	39.4	60.6	100.0	33
20,000~30,000위안 미만	25.0	75.0	100.0	8
30,000위안 이상	33.3	66.7	100.0	3
무직/부재/모름	8.8	91.2	100.0	147
$\chi^2(df)$		-		

*** $p < .001$

출산휴가 사용 시, 월급을 보전해주는 정도는 통상월급의 100%를 전체기간에 받은 경우가 80.0%, 일부기간에 받은 경우가 7.3%로 나타났고, 전체기간 중 통상월급의 일부를 받은 경우도 7.3%였다.

표 4-2-26 출산 휴가 중 급여 정도

(단위: %, 명)

구분	출산휴가 전체기간	출산휴가 일부기간	출산휴가 전체기간	모름/무응답	계	수
	동안 통상 월급의 100%를 받음	동안 통상 월급의 100%를 받음	동안 통상 월급의 일부를 받음			
전체	80.0	7.3	7.3	5.5	100.0	55
모 취업 여부						
취업	81.3	8.3	8.3	2.1	100.0	48
미취업	71.4	0.0	0.0	28.6	100.0	7
모 직업						
고용주	100.0	0.0	0.0	0.0	100.0	1
자영업자	75.0	0.0	0.0	25.0	100.0	4
상용근로자	82.5	7.5	10.0	0.0	100.0	40
임시근로자	66.7	33.3	0.0	0.0	100.0	3
무직	66.7	0.0	0.0	33.3	100.0	3
무응답/모름	75.0	0.0	0.0	25.0	100.0	4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84.0	0.0	12.0	4.0	100.0	25
5,000~10,000위안 미만	78.9	15.8	5.3	0.0	100.0	19
10,000~20,000위안 미만	100.0	0.0	0.0	0.0	100.0	2
30,000위안 이상	100.0	0.0	0.0	0.0	100.0	1
무직/부재/모름	62.5	12.5	0.0	25.0	100.0	8

나. 육아 실태

연변지역 영유아 어머니의 육아 실태를 주양육자, 육아시간, 부모의 육아 및 가사 참여율, 자녀의 기관 이용현황, 육아비용, 육아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육아 주체 및 육아 시간

평일에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사람은 엄마 76.2%, 친조부모 12.2%, 외조부모 7.3%, 아빠 3.0%, 베이비시터 0.3% 순이었다. 평일 주 양육자는 영유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chi^2(df)=11.849(5), p < .05$).

표 4-2-27 평일 주양육자

(단위: %, 명)

구분	엄마	아빠	친조부모	외조부모	베이비시터	모름/ 무응답	계	수
전체	76.2	3.0	12.2	7.3	0.3	1.0	100.0	303
영유아 구분								
영아	74.0	1.3	16.7	8.0	0.0	0.0	100.0	150
유아	78.4	4.6	7.8	6.5	0.7	2.0	100.0	153
	$\chi^2(df)$							
	11.849(5)*							
자녀연령								
0세	80.0	0.0	14.0	6.0	0.0	0.0	100.0	50
1세	62.0	0.0	26.0	12.0	0.0	0.0	100.0	50
2세	80.0	4.0	10.0	6.0	0.0	0.0	100.0	50
3세	84.3	2.0	7.8	2.0	0.0	3.9	100.0	51
4세	82.4	9.8	3.9	3.9	0.0	0.0	100.0	51
5세	68.6	2.0	11.8	13.7	2.0	2.0	100.0	51
	$\chi^2(df)$							
	na							
모 취업 여부								
취업	59.0	5.0	22.4	12.4	0.6	0.6	100.0	161
미취업	95.8	0.7	0.7	1.4	0.0	1.4	100.0	142
	$\chi^2(df)$							
	na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66.7	0.0	16.7	0.0	0.0	16.7	100.0	6
5,000~10,000위안 미만	50.5	4.4	26.4	18.7	0.0	0.0	100.0	91
10,000~20,000위안 미만	67.6	5.4	21.6	2.7	2.7	0.0	100.0	37
20,000~30,000위안 미만	87.5	0.0	12.5	0.0	0.0	0.0	100.0	8
30,000위안 이상	66.7	0.0	0.0	33.3	0.0	0.0	100.0	3
무직/부재/모름	93.0	1.9	1.9	1.9	0.0	1.3	100.0	158
	$\chi^2(df)$							
	-							

* $p < .05$

주: na는 통계검정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평일 주양육자의 돌봄 시간은 평균 13.20시간이며 15시간 이상 36.1%, 12~15시간 28.4%, 9~12시간 13.0%, 3~6시간 11.9%, 6~9시간 10.5% 순이었다. 유아는 평균 13.36시간, 영아는 평균 13.05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연령별로는 0~4세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

체로 주양육자의 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양육자의 평균 돌봄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돌보는 사람/기관을 보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 평일 주양육자의 돌봄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37, p < .05$).

표 4-2-28 평일 주양육자의 돌봄 시간

구분								(단위: %, 명, 시간)	
	3~6시간 미만	6~9시간 미만	9~12시간 미만	12~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계	수	평균-시간	t/F
전체	11.9	10.5	13.0	28.4	36.1	100.0	285	13.20	
영유아 구분									-1.790
영아	4.0	6.6	19.4	40.3	29.6	100.0	149	13.05	
유아	20.6	14.7	5.9	15.4	43.4	100.0	136	13.36	
자녀연령									.883
0세	0.0	2.0	28.0	50.0	20.0	100.0	50	12.34	
1세	2.0	6.0	20.0	50.0	22.0	100.0	50	12.74	
2세	10.2	12.2	10.2	20.4	46.9	100.0	49	14.08	
3세	26.2	9.5	7.1	14.3	42.9	100.0	42	13.02	
4세	14.9	17.0	4.3	19.1	44.7	100.0	47	14.21	
5세	21.3	17.0	6.4	12.8	42.6	100.0	47	12.81	
모 취업 여부									-2.237*
취업	15.0	13.7	11.8	26.1	33.3	100.0	153	12.50	
미취업	8.3	6.8	14.4	31.1	39.4	100.0	132	14.00	
가구 소득									-
5,000위안 미만	0.0	20.0	0.0	40.0	40.0	100.0	5	14.20	
5,000~10,000위안 미만	12.1	11.0	13.2	33.0	30.8	100.0	91	12.73	
10,000~20,000위안 미만	11.8	20.6	2.9	29.4	35.3	100.0	34	12.41	
20,000~30,000위안 미만	25.0	12.5	25.0	0.0	37.5	100.0	8	10.50	
30,000위안 이상	33.3	33.3	0.0	0.0	33.3	100.0	3	9.33	
무직/부재/모름	11.1	6.9	15.3	27.1	39.6	100.0	144	13.88	

* $p < .05$

자녀가 설문응답 전날 엄마와 함께한 시간은 평균 12.31시간이며, 15시간 이상이 34.0%, 12~15시간이 29.7%, 3~6시간 14.2%로 나타났다.

자녀가 영아인 경우 평균 12.35시간, 유아는 13.97시간으로 나타나 영아와 유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t=-2.089, p < .05$). 또한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t=2.175, p < .05$), 모 취업 여부($t=-3.695, p < .001$)에 따라서도 자녀가 어제 엄마와 함께 한 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2-29 자녀가 어제 엄마와 함께 한 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3시간 미만	3~6시간 미만	6~9시간 미만	9~12시간 미만	12~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모름/무응답	계	수	평균 시간	t/F
전체	0.7	14.2	11.2	9.2	29.7	34.0	1.0	100.0	303	12.31	
영유아 구분											-2.089*
영아	0.7	12.7	9.3	12.0	37.3	27.3	0.7	100.0	150	12.35	
유아	0.7	15.7	13.1	6.5	22.2	40.5	1.3	100.0	153	13.97	
자녀연령											1.117
0세	0.0	12.0	4.0	18.0	46.0	20.0	0.0	100.0	50	11.70	
1세	0.0	14.0	10.0	12.0	40.0	24.0	0.0	100.0	50	11.40	
2세	2.0	12.0	14.0	6.0	26.0	38.0	2.0	100.0	50	12.22	
3세	0.0	11.8	15.7	5.9	19.6	45.1	2.0	100.0	51	13.26	
4세	0.0	13.7	17.6	3.9	21.6	43.1	0.0	100.0	51	13.16	
5세	2.0	21.6	5.9	9.8	25.5	33.3	2.0	100.0	51	12.12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											2.175*
이용	1.1	14.9	13.3	6.1	23.8	39.2	1.7	100.0	181	12.80	
미이용	0.0	13.1	8.2	13.9	38.5	26.2	0.0	100.0	122	11.60	
모 취업 여부											-3.695***
취업	.6	24.2	13.0	8.1	23.6	29.2	1.2	100.0	161	11.33	
미취업	.7	2.8	9.2	10.6	36.6	39.4	.7	100.0	142	13.42	
가구 소득											-
5,000위안 미만	0.0	50.0	16.7	16.7	16.7	0.0	0.0	100.0	6	7.00	
5,000~10,000위안 미만	2.2	23.1	12.1	9.9	25.3	26.4	1.1	100.0	91	11.09	
10,000~20,000위안 미만	0.0	21.6	16.2	2.7	24.3	35.1	0.0	100.0	37	11.32	
20,000~30,000위안 미만	0.0	25.0	12.5	12.5	25.0	25.0	0.0	100.0	8	11.50	
30,000위안 이상	0.0	66.7	0.0	0.0	0.0	33.3	0.0	100.0	3	9.67	
무직/부재/모름	0.0	4.4	9.5	10.1	34.8	39.9	1.3	100.0	158	13.55	

* $p < .05$, *** $p < .001$

자녀가 설문응답 전날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은 평균 6.03시간으로 3~6시간 33.3%, 3시간 미만 30.4%, 15시간 이상 12.2% 순이었다. 자녀가 영아인 경우 5.73시간, 유아인 경우 11.18시간으로 유아가 더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미취업한 경우, 평균 9.60시간, 취업한 경우 평균 5.62시간으로 나타났다. 영아와 유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6.338, p < .001$). 자녀 연령($F=6.224, p < .001$),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t=6.162, p < .001$), 부 취업 여부($t=-2.652, p < .05$)에 따라서도 자녀가 어제 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0 자녀가 어제 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

구분									(단위: %, 명, 시간)		
	3시간 미만	3~6시간 미만	6~9시간 미만	9~12시간 미만	12~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모름/무응답	계	수	평균-시간	t/F
전체	30.4	33.3	9.2	4.6	7.6	12.2	2.6	100.0	303	6.03	
영유아 구분											-6.338***
영아	30.0	47.3	8.7	4.0	4.0	4.7	1.3	100.0	150	5.73	
유아	30.7	19.6	9.8	5.2	11.1	19.6	3.9	100.0	153	11.18	
자녀연령											6.224***
0세	30.0	60.0	4.0	4.0	2.0	0.0	0.0	100.0	50	3.34	
1세	36.0	48.0	4.0	4.0	6.0	2.0	0.0	100.0	50	3.98	
2세	24.0	34.0	18.0	4.0	4.0	12.0	4.0	100.0	50	6.17	
3세	21.6	23.5	13.7	3.9	11.8	21.6	3.9	100.0	51	8.31	
4세	33.3	15.7	9.8	5.9	9.8	21.6	3.9	100.0	51	7.69	
5세	37.3	19.6	5.9	5.9	11.8	15.7	3.9	100.0	51	6.78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											6.162***
이용	30.4	19.3	10.5	5.5	10.5	19.3	4.4	100.0	181	7.54	
미이용	30.3	54.1	7.4	3.3	3.3	1.6	0.0	100.0	122	3.89	
부 취업 여부											-2.652*
취업	30.3	36.5	9.6	4.4	7.4	9.6	2.2	100.0	271	5.62	
미취업	31.3	6.3	6.3	6.3	9.4	34.4	6.3	100.0	32	9.60	

표 4-2-30 계속

구분	3시간 미만	3~6 시간 미만	6~9 시간 미만	9~12 시간 미만	12~15 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모름/무응답	계	수	평균-시간	t/F
가구 소득											-
5,000위안 미만	16.7	66.7	16.7	0.0	0.0	0.0	0.0	100.0	6	4.17	
5,000~10,000위안 미만	29.7	19.8	15.4	7.7	9.9	14.3	3.3	100.0	91	7.20	
10,000~20,000위안 미만	35.1	24.3	8.1	0.0	13.5	16.2	2.7	100.0	37	6.44	
20,000~30,000위안 미만	37.5	50.0	12.5	0.0	0.0	0.0	0.0	100.0	8	3.00	
30,000위안 이상	0.0	33.3	33.3	33.3	0.0	0.0	0.0	100.0	3	7.00	
무직/부재/모름	30.4	41.1	5.1	3.8	5.7	11.4	2.5	100.0	158	5.47	

* $p < .05$, ** $p < .001$

2) 육아 및 가사 참여

부모의 육아참여 비율의 합을 100%로 놓았을 때, 어머니의 육아참여 비율은 평균 74.05%이며, 어머니가 80%이상 참여하는 경우가 52.1%로 가장 높았고, 60~80% 미만 참여하는 경우가 29.7%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참여율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영아와 유아에 따라서 어머니의 육아참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511, p < .05$). 또한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102, p < .001$).

표 4-2-31 육아 참여 비율(엄마)

(단위: %, 명)

구분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계	수	평균-%	t/F
전체	1.0	1.7	15.5	29.7	52.1	100.0	303	74.05	
영유아 구분									2.511*
영아	0.7	0.7	8.0	34.7	56.0	100.0	150	76.32	
유아	1.4	2.7	22.9	24.8	48.4	100.0	153	71.83	
자녀연령									1.632
0세	0.0	0.0	0.0	34.0	66.0	100.0	50	80.26	
1세	0.0	0.0	8.0	42.0	50.0	100.0	50	74.80	
2세	2.0	2.0	16.0	28.0	52.0	100.0	50	73.90	
3세	0.0	3.9	23.5	35.3	37.3	100.0	51	69.02	
4세	2.0	2.0	29.4	11.8	54.9	100.0	51	72.55	
5세	2.0	2.0	15.7	27.5	52.9	100.0	51	73.92	
자녀 수									-
1명	.9	1.4	14.4	32.4	50.9	100.0	222	74.25	
2명	1.3	2.6	16.9	22.1	57.1	100.0	77	74.09	
3명	0.0	0.0	50.0	25.0	25.0	100.0	4	62.50	
모 취업 여부									-5.102***
취업	1.9	2.5	24.2	31.7	39.8	100.0	161	68.96	
미취업	0.0	.7	5.6	27.5	66.2	100.0	142	79.82	

* $p < .05$, *** $p < .001$

부모의 육아참여 비율에서 아버지는 평균 25.95%로 나타났고, 20~40% 미만 참여하는 경우가 38.3%, 20%미만 참여하는 경우가 31.4%, 40~60% 미만 참여하는 경우가 27.1%로 나타났고, 60% 이상의 구간은 아주 미미하였다. 자녀가 영아일 때 아버지의 육아참여 비율은 23.68%, 유아일 때는 28.17%로 유아의 경우, 참여율이 영아보다 높았다. 영아와 유아에 따라서 아버지의 육아참여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659$, $p < .01$).

표 4-2-32 육아 참여 비율(아빠)

(단위: %, 명)

구분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계	수	평균-%	t/F
전체	31.4	38.3	27.1	1.3	2.0	100.0	303	25.95	
영유아 구분									-2.659**
영아	32.0	46.0	20.7	0.7	0.7	100.0	150	23.68	
유아	30.7	30.7	33.3	2.0	3.3	100.0	153	28.17	
자녀연령									1.919
0세	36.0	56.0	8.0	0.0	0.0	100.0	50	19.74	
1세	24.0	50.0	26.0	0.0	0.0	100.0	50	25.20	
2세	36.0	32.0	28.0	2.0	2.0	100.0	50	26.10	
3세	19.6	39.2	37.3	2.0	2.0	100.0	51	30.98	
4세	39.2	21.6	31.4	3.9	3.9	100.0	51	27.45	
5세	33.3	31.4	31.4	0.0	3.9	100.0	51	26.08	
자녀 수									-
1명	30.6	39.6	27.0	1.4	1.4	100.0	222	25.75	
2명	35.1	33.8	26.0	1.3	3.9	100.0	77	25.91	
3명	0.0	50.0	50.0	0.0	0.0	100.0	4	37.50	
부 연령									-
20대	28.8	47.5	23.7	0.0	0.0	100.0	59	23.88	
30대	32.1	35.3	29.4	1.6	1.6	100.0	187	26.22	
40대	33.3	35.7	23.8	0.0	7.1	100.0	42	27.86	
50대	33.3	66.7	0.0	0.0	0.0	100.0	3	16.67	
부재	25.0	41.7	25.0	8.3	0.0	100.0	12	27.50	
부 취업 여부									-0.625
취업	31.0	39.5	26.9	1.1	1.5	100.0	271	25.65	
미취업	34.4	28.1	28.1	3.1	6.3	100.0	32	28.47	

**p < .01

부모의 가사참여 비율의 합을 100%로 놓았을 때, 어머니의 가사참여율은 평균 72.07%로 높게 나타났고, 80%이상 참여하는 경우가 49.5%, 60~80%미만 참여하는 경우가 26.1%, 40~60%미만 참여하는 경우가 21.1%로 나타났다. 1자녀인 경우는 평균 70.96%인데 반해 3자녀인 경우는 평균 55.00%로 자녀가 많을수록 아버지와 가사분담이 더 많이 이

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 연령에 따라서 어머니의 가사 참여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542, p < .05$).

표 4-2-33 가사 참여 비율(엄마)

(단위: %, 명)									
구분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계	수	평균-%	t/F
전체	1.0	2.3	21.1	26.1	49.5	100.0	303	72.07	
영유아 구분									-1.789
영아	0.7	1.3	16.7	30.7	50.7	100.0	150	72.83	
유아	1.3	3.3	25.5	21.6	48.4	100.0	153	71.33	
자녀연령									2.542*
0세	0.0	2.0	10.0	38.0	50.0	100.0	50	72.70	
1세	2.0	0.0	32.0	30.0	36.0	100.0	50	66.00	
2세	0.0	2.0	8.0	24.0	66.0	100.0	50	79.80	
3세	0.0	0.0	23.5	29.4	47.1	100.0	51	72.25	
4세	2.0	3.9	31.4	17.6	45.1	100.0	51	70.06	
5세	2.0	5.9	21.6	17.6	52.9	100.0	51	71.67	
자녀 수									-
1명	1.4	2.3	22.5	28.4	45.5	100.0	222	70.96	
2명	0.0	2.6	14.3	20.8	62.3	100.0	77	76.17	
3명	0.0	0.0	75.0	0.0	25.0	100.0	4	55.00	
모 취업 여부									-3.631***
취업	1.2	4.3	28.0	23.6	42.9	100.0	161	68.23	
미취업	.7	0.0	13.4	28.9	57.0	100.0	142	76.43	

* $p < .05$, *** $p < .001$

아버지의 가사 참여율은 평균 28.26%로 나타났고, 20~40%미만 참여하는 경우와 40~60%미만 참여하는 경우가 각각 33.7%로 나타났고, 20%미만이 27.7%로 나타났다. 1자녀인 경우 29.04%인데 반해 3자녀인 경우 45.0%로 나타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버지가 가사에 보다 많이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34 가사 참여 비율(아빠)

(단위: %, 명)

구분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계	수	평균-%	t/F
전체	27.7	33.7	33.7	3.0	2.0	100.0	303	28.26	
영유아 구분									1.573
영아	25.3	39.3	32.7	1.3	1.3	100.0	150	27.50	
유아	30.1	28.1	34.6	4.6	2.6	100.0	153	29.00	
자녀연령									2.177
0세	22.0	38.0	38.0	2.0	0.0	100.0	50	27.30	
1세	10.0	44.0	42.0	2.0	2.0	100.0	50	34.00	
2세	44.0	36.0	18.0	0.0	2.0	100.0	50	21.20	
3세	25.5	31.4	39.2	3.9	0.0	100.0	51	28.73	
4세	33.3	21.6	37.3	2.0	5.9	100.0	51	29.94	
5세	31.4	31.4	27.5	7.8	2.0	100.0	51	28.33	
자녀 수									-
1명	26.6	33.3	35.1	2.7	2.3	100.0	222	29.04	
2명	32.5	35.1	28.6	2.6	1.3	100.0	77	25.13	
3명	0.0	25.0	50.0	25.0	0.0	100.0	4	45.00	
부 연령									-
20대	16.9	40.7	40.7	1.7	0.0	100.0	59	30.59	
30대	29.4	34.2	31.0	3.2	2.1	100.0	187	27.46	
40대	31.0	28.6	33.3	2.4	4.8	100.0	42	29.10	
50대	66.7	0.0	33.3	0.0	0.0	100.0	3	16.67	
부재	33.3	16.7	41.7	8.3	0.0	100.0	12	29.17	
부 취업 여부									1.059
취업	26.2	34.3	35.1	2.6	1.8	100.0	271	28.68	
미취업	40.6	28.1	21.9	6.3	3.1	100.0	32	24.69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중국 남성들은 대체로 양육이나 가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애가 둘 있다 보니까 노하우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간 조절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남편이) 오늘 저녁에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면 내일은 꼭 하루 같이 육아해주고 시간 분배를 잘하는 편이에요

요(심층면담, 2017. 7월).

저희 남편은 목욕도 같이 시켜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아무튼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심층면담, 2017. 7월).

개인적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 남성은 육아와 가사를 부인과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녀의 기관 이용

연변지역 영유아의 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59.1%,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40.3%, 탁아소 0.7%로 나타났다. 영아의 81.3%를 집에서 돌보고 있으며, 유아는 100.0%가 유아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0~1세에서는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2세에서 유아원 이용이 52.0%로 집에서 돌보는 비율과 유사하고, 3~5세에서는 유아원 이용이 대다수이다. 취업모의 자녀는 72.7%가 유아원을 이용하고 있고, 미취업모의 자녀는 43.7%가 유아원을 이용하고 55.6%는 집에서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이용 여부는 영유아 구분($\chi^2(df)=208.317(1)$, $p < .001$), 자녀 연령($\chi^2(df)=243.130(5)$, $p < .001$), 모 취업 여부($\chi^2(df)=26.247(1)$, $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2-35 현재 기관 이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탁아소	유아원	이용하지 않음 (집에서 돌봄)	계	수
전체	0.7	59.1	40.3	100.0	303
영유아 구분					
영아	1.3	17.3	81.3	100.0	150
유아	0.0	100.0	0.0	100.0	153
$\chi^2(df)$			208.317(1)***		
자녀연령					
0세	0.0	0.0	100.0	100.0	50
1세	4.0	0.0	96.0	100.0	50
2세	0.0	52.0	48.0	100.0	50
3세	0.0	100.0	0.0	100.0	51
4세	0.0	100.0	0.0	100.0	51
5세	0.0	100.0	0.0	100.0	51
$\chi^2(df)$			243.130(5)***		
모 취업 여부					
취업	.6	72.7	26.7	100.0	161
미취업	.7	43.7	55.6	100.0	142
$\chi^2(df)$			26.247(1)***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0.0	66.7	33.3	100.0	6
5,000~10,000위안 미만	0.0	63.7	36.3	100.0	91
10,000~20,000위안 미만	2.7	67.6	29.7	100.0	37
20,000~30,000위안 미만	0.0	75.0	25.0	100.0	8
30,000위안 이상	0.0	100.0	0.0	100.0	3
무직/부재/모름	.6	52.5	46.8	100.0	158
$\chi^2(df)$			-		

*** $p < .001$

자녀가 기관을 이용한 기간은 평균 17.13개월이며, 1~2년 미만 34.3%, 2~3년 미만 28.2%, 3개월 미만 12.2%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는 1세 평균 1개월, 2세 평균 5.23개월, 3세 평균 10.20개월, 4세 평균 17.63개월, 5세 평균 30.25개월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관 이용기간이 증가하였다($F=78.055, p < .001$). 또한 취업모의 자녀의 기관 이용기간

이 미취업모의 자녀보다 길었으며($t=3.579, p < .001$), 영아보다는 유아의 이용기간이 길었다($t=-18.933, p < .001$).

표 4-2-36 기관 이용 기간

(단위: %, 명, 개월)

구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계	수	평균(개월)	t/F
전체	12.2	8.8	7.7	34.3	28.2	8.8	100.0	181	17.13	
영유아 구분										-18.933***
영아	50.0	25.0	7.1	14.3	3.6	0.0	100.0	28	4.93	
유아	5.2	5.9	7.8	37.9	32.7	10.5	100.0	153	19.36	
자녀연령										78.055***
1세	100.0	0.0	0.0	0.0	0.0	0.0	100.0	2	1.00	
2세	46.2	26.9	7.7	15.4	3.8	0.0	100.0	26	5.23	
3세	13.7	13.7	11.8	60.8	0.0	0.0	100.0	51	10.20	
4세	2.0	3.9	9.8	51.0	33.3	0.0	100.0	51	17.63	
5세	0.0	0.0	2.0	2.0	64.7	31.4	100.0	51	30.25	
모 취업 여부										3.579***
취업	9.3	11.0	8.5	26.3	32.2	12.7	100.0	118	19.10	
미취업	17.5	4.8	6.3	49.2	20.6	1.6	100.0	63	13.43	
가구 소득										-
5,000위안 미만	0.0	0.0	50.0	25.0	25.0	0.0	100.0	4	13.50	
5,000~10,000위안 미만	8.6	8.6	8.6	34.5	31.0	8.6	100.0	58	18.50	
10,000~20,000위안 미만	15.4	3.8	3.8	19.2	38.5	19.2	100.0	26	22.04	
20,000~30,000위안 미만	16.7	0.0	16.7	0.0	66.7	0.0	100.0	6	19.33	
30,000위안 이상	0.0	0.0	0.0	66.7	33.3	0.0	100.0	3	17.67	
무직/부재/모름	14.3	11.9	6.0	40.5	20.2	7.1	100.0	84	14.65	

*** $p < .001$

자녀의 하루 평균 기관이용시간은 8시간 08분(484.78분)이며, 6~9시간 미만 89.0%, 9~12시간 미만 11.0%로 나타났다.

표 4-2-37 기관 하루 이용 시간

(단위: %, 명, 분)

구분	6~9시간 미만	9~12시간 미만	계	수	평균 분
전체	89.0	11.0	100.0	181	484.78
영유아 구분					
영아	89.3	10.7	100.0	28	496.43
유아	88.9	11.1	100.0	153	482.65
자녀연령					
1세	100.0	0.0	100.0	2	495.00
2세	88.5	11.5	100.0	26	496.54
3세	92.2	7.8	100.0	51	478.53
4세	90.2	9.8	100.0	51	480.78
5세	84.3	15.7	100.0	51	488.63
모 취업 여부					
취업	90.7	9.3	100.0	118	481.57
미취업	85.7	14.3	100.0	63	490.79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100.0	0.0	100.0	4	482.50
5,000~10,000위안 미만	86.2	13.8	100.0	58	484.22
10,000~20,000위안 미만	84.6	15.4	100.0	26	483.08
20,000~30,000위안 미만	100.0	0.0	100.0	6	465.00
30,000위안 이상	100.0	0.0	100.0	3	500.00
무직/부재/모름	90.5	9.5	100.0	84	486.67

자녀의 기관이용과 관련한 어려움은 ‘없다’는 응답이 39.2%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는 ‘부모 근로시간보다 기관 운영시간이 짧음’ 24.3%, ‘비용부담’ 8.3%, ‘집과 기관과의 거리가 20분 이상임’ 6.6%, ‘기관부족 및 대기기간’ 3.3% 순이었다.

표 4-2-38 기관 이용 시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기관 부족 (충분하지 않음) 및 대기 기간	이용 비용 부담	집에서 기관까지 의 거리가 가깝지 않음(20분 이상 걸림)	부모 근로시간 보다 기관 운영시간 이 짧음	기관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미흡	없음	기타	방학 기간	모름/ 무응답	계	수
전체	3.3	8.3	6.6	24.3	1.1	39.2	2.3	.6	14.4	100.0	181
영유아 구분											
영아	3.6	10.7	7.1	17.9	0.0	21.4	0.0	3.6	35.7	100.0	28
유아	3.3	7.8	6.5	25.5	1.3	42.5	2.6	0.0	10.5	100.0	153
자녀연령											
1세	0.0	50.0	0.0	0.0	0.0	50.0	0.0	0.0	0.0	100.0	2
2세	3.8	7.7	7.7	19.2	0.0	19.2	0.0	3.8	38.5	100.0	26
3세	0.0	7.8	5.9	25.5	2.0	49.0	2.0	0.0	7.8	100.0	51
4세	0.0	9.8	7.8	19.6	2.0	43.1	3.9	0.0	13.7	100.0	51
5세	9.8	5.9	5.9	31.4	0.0	35.3	2.0	0.0	9.8	100.0	51
모 취업 여부											
취업	4.2	9.3	5.1	29.7	1.7	36.4	3.3	.8	9.3	100.0	118
미취업	1.6	6.3	9.5	14.3	0.0	44.4	0.0	0.0	23.8	100.0	63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0.0	25.0	0.0	25.0	0.0	50.0	0.0	0.0	0.0	100.0	4
5,000~10,000위안 미만	5.2	10.3	5.2	39.7	0.0	19.0	5.1	1.7	13.8	100.0	58
10,000~20,000위안 미만	0.0	7.7	7.7	30.8	3.8	42.3	0.0	0.0	7.7	100.0	26
20,000~30,000위안 미만	16.7	0.0	0.0	16.7	16.7	33.3	0.0	0.0	16.7	100.0	6
30,000위안 이상	0.0	0.0	0.0	0.0	0.0	66.7	0.0	0.0	33.3	100.0	3
무직/부재/모름	2.4	7.1	8.3	13.1	0.0	51.2	1.2	0.0	16.7	100.0	84

연변 지역의 일부 직장에서는 자녀돌봄을 위해 근무시간을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아원의 운영시간은 대부분 정해져 있다. 오전 7시30분~8시에 개원해서 오후 5시에는 문을 닫는데, 기관에 따라서는 이보다 일찍 닫는 곳도 있다.

중국의 유아시스템 가장 큰 문제가 방과(하원)를 일찍 하는 겁니다. 세

시 반이면 집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애 같은 경우 세시 반, 여름엔 네 시입니다. 우리 퇴근 시간이 다섯신데 애는 세시 반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이러면 큰일나죠(심층면담, 2017. 7월).

유아원에 애들 데려갈 때 보면, 젊은 부모들이 거의 없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큰 문제가 이 시간문제죠. 방과 후(하원 후) 한 두시간 그 사이 시간이……(심층면담, 2017. 7월).

이를 통해 경직된 근로조건 하에 있는 경우, 유아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육아 비용

부모 이외의 주양육자에게 평일돌봄의 양육비는 ‘지불 안함’ 90.0%, 지불하는 경우는 현금지불(정기적+비정기적) 6.6%, 현물지불 3.3%로 나타났다.

표 4-2-39 평일 주양육자에게 양육비 지불 방법

구분	(단위: %, 명)					수
	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비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현물로 지불	지불 안 함	계	
전체	3.3	3.3	3.3	90.0	100.0	60
영유아 구분						
영아	0.0	2.7	2.7	94.6	100.0	37
유아	8.7	4.3	4.3	82.6	100.0	23
자녀연령						
0세	0.0	0.0	10.0	90.0	100.0	10
1세	0.0	0.0	0.0	100.0	100.0	19
2세	0.0	12.5	0.0	87.5	100.0	8
3세	0.0	20.0	0.0	80.0	100.0	5
4세	0.0	0.0	0.0	100.0	100.0	4
5세	14.3	0.0	7.1	78.6	100.0	14

표 4-2-39 계속

구분	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비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현물로 지불	지불 안 함	계	수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0.0	0.0	0.0	100.0	100.0	1
5,000~10,000위안 미만	2.4	2.4	4.9	90.2	100.0	41
10,000~20,000위안 미만	10.0	0.0	0.0	90.0	100.0	10
20,000~30,000위안 미만	0.0	0.0	0.0	100.0	100.0	1
30,000위안 이상	0.0	0.0	0.0	100.0	100.0	1
무직/부재/모름	0.0	16.7	0.0	83.3	100.0	6

심층면담에서도 개인 보모를 고용하기에는 고비용이고 또, 믿고 맡기기에 걱정이 돼서 조부모님에게 어린 손자녀 양육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조부모에게 드리는 양육비는 가정마다 차이가 있었다.

보모가 비싸니까 저는 삼천 원 드려요. 그냥 생활비죠. (많이 드리시네요?) 아니요. 애기랑 우리 같이 먹고 쓰는 생활비로 드리니까요(사례 1).

한편 평일돌봄으로 주양육자에게 현금 지불하는 경우, 월평균 양육비는 평균 1,535위안(한화 약 27만 원)으로 나타났고, 1,000~2,000위안 미만 50.0%, 1,000위안 미만이 33.3%, 5,000위안 이상이 16.7%로 나타났다.

표 4-2-40 평일 주양육자에게 지불하는 월평균 양육비

(단위: %, 명, 위안)

구분	1,000위안 미만	1,000~2,000위안 미만	5,000위안 이상	계	수	평균-위안
전체	33.3	50.0	16.7	100.0	6	1,535.00
영유아 구분						
영아	0.0	100.0	0.0	100.0	2	1,000.00
유아	50.0	25.0	25.0	100.0	4	1,802.50
자녀연령						
0세	0.0	100.0	0.0	100.0	1	1,000.00
2세	0.0	100.0	0.0	100.0	1	1,000.00
3세	0.0	100.0	0.0	100.0	1	1,000.00
5세	66.7	0.0	33.3	100.0	3	2,070.00
가구 소득						
5,000~10,000위안 미만	25.0	50.0	25.0	100.0	4	1,825.00
10,000~20,000위안 미만	100.0	0.0	0.0	100.0	1	910.00
무직/부재/모름	0.0	100.0	0.0	100.0	1	1,000.00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월평균 비용은 696.93위안(한화 약 12만원)이었고, 500~1,000위안 미만 65.2%, 500위안 미만 29.8%, 1,000~2,000위안 미만 5.0%로 나타났다.

표 4-2-41 기관 월 평균 이용비

(단위: %, 명, 위안)

구분	500위안 미만	500~1,000위안	1,000~2,000위안	계	수	평균-위안
전체	29.8	65.2	5.0	100.0	181	696.93
영유아 구분						
영아	50.0	42.9	7.1	100.0	28	663.93
유아	26.1	69.3	4.6	100.0	153	702.97
자녀연령						
1세	0.0	100.0	0.0	100.0	2	650.00
2세	53.8	38.5	7.7	100.0	26	665.00
3세	25.5	68.6	5.9	100.0	51	727.35
4세	37.3	56.9	5.9	100.0	51	705.69
5세	15.7	82.4	2.0	100.0	51	675.88

표 4-2-41 계속

구분	500위안 미만	500~1,000위안	1,000~2,000위안	계	수	평균·위안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0.0	75.0	25.0	100.0	4	955.00
5,000~10,000위안 미만	34.5	62.1	3.4	100.0	58	657.41
10,000~20,000위안 미만	23.1	76.9	0.0	100.0	26	681.54
20,000~30,000위안 미만	16.7	83.3	0.0	100.0	6	704.17
30,000위안 이상	33.3	66.7	0.0	100.0	3	610.00
무직/부재/모름	31.0	61.9	7.1	100.0	84	719.29

연변지역 영유아 자녀 육아와 관련된 월평균 비용은 육아비용 1,584.32위안(한화 약 27만 원), 기관이용비 451.58위안(한화 약 7만 8천 원), 사교육비 196.11위안(한화 약 3만 4천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아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정도는 부담됨(다소+매우) 34.0%, 적절함 30.4%, 부담되지 않음(전혀+별로) 32.3%로 비슷한 비율이었고, 기관이용비는 부담되지 않음(전혀+별로) 53.8%, 적절함 32.0%, 부담됨(다소+매우) 13.5%로 부담되지 않거나 적절하다고 응답한 가구가 많았으며, 사교육비 또한 부담되지 않음(전혀+별로) 62.4%, 적절함 16.2%, 부담됨(다소+매우) 12.5%로 대체로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4-2-42 월 평균 비용과 가계부담 정도

구분	월평균 비용 (위안)	부담 정도							모름/무 응답	계 (수)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별로 부담되지 않음	③ 적절함	④ 다소 부담됨	⑤ 매우 부담됨	①+②	④+⑤		
육아 비용	1,584.32	13.2	19.1	30.4	29.7	4.3	32.3	34.0	3.3	100.0 (303)
기관이용비	451.58	15.8	38.0	32.0	10.9	2.6	53.8	13.5	.7	100.0 (303)
사교육비	196.11	32.0	30.4	16.2	7.9	4.6	62.4	12.5	8.9	100.0 (303)

5) 육아의 어려움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할 때 맡길 수 있는 사람(기관)은 조부모 70.0%, 없음(부모 직접 돌봄) 15.2%, 부모의 형제자매 8.9%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 조부모의 도움이 86.7%로 매우 높았고, 유아는 조부모 53.6%, 부모 직접 돌봄 24.2%로 나타나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인다. 자녀가 기관을 미이용하는 경우는 조부모에게 맡기는 경우가 94.3%로 현저하게 높았다.

표 4-2-43 급할 때 자녀를 맡기는 사람(기관)

(단위: %, 명)

구분	조부모 (친가, 외가)	부모의 형제자매 (삼촌, 이모)	부모의 친구, 이웃, 동료	유아원	없음 (부모가 직접 돌봄)	계	수
전체	70.0	8.9	3.0	3.0	15.2	100.0	303
영유아 구분							
영아	86.7	4.7	2.0	.7	6.0	100.0	150
유아	53.6	13.1	3.9	5.2	24.2	100.0	153
자녀연령							
0세	94.0	6.0	0.0	0.0	0.0	100.0	50
1세	96.0	0.0	0.0	2.0	2.0	100.0	50
2세	70.0	8.0	6.0	0.0	16.0	100.0	50
3세	51.0	19.6	5.9	3.9	19.6	100.0	51
4세	52.9	7.8	2.0	7.8	29.4	100.0	51
5세	56.9	11.8	3.9	3.9	23.5	100.0	51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							
이용	53.6	12.2	5.0	5.0	24.3	100.0	181
미이용	94.3	4.1	0.0	0.0	1.6	100.0	122
자녀 수							
1명	72.5	9.5	1.8	2.7	13.5	100.0	222
2명	64.9	7.8	6.5	2.6	18.2	100.0	77
3명	25.0	0.0	0.0	25.0	50.0	100.0	4
모 취업 여부							
취업	68.9	11.2	2.5	3.1	14.3	100.0	161
미취업	71.1	6.3	3.5	2.8	16.2	100.0	142

표 4-2-43 계속

구분	조부모 (친가, 외가)	부모의 형제자매 (삼촌, 이모)	부모의 친구, 이웃, 동료	유아원	없음 (부모가 직접 돌봄)	계	수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83.3	0.0	0.0	0.0	16.7	100.0	6
5,000~10,000위안 미만	75.8	6.6	2.2	2.2	13.2	100.0	91
10,000~20,000위안 미만	67.6	16.2	5.4	2.7	8.1	100.0	37
20,000~30,000위안 미만	50.0	12.5	0.0	12.5	25.0	100.0	8
30,000위안 이상	100.0	0.0	0.0	0.0	0.0	100.0	3
무직/부재/모름	67.1	8.9	3.2	3.2	17.7	100.0	158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맞벌이 가정의 경우, 육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공통적으로 자녀양육을 맡아줄 사람 또는 기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만 3세 이전의 자녀를 맡아줄 만한 기관이 없어서— 일부 사설 탁아소가 있다고 함— 조부모나 베이비시터(보모)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아이를 출산하고 일할 때 엄마로서 제일 힘든 부분은 애를 맡길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는 거죠. 엄마랑 시어머니가 교대로 봐주고 계세요 (심층면담, 2017. 7월).

저희는 아주머니(보모)를 써요. 작은 애를 봐주는. 큰 애는 유치원에 다니고요. 저는 큰 애를 19개월 때 보냈었어요(심층면담, 2017. 7월).

지금은 둘 다 유치원에 보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주머니께서 봐주셨죠(심층면담, 2017. 7월).

보모는 입주보다는 출퇴근을 하면서 주 6일을 일하며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아이를 돌본다고 한다. 비용은 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

지만, 부모들이 선호하는 조선족 출신 보모는 월 3,000元 정도이다. 이 비용은 부부 한쪽의 월급과 맞먹는 고비용이다.

한편 급하게 자녀를 돌보아야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의 수는 평균 2.41명이며, 2명 51.0%, 1명 18.3%, 4명 12.5%, 3명 1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44 급할 때 자녀 돌봄에 도움 주는 사람 수

구분	(단위: %, 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모름/무응답	계	수	평균	t/F
전체	18.3	51.0	10.1	12.5	6.2	1.9	100.0	257	2.41	
영유아 구분										-1.390
영아	14.2	59.6	8.5	13.5	3.5	0.7	100.0	141	3.02	
유아	23.3	40.5	12.1	11.2	9.5	3.4	100.0	116	5.83	
자녀연령										1.850
0세	16.0	58.0	6.0	18.0	2.0	0.0	100.0	50	2.32	
1세	12.2	65.3	10.2	10.2	2.0	0.0	100.0	49	2.24	
2세	14.3	54.8	9.5	11.9	7.1	2.4	100.0	42	2.46	
3세	34.1	31.7	12.2	14.6	4.9	2.4	100.0	41	2.23	
4세	13.9	41.7	11.1	13.9	16.7	2.8	100.0	36	2.97	
5세	20.5	48.7	12.8	5.1	7.7	5.1	100.0	39	2.35	
가구 소득										-
5,000위안 미만	0.0	80.0	20.0	0.0	0.0	0.0	100.0	5	2.20	
5,000~10,000위안 미만	24.1	54.4	8.9	5.1	6.3	1.3	100.0	79	2.23	
10,000~20,000위안 미만	14.7	52.9	11.8	14.7	5.9	0.0	100.0	34	2.53	
20,000~30,000위안 미만	33.3	33.3	16.7	0.0	16.7	0.0	100.0	6	2.33	
30,000위안 이상	0.0	33.3	0.0	33.3	0.0	33.3	100.0	3	3.00	
무직/부재/모름	16.2	48.5	10.0	16.9	6.2	2.3	100.0	130	2.49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개인시간 부족 33.3%, 급할 때 돌보아줄 사람이 없음 23.8%, 민고 맡길 수 있는 유아원 부족 11.6%, 육아비용 부담 10.9%, 사교육비 부담 8.3%, 없음 5.3%, 기관이용비용 부담 3.6%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영아일 경우, 개인시간 부족(40.0%)에 응답한 비

율이 가장 높았으며, 유아자녀의 경우 급할 때 돌봐줄 사람 부족(32.7%)에 응답한 비율이 높아 영유아간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자녀수가 많거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시간 부족에 대한 어려움 응답이 높았고, 가구소득이 비교적 낮은 가구에서 비용부담에 대한 응답이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육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과 자녀수 및 가구소득에 따라 육아지원정책이 다르게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영유아 구분($\chi^2(df)=69.906(7)$, $p < .001$) 및 자녀 기관 이용 여부($\chi^2(df)=89.857(7)$, $p < .001$),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chi^2(df)=18.408(7)$, $p < .01$).

표 4-2-45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개인 시간이 부족함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	민고 맡길 수 있는 유아원이 부족함	육아에 드는 비용이 부담됨(육아용품 등)	사교육비(학원 등)가 부담됨	없음	유아원 등 기관이용 비용이 부담됨	모름/무응답	계	수
전체	33.3	23.8	11.6	10.9	8.3	5.3	3.6	3.3	100.0	303
영유아 구분										
영아	40.0	14.7	20.0	16.7	.7	2.7	4.0	1.3	100.0	150
유아	26.8	32.7	3.3	5.2	15.7	7.8	3.3	5.2	100.0	153
$\chi^2(df)$					69.906(7)***					
자녀연령										
0세	38.0	4.0	30.0	24.0	0.0	4.0	0.0	0.0	100.0	50
1세	48.0	8.0	16.0	22.0	0.0	2.0	4.0	0.0	100.0	50
2세	34.0	32.0	14.0	4.0	2.0	2.0	8.0	4.0	100.0	50
3세	31.4	39.2	2.0	2.0	11.8	7.8	0.0	5.9	100.0	51
4세	31.4	31.4	5.9	2.0	9.8	5.9	5.9	7.8	100.0	51
5세	17.6	27.5	2.0	11.8	25.5	9.8	3.9	2.0	100.0	51
$\chi^2(df)$					na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										
이용	25.4	34.8	3.9	5.0	13.8	7.7	3.9	5.5	100.0	181
미이용	45.1	7.4	23.0	19.7	0.0	1.6	3.3	0.0	100.0	122
$\chi^2(df)$					89.857(7)***					

표 4-2-45 계속

구분	개인 시간이 부족함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원이 부족함	육아에 드는 비용이 부담됨(육아용품 등)	사교육비(학원 등)가 부담됨	없음	유아원 등 기관이용 비용이 부담됨	모름/무응답	계	수
자녀 수										
1명	35.6	23.4	12.6	9.9	5.9	5.4	4.5	2.7	100.0	222
2명	26.0	24.7	9.1	14.3	15.6	3.9	1.3	5.2	100.0	77
3명	50.0	25.0	0.0	0.0	0.0	25.0	0.0	0.0	100.0	4
$\chi^2(df)$					-					
모 취업 여부										
취업	35.4	24.2	6.2	10.6	11.2	5.0	5.6	1.9	100.0	161
미취업	31.0	23.2	17.6	11.3	4.9	5.6	1.4	4.9	100.0	142
$\chi^2(df)$					18.408(7)**					
가구 소득										
5,000위안	16.7	16.7	16.7	16.7	16.7	0.0	16.7	0.0	100.0	6
5,000~10,000위안 미만	36.3	23.1	9.9	12.1	11.0	1.1	5.5	1.1	100.0	91
10,000~20,000위안 미만	40.5	21.6	2.7	16.2	8.1	2.7	2.7	5.4	100.0	37
20,000~30,000위안 미만	37.5	37.5	12.5	0.0	0.0	12.5	0.0	0.0	100.0	8
30,000위안 이상	66.7	33.3	0.0	0.0	0.0	0.0	0.0	0.0	100.0	3
무직/부재/모름	29.7	24.1	14.6	9.5	7.0	8.2	2.5	4.4	100.0	158
$\chi^2(df)$					-					

** $p < .01$, *** $p < .001$
 주: na는 통계검정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 정도에 대한 응답으로 자녀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 양육스트레스 문항 중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④+⑤)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문항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43.2%,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36.3%,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다’ 35.3%,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34.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28.4%로 나타났다.

표 4-2-46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 정도(양육스트레스)

(단위: % (명))

문항 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④+⑤	모름/무응답	계 (수)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27.1	33.7	24.1	13.9	1.3	60.7	15.2	-	100.0 (303)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29.7	35.6	22.4	10.2	1.7	65.3	11.9	.3	100.0 (30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16.8	33.0	21.1	24.8	3.6	49.8	28.4	.7	100.0 (303)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24.1	23.8	30.7	18.8	2.3	47.9	21.1	.3	100.0 (303)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21.8	40.3	20.5	11.9	5.6	62.0	17.5	-	100.0 (303)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9.9	18.2	27.7	31.7	11.6	28.1	43.2	1.0	100.0 (303)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43.9	29.7	17.5	6.3	2.3	73.6	8.6	.3	100.0 (303)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10.6	17.8	36.6	25.4	8.9	28.4	34.3	.7	100.0 (303)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11.6	26.4	25.7	27.4	8.9	38.0	36.3	-	100.0 (303)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10.2	22.1	31.4	31.0	4.3	32.3	35.3	1.0	100.0 (303)

자녀가치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자녀가치에서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으며, 자녀는 부부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주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정서적 가치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80.2~89.4%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도구적 가치에 대한 문항들에서는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76.2%,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5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거나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

한 의무’라는 응답은 40%내외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연변지역 영유아 어머니는 부모가 되는 일에 대한 가치부여가 높고,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고 자녀의 정서적 가치는 높게 인식하며, 도구적 가치는 비교적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7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치

(단위: %(명))

문항 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④+⑤	모름/무응답	계(수)
정서적 가치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2.3	-	7.6	22.4	67.0	2.3	89.4	.7	100.0 (600)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2.0	1.7	11.6	34.7	49.8	3.6	84.5	.3	100.0 (600)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2.6	2.6	14.2	31.4	48.8	5.3	80.2	.3	100.0 (600)
도구적 가치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6	13.5	37.3	25.7	17.5	19.1	43.2	.3	100.0 (600)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2.3	5.0	16.5	34.7	41.6	7.3	76.2	-	100.0 (600)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8.6	8.3	24.1	26.7	32.3	16.8	59.1	-	100.0 (600)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12.9	15.8	31.7	25.7	13.9	28.7	39.6	-	100.0 (600)

다. 육아 정책에 대한 요구

연변 지역 영유아 어머니는 출산·양육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87.1%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영아부모인 경우,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자녀인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에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아와 유아에 따라 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4.808, p < .001$), 자녀 연령($F=3.144, p < .01$),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t=4.589, p < .001$)에 따라서도 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2-48 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 필요성

(단위: %, 명, 점)

구분	①	②	③	④	모르겠다	①+②	③+④	계	수	평균	t/F
	전적으로 지원	정도 지원	필요 없음	필요 없음							
전체	18.8	68.3	3.0	0.3	9.6	87.1	3.3	100.0	303	3.17	
영유아 구분											-4.808***
영아	17.3	78.0	1.3	0.0	3.3	95.3	1.3	100.0	150	1.94	
유아	20.3	58.8	4.6	.7	15.7	79.1	5.2	100.0	153	2.33	
자녀연령											3.144**
0세	18.0	78.0	4.0	0.0	0.0	96.0	4.0	100.0	50	3.14	
1세	20.0	80.0	0.0	0.0	0.0	100.0	0.0	100.0	50	3.20	
2세	14.0	76.0	0.0	0.0	10.0	90.0	0.0	100.0	50	3.16	
3세	19.6	56.9	5.9	0.0	17.6	76.5	5.9	100.0	51	3.17	
4세	21.6	54.9	3.9	2.0	17.6	76.5	5.9	100.0	51	3.17	
5세	19.6	64.7	3.9	0.0	11.8	84.3	3.9	100.0	51	3.18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											4.589***
이용	18.8	61.3	3.9	0.6	15.5	80.1	4.4	100.0	181	3.16	
미이용	18.9	78.7	1.6	0.0	.8	97.5	1.6	100.0	122	3.17	
자녀 수											-
1명	19.4	68.9	3.2	0.0	8.6	88.3	3.2	100.0	222	3.18	
2명	16.9	66.2	2.6	1.3	13.0	83.1	3.9	100.0	77	3.13	
3명	25.0	75.0	0.0	0.0	0.0	100.0	0.0	100.0	4	3.25	
모 취업 여부											-1.644
취업	24.8	62.7	3.7	0.6	8.1	87.6	4.3	100.0	161	3.22	
미취업	12.0	74.6	2.1	0.0	11.3	86.6	2.1	100.0	142	3.11	
가구 소득											-
5,000위안 미만	16.7	83.3	0.0	0.0	0.0	100.0	0.0	100.0	6	3.17	
5,000~10,000 위안 미만	24.2	68.1	1.1	0.0	6.6	92.3	1.1	100.0	91	3.25	
10,000~20,000 위안 미만	24.3	62.2	8.1	0.0	5.4	86.5	8.1	100.0	37	3.17	
20,000~30,000 위안 미만	25.0	62.5	12.5	0.0	0.0	87.5	12.5	100.0	8	3.13	
30,000위안 이상	0.0	33.3	33.3	0.0	33.3	33.3	33.3	100.0	3	2.50	
무직/부재/모름	14.6	70.3	1.9	0.6	12.7	84.8	2.5	100.0	158	3.13	

** $p < .01$, *** $p < .001$

심층면담을 통해서 출산은 개인(가정)의 몫이라는 생각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육아지원을 위해 비용이 저렴한 공립유치원 확충·설치,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놀이터 및 어린이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는 발견할 수 있었다.

공립유치원이 연길에 네 곳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집 근처 유치원에 다녀요(심층면담, 2017. 7월).

문화센터라든가 그런 게 아직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예전보다는 많아진 편인데 그래도 갈 곳이 부족한 거 같아요. 특히 애들 데리고 갈 만한 데가 없어요(심층면담, 2017. 7월).

한편 연변지역 영유아 어머니는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출산·육아지원 정책 1순위로 비용지원(31.8%), 공립유아원 확충(20.5%),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14.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11.4%), 자녀 건강지원(9.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영아의 경우 비용지원과 공립유아원 확충에 대한 응답비율이 60% 수준이며, 비용지원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4-2-49 우선 희망하는 출산·육아지원 정책(1순위)

(단위: %, 명)

구분	비용 지원	공립 유아원 확충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자녀 건강 관련 지원	유아원 운영 시간 연장	영유아 문화 및 놀이시설 확대	없음	모름/무응답	베이비 시터 인력 관리	계	수
전체	31.8	20.5	14.4	11.4	9.1	4.5	4.5	2.7	0.8	0.4	100.0	264
영유아 구분												
영아	36.4	25.9	11.9	7.7	10.5	2.1	3.5	2.1	0.0	0.0	100.0	143
유아	26.4	14.0	17.4	15.7	7.4	7.4	5.8	3.3	1.7	.8	100.0	121
자녀연령												
0세	47.9	22.9	10.4	8.3	8.3	2.1	0.0	0.0	0.0	0.0	100.0	48
1세	38.0	34.0	12.0	4.0	8.0	4.0	0.0	0.0	0.0	0.0	100.0	50
2세	22.2	20.0	13.3	11.1	15.6	0.0	11.1	6.7	0.0	0.0	100.0	45
3세	28.2	17.9	17.9	15.4	5.1	10.3	0.0	0.0	5.1	0.0	100.0	39
4세	33.3	2.6	12.8	23.1	10.3	12.8	5.1	0.0	0.0	0.0	100.0	39
5세	18.6	20.9	20.9	9.3	7.0	0.0	11.6	9.3	0.0	2.3	100.0	43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												
이용	25.5	15.9	16.6	15.2	7.6	6.2	6.2	4.8	1.4	.7	100.0	145
미이용	39.5	26.1	11.8	6.7	10.9	2.5	2.5	0.0	0.0	0.0	100.0	119
자녀 수												
1명	28.6	20.9	15.3	11.7	10.7	5.1	4.1	2.6	.5	.5	100.0	196
2명	40.6	20.3	10.9	10.9	4.7	1.6	6.3	3.1	1.6	0.0	100.0	64
3명	50.0	0.0	25.0	0.0	0.0	25.0	0.0	0.0	0.0	0.0	100.0	4
모 취업 여부												
취업	29.1	19.9	10.6	14.9	8.5	5.7	6.4	4.3	.7	0.0	100.0	141
미취업	35.0	21.1	18.7	7.3	9.8	3.3	2.4	.8	.8	.8	100.0	123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6
5,000~10,000위안 미만	27.4	19.0	10.7	16.7	9.5	8.3	3.6	4.8	0.0	0.0	100.0	84
10,000~20,000위안 미만	28.1	25.0	9.4	15.6	9.4	0.0	6.3	6.3	0.0	0.0	100.0	32
20,000~30,000위안 미만	14.3	28.6	28.6	0.0	0.0	14.3	14.3	0.0	0.0	0.0	100.0	7
30,000위안 이상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
무직/부재/모름	35.8	18.7	17.2	8.2	9.7	3.0	4.5	.7	1.5	.7	100.0	134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출산·육아지원 정책의 1순위와 1+2순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4-2-50>와 같다. 1+2순위를 살펴보면 영유아 어머니의

요구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공립유아원 확충, 자녀건강 지원, 영유아 문화 및 놀이시설 확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다.

표 4-2-50 우선 희망하는 출산·육아지원 정책: 1순위, 1+2순위 비교

(단위: %, 명)

구분	비용 지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공립 유아원 확충	자녀 건강 관련 지원	영유아 문화 및 놀이시설 확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확대	유아원 운영 시간 연장	없음	베이비 시터 인력 관리	모름/무응답	수
1순위	31.8	14.4	20.5	9.1	4.5	11.4	4.5	2.7	.4	.8	264
1+2순위	51.9	33.3	26.5	26.1	22.0	15.2	11.4	10.2	1.9	1.1	264

연변지역 영유아 어머니는 직장에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하는지에 대해 지원 필요(전적으로+어느 정도) 81.2%, 지원 필요 없음 4.3%로 직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영아 부모일 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직장지원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직장의 지원필요 수준에 대한 요구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chi^2(df)=8.290(3), p < .05$), 영유아 구분($\chi^2(df)=29.799(3), p < .001$)과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chi^2(df)=36.210(3), 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2-51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직장의 지원필요 수준에 대한 요구

(단위: %, 명)

구분	① 전적으로 지원	② 어느 정도 지원	③ 별로 지원할 필요 없음	모르겠다	①+②	③+④	계	수	평균	t/F
전체	8.9	72.3	4.3	14.5	81.2	4.3	100.0	303	3.05	
영유아 구분										-4.577***
영아	5.3	86.0	.7	8.0	91.3	0.7	100.0	150	2.19	
유아	12.4	58.8	7.8	20.9	71.2	5.9	100.0	153	2.58	
$\chi^2(df)$					29.799(3)***					
자녀연령										4.110**
0세	4.0	90.0	2.0	4.0	94.0	2.0	100.0	50	3.02	
1세	4.0	94.0	0.0	2.0	98.0	0.0	100.0	50	3.04	
2세	8.0	74.0	0.0	18.0	82.0	0.0	100.0	50	3.10	
3세	13.7	56.9	9.8	19.6	70.6	9.8	100.0	51	3.05	
4세	7.8	54.9	7.8	29.4	62.7	7.8	100.0	51	3.00	
5세	15.7	64.7	5.9	13.7	80.4	5.9	100.0	51	3.11	
$\chi^2(df)$					na					
자녀의 기관 이용여부										4.350***
이용	12.2	59.7	6.6	21.5	71.8	6.6	100.0	181	3.07	
미이용	4.1	91.0	.8	4.1	95.1	.8	100.0	122	3.03	
$\chi^2(df)$					36.210(3)***					
자녀 수										-
1명	7.7	74.8	3.6	14.0	82.4	3.6	100.0	222	3.05	
2명	13.0	63.6	6.5	16.9	76.6	6.5	100.0	77	3.08	
3명	0.0	100.0	0.0	0.0	100.0	0.0	100.0	4	3.00	
$\chi^2(df)$					na					
모 취업 여부										2.188*
취업	11.8	72.0	5.6	10.6	83.9	5.6	100.0	161	3.07	
미취업	5.6	72.5	2.8	19.0	78.2	2.8	100.0	142	3.03	
$\chi^2(df)$					8.290(3)*					
가구 소득										-
5,000위안 미만	0.0	83.3	0.0	16.7	83.3	0.0	100.0	6	3.00	
5,000~10,000위안 미만	15.4	74.7	2.2	7.7	90.1	2.2	100.0	91	3.14	
10,000~20,000위안 미만	2.7	78.4	10.8	8.1	81.1	10.8	100.0	37	2.91	
20,000~30,000위안 미만	12.5	62.5	12.5	12.5	75.0	12.5	100.0	8	3.00	
30,000위안 이상	0.0	33.3	0.0	66.7	33.3	0.0	100.0	3	3.00	
무직/부재/모름	7.0	70.3	3.8	19.0	77.2	3.8	100.0	158	3.04	
$\chi^2(df)$					na					

* $p < .05$, ** $p < .01$, *** $p < .001$

주: na는 통계검정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연변지역 영유아 어머니는 육아지원 인프라가 충분한지에 대해 <표 4-2-52>과 같이 응답하였다. 해당 인프라가 부족하다(매우+다소)는 응답은 박물관 74.9%, 미술관 73.6%, 도서관 67.0%, 문화센터 57.8%, 놀이터 32.0%, 탁아소 27.4%, 유아원 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가능한 기관 수는 평균 유아원 3.15개, 탁아소 2.02개, 놀이터 1.80개, 문화센터 0.87개, 도서관 0.73개, 박물관 0.51개, 미술관 0.48개 순이었다.

표 4-2-52 육아지원 인프라의 충분성

(단위: %(명, 개))

구분	충분성									이용가능 기관 수 (개)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보통	④ 약간 충분	⑤ 매우 충분	①+②	④+⑤	모름/ 무응답	계 (수)	
탁아소	9.9	17.5	31.4	22.8	11.6	27.4	34.3	6.9	100.0(303)	2.02
유아원	4.6	8.3	28.4	39.9	17.2	12.9	57.1	1.7	100.0(303)	3.15
놀이터	13.9	18.2	37.3	23.8	5.0	32.0	28.7	2.0	100.0(303)	1.80
도서관	33.0	34.0	21.5	6.6	1.3	67.0	7.9	3.6	100.0(303)	0.73
미술관	39.3	34.3	14.5	6.3	1.0	73.6	7.3	4.6	100.0(303)	0.48
박물관	44.2	30.7	13.9	5.3	1.7	74.9	6.9	4.3	100.0(303)	0.51
문화센터	30.7	27.1	26.7	9.6	.7	57.8	10.2	5.3	100.0(303)	0.87

우리나라는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영아를 위한 공적인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아 이용기관이 필요한지를 설문한 결과, 연변지역 영유아 어머니의 50.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영아 어머니는 45.3%, 유아 어머니는 56.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2~5세 어머니에서, 가구소득이 5,000~30,000위안 미만인 가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4-2-53 영아 이용기관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모름/무응답	계	사례수
전체	50.8	46.5	2.6	100.0	303
영유아 구분					
영아	45.3	54.7	0.0	100.0	150
유아	56.2	38.6	5.2	100.0	153
자녀연령					
0세	34.0	66.0	0.0	100.0	50
1세	36.0	64.0	0.0	100.0	50
2세	66.0	34.0	0.0	100.0	50
3세	51.0	33.3	15.7	100.0	51
4세	58.8	41.2	0.0	100.0	51
5세	58.8	41.2	0.0	100.0	51
모 취업 여부					
취업	59.6	39.1	1.2	100.0	161
미취업	40.8	54.9	4.2	100.0	142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16.7	66.7	16.7	100.0	6
5,000~10,000위안 미만	61.5	37.4	1.1	100.0	91
10,000~20,000위안 미만	62.2	37.8	0.0	100.0	37
20,000~30,000위안 미만	75.0	25.0	0.0	100.0	8
30,000위안 이상	33.3	66.7	0.0	100.0	3
무직/부재/모름	42.4	53.8	3.8	100.0	158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장경제를 시작하면서 이전의 탁아소들이 폐원하였고 현재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출산휴가가 5개월 남짓이라 어린자녀에 대한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어린 자녀를 집단양육으로 돌보는 것은 꺼려했다.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 부모들은 만 3세 전 영아를 보낼만한 탁아소가 주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저는 (탁아소가 있어도) 안 보낼 거 같아요. 애가 너무 어려서 많은 데 보내면 스트레스 받을 거 같아요(심층면담, 2017. 7월).

집단양육으로 인해 자녀가 스트레스 받거나 전염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부모들은 어린 자녀는 가정에서 개별양육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어떻게 돌보기를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 돌보는 비율이 67.3%, 가정이 여의치 않으므로 적합한 기관 이용이 26.4%로 나타나 가정양육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확대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은 37.3%, 조부모/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아 가정돌봄이 30.0%로 나타났다. 취업모는 육아휴직확대를 통한 부모직접돌봄 44.7%, 조부모 등의 도움을 받아 가정돌봄 19.9%으로 나타나 부모직접돌봄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2-54 희망하는 영아 돌봄 방법

(단위: %, 명)

구분	향후 국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여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돌본다.	조부모, 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아 가정에서 돌본다.	가정에서 돌보기가 여의치 않으므로 적합한 기관을 이용한다.	모름/무응답	기타	계	수
전체	37.3	30.0	26.4	5.9	.3	100.0	303
영유아 구분							
영아	25.3	50.7	22.7	0.7	0.7	100.0	150
유아	49.0	9.8	30.1	11.1	0.0	100.0	153
자녀연령							
0세	10.0	70.0	20.0	0.0	0.0	100.0	50
1세	22.0	62.0	16.0	0.0	0.0	100.0	50
2세	44.0	20.0	32.0	2.0	2.0	100.0	50
3세	41.2	3.9	29.4	25.5	0.0	100.0	51
4세	54.9	11.8	27.5	5.9	0.0	100.0	51
5세	51.0	13.7	33.3	2.0	0.0	100.0	51
자녀 수							
1명	34.7	32.9	25.7	6.3	.5	100.0	222
2명	45.5	22.1	28.6	3.9	0.0	100.0	77
3명	25.0	25.0	25.0	25.0	0.0	100.0	4

표 4-2-54 계속

구분	향후 국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여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돌본다.	조부모, 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아 가정에서 돌본다.	가정에서 돌보기가 여의치 않으므로 적합한 기관을 이용한다.	모름/무응답	기타	계	수
모 취업 여부							
취업	44.7	19.9	29.8	5.0	.6	100.0	161
미취업	28.9	41.5	22.5	7.0	0.0	100.0	142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33.3	33.3	16.7	16.7	0.0	100.0	6
5,000~10,000위안 미만	45.1	20.9	30.8	3.3	0.0	100.0	91
10,000~20,000위안 미만	40.5	27.0	29.7	2.7	0.0	100.0	37
20,000~30,000위안 미만	37.5	12.5	50.0	0.0	0.0	100.0	8
30,000위안 이상	33.3	33.3	0.0	33.3	0.0	100.0	3
무직/부재/모름	32.3	36.7	22.8	7.6	.6	100.0	158

위 문항에서 가정돌봄이 여의치 않으므로 적합한 기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어머니에게 적절한 영아돌봄 기관 설치 방안을 설문한 결과, 0~2세 영아 전담 탁아시설 확대설치가 66.3%, 유아원 내 영아반 설치 26.3%로 영아 전담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표 4-2-55 적절한 영아 돌봄 기관 설치 방안

구분	0-2세 영아 전담 탁아시설 확대 설치	유아원 취원연령 하향 조정 및 유아원 내 영아반 설치	모름/무응답	계	수
전체	66.3	26.3	7.5	100.0	80
영유아 구분					
영아	73.5	26.5	0.0	100.0	34
유아	60.9	26.1	13.0	100.0	46
자녀연령					
0세	80.0	20.0	0.0	100.0	10
1세	62.5	37.5	0.0	100.0	8
2세	75.0	25.0	0.0	100.0	16
3세	46.7	40.0	13.3	100.0	15
4세	50.0	35.7	14.3	100.0	14
5세	82.4	5.9	11.8	100.0	17

표 4-2-55 계속

구분	0-2세 영아 전담 탁아시설 확대 설치	유아원 취원연령 하향 조정 및 유아원 내 영아반 설치	모름/무응답	계	수
자녀 수					
1명	68.4	24.6	7.0	100.0	57
2명	63.6	27.3	9.1	100.0	22
3명	0.0	100.0	0.0	100.0	1
모 취업 여부					
취업	64.6	29.2	6.3	100.0	48
미취업	68.8	21.9	9.4	100.0	32
가구 소득					
5,000위안 미만	100.0	0.0	0.0	100.0	1
5,000~10,000위안 미만	57.1	32.1	10.7	100.0	28
10,000~20,000위안 미만	63.6	36.4	0.0	100.0	11
20,000~30,000위안 미만	75.0	25.0	0.0	100.0	4
무직/부재/모름	72.2	19.4	8.3	100.0	36

3.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가.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1) 추가 출산계획의 영향 요인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을 기준 범주로 하여,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 대비 없는 사람 및 생각중이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3-1 추가 출산 계획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기준: 계획 있음		생각중(잘모르겠음)	
	없음			
	β	Exp(β)	β	Exp(β)
절편	2.497		4.423	
총 자녀수	2.526***	12.504	.618	1.856
취학전 자녀수	1.090	2.974	-.109	.897
가장 어린 자녀 연령	.183	1.201	.353	1.423
바람직한 자녀수	-4.631***	.010	-2.945***	.053
두 자녀 허용 정책 영향	-.459**	.632	.018	1.018
부담 정도				
육아비용	.091	1.095	.630**	1.877
기관비용	.428*	1.535	.204	1.226
사교육비용	-.294	.745	-.242	.785
급할때 맡길 사람수	-.219	.803	-.301*	.740
연령				
부	-.014	.986	.076	1.079
모	.153	1.165	.060	1.061
자녀양육부담평균	-.035	.966	-.124	.884
자녀가치평균	-.461	.631	-1.097**	.334
모 평일 근로시간	.170	1.186	-.064	.938
자녀와보내는시간	.064	1.067	.052	1.053
기관 이용안함	.950	2.586	1.485*	4.413
$\chi^2(df)$	272.790(df=32)***			
-2LL	643.665			
N	518			

* $p < .05$, ** $p < .01$, *** $p < .001$

우선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추가 출산계획을 가질 가능성보다 추가 출산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12.5배 정도 높았으며($\beta=2.526$, $\text{Exp}(\beta)=12.504$, $p < .001$), 자녀에게 지출되는 비용의 부담정도에서는 기관비용이 가계에 부담된다고 느낄수록 추가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보다 없을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beta=.428$, $\text{Exp}(\beta)=1.535$, $p < .05$).

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beta=-4.631$, $\text{Exp}(\beta)=.010$,

$p < .001$), 그리고 정부에서 두 자녀 전면 허용정책이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추가 출산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459$, $\text{Exp}(\beta) = .632$, $p < .01$).

한편 바람직한 자녀수가 많을수록($\beta = -2.945$, $\text{Exp}(\beta) = .053$, $p < .001$), 급할 때 자녀를 맡길만한 사람이 많을수록($\beta = -.301$, $\text{Exp}(\beta) = .0740$, $p < .05$), 그리고 자녀에 대한 태도 및 가치가 높을수록($\beta = -1.097$, $\text{Exp}(\beta) = .334$, $p < .01$) 추가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에 비해 생각중이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자녀의 육아 비용이 가계에 부담정도가 크다고 느낄수록($\beta = .630$, $\text{Exp}(\beta) = 1.877$, $p < .01$),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이용하지 않는 경우 추가 출산계획을 하기 보다는 생각중이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485$, $\text{Exp}(\beta) = 4.413$, $p < .05$).

2) 육아 어려움의 영향 요인

자녀 양육 어려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육아비용에 대한 가계 부담정도, 엄마의 평일 근로시간, 엄마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평일), 아빠의 육아 참여율, 기관 이용으로 나타났다.

표 4-3-2 자녀 양육 어려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β	S.E
상수	1.754	
총 자녀수	.116	.076
취학전 자녀수	.059	.025
가장 어린 자녀 연령	.069*	.154
부담 정도		
육아비용	.119***	.031
기관비용	.067	.035
사교육비용	-.006	.036
급할 때 맡길 사람 수	-.024	.026
연령		
부	-.001	.017
모	.010	.020
자녀가치평균	-.065	.052
모 평일 근로시간	.064*	.026
자녀와 함께시간	.021**	.007
부 육아참여율	-.008**	.002
기관이용	-.246*	.102
R^2	.136	
F	6.525($df=14$)***	
N	592	

* $p < .05$, ** $p < .01$, *** $p < .001$

우선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beta=.069$, $p < .05$), 육아비용의 가계 부담이 크다고 느낄수록($\beta=.119$, $p < .001$) 그리고 엄마의 평일 근로시간이 길수록($\beta=.064$, $p < .05$),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beta=.021$, $p < .01$)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아빠의 육아참여율이 높을수록($\beta=-.008$, $p < .01$),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자녀가 기관을 이용할수록($\beta=-.246$, $p < .05$)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에 대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정도, 엄마의 연령, 아빠가 평일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으로 확인되었다.

표 4-3-3 자녀에 대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β	S.E
상수	3.432***	.587
총 자녀수	.019	.061
취학전 자녀수	.137	.089
가장 어린 자녀 연령	.026	.025
부담 정도		
육아비용	.044	.026
기관비용	-.019	.028
사교육비용	-.066*	.029
모 연령	.026**	.010
자녀양육어려움정도	-.043	.033
평일 자녀와 함께 시간		
모	-.001	.008
부	.026**	.010
ln(가구 근로소득)	-.041	.055
기관이용(기준-안함)	.016	.083
R^2		.069
F		3.602(df=12)***
N		595

* $p < .05$, ** $p < .01$, *** $p < .001$

사교육 비용에 대한 가계 부담이 크다고 느낄수록($\beta = -.066$, $p < .05$) 자녀에 대한 가치를 높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엄마의 연령이 높을수록($\beta = .026$, $p < .01$), 그리고 아빠가 평일에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beta = .026$, $p < .01$) 자녀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나.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1) 추가 출산계획의 영향 요인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을 기준 범주로 하여,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 대비 없는 사람 및 생각중이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3-4 추가 출산 계획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기준: 계획 있음		생각중(잘모르겠음)	
	없음			
	β	Exp(β)	β	Exp(β)
절편	4.750		5.599	
가장 어린 자녀 연령	.794	2.213	.833	2.300
바람직한 자녀수	-3.450*	.032	-2.351	.095
두자녀 허용 정책 영향	-.615	.541	-.344	.709
부담 정도				
육아비용	1.069*	2.914	.993*	2.698
기관비용	-.078	.925	.053	1.055
사교육비용	-.466	.627	-.602	.548
급할때 맡길 사람수	.182	1.199	.017	1.017
모 연령	.330**	1.391	.111	1.117
자녀양육부담평균값	-.584	.558	-.607	.545
자녀가치평균값	-2.277**	.103	-1.380	.252
엄마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	.057	1.059	.056	.915
기관 이용안함	3.213*	24.850	2.232	9.321
$\chi^2(df)$	61.575(df=24)***			
-2LL	255.946			
N	202			

* $p < .05$, ** $p < .01$, *** $p < .001$

우선 육아비용의 가계부담 정도가 크다고 느낄수록 추가 출산계획을 가질 가능성보다 추가 출산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2.914배 정도 높았으며

($\beta=1.1069$, $\text{Exp}(\beta)=2.914$, $p < .05$), 엄마의 연령이 많을수록($\beta=.330$, $\text{Exp}(\beta)=1.391$, $p < .01$),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추가 출산계획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3.213$, $\text{Exp}(\beta)=24.850$, $p < .05$). 반면, 바람직한 자녀수가 많을수록($\beta=-3.450$, $\text{Exp}(\beta)=.032$, $p < .05$), 자녀에 대한 태도 및 가치가 높을수록 추가로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2.277$, $\text{Exp}(\beta)=.103$, $p < .01$).

한편 추가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에 비해 생각중이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육아비용의 가계 부담 정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육아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크다고 느낄수록 추가로 출산을 계획하기보다는 생각중이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beta=.993$, $\text{Exp}(\beta)=2.698$, $p < .05$).

2) 육아 어려움의 영향 요인

연변 지역의 자녀 양육 어려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관이용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클수록($\beta=.122$, $p < .05$) 양육 어려움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자녀 양육 어려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β	S.E
상수	2.452***	.601
총 자녀수	-.197*	.098
취학전 자녀수	.427	.439
부담 정도		
육아비용	.059	.045
기관비용	.122*	.061
사교육비용	-.114*	.044
급할 때 맡길 사람 수	-.087*	.033
모 연령	.011	.012
자녀 가치 평균값	-.057	.071
엄마와 자녀와 함께 시간	-.007	.008
부 육아참여율	-.004	.002
기관이용	-.043	.112
R^2		.117
F		2.558(df=11)**
N		224

* $p < .05$, ** $p < .01$, *** $p < .001$

반면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beta = -.197$, $p < .05$), 사교육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고 느낄수록($\beta = -.114$, $p < .05$), 급할 때 맡길 사람이 많을수록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 = -.087$, $p < .05$).

3) 자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에 대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총 자녀수, 기관 비용에 대한 부담정도, 엄마의 연령, 자녀양육의 어려움 정도와 기관 이용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자녀에 대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구분	β	S.E
상수	2.186*	1.071
총 자녀수	-.255*	.098
취학전 자녀수	.385	.424
부담 정도		
육아비용	.005	.046
기관비용	.138*	.062
사교육비용	-.074	.042
모 연령	.024*	.012
자녀양육 어려움	-.174*	.071
평일 자녀와 시간		
모	-.009	.010
부	.016	.010
ln(가구 근로소득)	.157	.102
기관이용(기준·안함)	-.563***	.118
R^2		.172
F		3.363(df=11)***
N		189

* $p < .05$, ** $p < .01$, *** $p < .001$

연변 지역의 경우,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beta = -.255$, $p < .05$),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도가 크다고 느낄수록($\beta = -.174$, $p < .05$), 기관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기관을 이용할수록($\beta = -.563$, $p < .001$), 자녀에 대한 가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기관 이용 비용의 부담정도가 클수록($\beta = .138$, $p < .05$), 엄마의 연령이 높을수록($\beta = .024$, $p < .05$), 자녀에 대한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관련 정책 요구 등을 조사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먼저 북경 지역의 출산휴가 일수는 평균 약 125일이었으며, 희망 출산휴가 일수는 154일로 나타나 30일 정도의 간극이 있었다. 이는 심층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듯이 수유기간 확보, 아이의 발달을 고려한 요구로, 최소 1년의 출산휴가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두자녀 허용 정책 도입으로 배우자의 동반 출산휴가가 확대되었는데, 동반 출산휴가는 여성의 출산휴가에 추가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배우자 동반 출산휴가를 이용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약 76%로 나타났다. 추가 출산계획에 대해서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5%, 생각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24%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추가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추가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희망 자녀수는 1명, 선호 성별은 없다고 약 58%, 여아가 28%로 여아에 대한 선호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바쁜 직장생활, 육아비용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추가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두자녀 허용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0%로 나타나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산휴가, 출산보조금, 모자보건서비스, 자녀보조금과 같은 출산 정책의 만족도를 살

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특히 모자보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출산보험 가입율은 98%로 직장이 없거나 저소득 가구의 경우 가입율이 낮았다.

둘째, 북경 지역의 육아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일 주양육자는 엄마, 다음으로 친조부모로 나타났으며, 주양육자의 돌봄시간은 평균 11시간으로 응답되었다. 평일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엄마가 약 8시간, 아빠는 약 5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모와 부의 육아참여 비율은 66:34, 가사참여 비율은 61:39로 육아와 가사의 대부분을 모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의 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약 58%는 기관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영아의 경우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약 95%로 나타났다. 현재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약 8시간이었으며, 기관 이용의 어려움으로는 비용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근로시간보다 기관 운영시간이 짧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육아비용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 주양육자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약 53%로 나타났고, 월평균 비용은 2,922위안이었으며, 기관이용 비용은 월평균 2,254위안으로 나타났다. 가계부담 정도가 가장 높은 비용은 육아비용과 기관이용 비용이었다.

넷째, 급할 때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은 조부모가 65%로 대부분 긴급할 때 조부모로부터 육아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개인시간 부족, 육아비용 부담이 언급되어 육아지원을 위한 기관 확대의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출산·육아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요구를 살펴본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2.8%로 나타나 출산·육아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크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필요한 출산·육아 정책 1순위는 출산휴가기간 확
대, 비용 지원, 공립유아원 확충 순이었다. 직장에서의 출산·육아 지원
요구도 약 95%로 높아 출산·육아를 위한 다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이상의 연변지역 영유아 어머니의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변지역 영유아 어머니 응답자의 53.1%가 취업모이며, 현재 자녀
수가 1자녀 73.3%, 2자녀 25.4%, 3자녀 1.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의 29.4%가 출산휴가 이용경험이 있고, 평균 137.15일을 사용하였으며,
이용자의 55.1%가 출산휴가기간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출산휴가
로 적절한 기간은 평균 196.05일로 나타났다. 배우자(남편)가 출산동반
휴가를 이용한 경우는 24.8%였다.

전체의 10.9%가 추가 출산 계획이 있으며, 25.7%는 생각 중으로 나타
났고, 현재 자녀가 1명인 경우, 14.4%가 출산계획이 있고, 30.6%가 생각
중으로 나타났다. 추가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희망 자녀 수는 1명인 경우
가 대다수(90.9%)이며, 선호성별이 없는 경우가 60.6%, 남아선호 24.2%,
여아선호 15.2%로 나타났다. 추가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는 현재자녀로
충분해서(31.5%)가 가장 많았고, 양육비/교육비 부담(28.1%), 직장생활
바쁘고(8.9%), 자녀 돌볼 이가 없어서(8.5%)로 나타났다. 추가 출산 계획
시 두자녀 전면 허용정책은 영향이 없는 경우(74.6%)가 많았고, 특히 가
구소득이 높을수록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바람직한 자녀 수는

71.4%가 2명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변지역의 출산을 제고를 위해서는 1자녀 가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임신 및 출산 정책 중 인지도가 높은 정책은 출산휴가(86.2%), 모자보건서비스(68.9%)이고, 이용율은 모자보건서비스(81.5%)가 가장 높고, 출산보조금(47.9%), 출산휴가(35.2%)순이며, 만족도에서도 모자보건서비스가 평균 3.94점으로 가장 높고, 출산보조금(3.53점), 자녀보조금(3.44점), 출산휴가(3.37점)순이었다. 출산보험은 전체의 22.6%가 가입하였고, 출산휴가 전체기간동안 통상월급 100%를 받은 경우가 대다수(80.0%)였다. 출산휴가가 길지는 않으나 통상월급이 대부분 100% 보존이 된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이다.

둘째, 연변 지역의 육아 실태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경우가 76.2%이며, 조부모 19.5%, 아버지 3.0%, 베이비시터 0.3%로 대부분 친족에 의해 양육되고 있었다. 한편 주양육자의 돌봄시간은 평일 평균 13.20시간이고, 일평균 자녀가 함께한 시간은 어머니가 12.31시간, 아버지가 6.03시간이다. 부모의 육아참여도는 어머니 74.05%, 아버지 25.95%였고, 가사참여도는 어머니 72.07%, 아버지 28.26%였으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변지역 영아는 81.3%가 가정에서 돌봄을 받으며, 1.3%만이 탁아소를 이용하였고, 유아는 100%가 유아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기관 이용기간은 평균 17.13개월이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약 8시간 8분이다. 기관 이용의 어려운 점은 부모 근로 시간보다 기관 운영시간이 짧다는 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셋째, 육아비용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 부모 이외의 주양육자에게는 대부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90.0%), 지불하는 경우도 평균 1,535위

안(한화 27만 원)정도로 나타났다. 기관이용 월평균 비용은 696.93위안(한화 12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34.0%는 육아비용을, 13.5%는 기관이용비용을, 12.5%는 사교육비를 부담된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급할 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조부모가 대다수이며, 없다는 응답도 15.2%로 적지 않았다. 또한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개인시간 부족(33.3%),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23.8%), 믿고 맡길 유아원 부족(11.6%), 육아비용 부담(1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 지원을 위해 중국정부가 돌봄서비스 도입과 공공 보육시설 확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섯째, 출산·육아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요구를 살펴본 결과, 출산·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대다수(87.1%)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기관 미이용 가구와 다자녀가구에서 그 응답이 높은 편이다.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정책으로는 비용지원(31.8%), 공립유아원 확충(20.5%),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14.4%), 출산/육아휴가 기간확대(11.4%)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다.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먼저 추가 출산계획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복경의 경우, 현재의 자녀 수, 비용지출 부담정도가 출산계획이 없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반면 바람직한 자녀 수, 두자녀 허용 정책의 영향 정도가 출산 계획이 있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바람직한 자녀 수, 급할 때 돌봄 지원인력 수, 높은 자녀 가치는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연변 지역은 육아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정도, 모의 연령, 기관 미이용이 출산계획이 없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바람직한 자녀 수, 높은 자녀 가치는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육아를 위한 비용 및 인력지원 방안 모색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부모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바람직한 육아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육아의 어려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북경 지역은 부의 육아참여율, 자녀의 기관이용이 육아의 어려움 정도를 낮추는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연변 지역은 총 자녀 수, 사교육 비용 부담, 급할 때 돌봄 지원인력 수가 육아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육아지원을 위해서는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확대, 비용 지원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5장 논의 및 정책적 함의

1. 요약 및 시사점
2. 주요 쟁점 및 과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인구 정책 흐름과 출산·육아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출산·육아에 대한 가치 등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및 시사점

가. 북경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북경 지역은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도입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법」에 근거하여 인구 분포를 조절·통제하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절하는 조항 역시 포함하고 있어 여전히 제한적 의미의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도입 이후, 북경시 출산 휴가에 관한 규정은 여성 근로자가 국가에서 정한 98일 출산휴가 외에 30일 동안의 출산 장려 휴가를 누릴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 동반 휴가 15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오랫동안 인구 규모를 통제해왔던 중국은 출산장려와 양육지원 관련 정책이 제한되어 있으며, 관련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단일 정책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비판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북경 지역의 부모들은 최근 중국정부의 ‘전면적 두 자녀 허용’ 정책에 대하여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수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변화로 인한 영향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출산휴가, 출산보조금, 모자보건서비스

스, 자녀보조금과 같은 출산 정책들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정책 민감도가 높아 관련 정책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출산·육아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았으며, 출산휴가 기간 확대, 비용 지원, 공립유아원 확충 등으로 다면적인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한편 추가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두자녀 허용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0%로 나타나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 출산계획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두자녀 허용 정책의 영향 정도가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정책이 단기적인 출산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 지역에서 육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은 개인시간 부족, 육아비용 부담이었으며, 부의 육아참여율, 자녀의 기관이용이 육아의 어려움 정도를 낮추는 변수로 나타나 육아지원 기관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경에서의 모와 부의 육아참여 비율은 66:34, 가사참여 비율은 61:39로 육아와 가사의 대부분을 모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영아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영아가 다닐 수 있는 기관 부재, 영아기의 특성을 고려한 육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으며,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근로시간보다 기관 운영시간이 짧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육아비용 관련해서 가계부담 정도가 가장 높은 비용은 육아비용, 기관이용 비용이었으며, 비용지출 부담 정도가 출산계획이 없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나 기관이용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립유아원 등 정부지원 기관 확대, 육아를 위한 정부의 비용 지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나. 연변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연변 지역의 경우, 15일의 결혼휴가가 규정되어 있으며, 두자녀 허용 정책 도입 후 기존의 휴가 일수인 98일에 추가로 60일을 더 이용할 수 있어 출산휴가 일수는 총 158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 북경 지역과의 큰 차이점이다. 또한 소속 근무지의 허락을 받아 출산휴가를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길림성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조례」 수정안에 따라 연변 지역에서는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재출산이 허용된다. 연변 지역에서는 자치주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재정 여건의 미비가 정책 가동의 실질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었다.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바람직한 자녀 수, 높은 자녀 가치가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였으며,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정책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면적 두자녀 허용정책이 실시되었지만 연변 지역은 일찍이 두자녀가 허용되고 세자녀까지 가능하다는 특수성 때문에 정책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자녀 수가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1자녀 가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추가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 현재 자녀로 충분,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돌봄인력 부재 등으로 나타나 저렴한 공립기관 확충, 인력 지원에 대한 정책적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변 지역에서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역시 북경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인시간 부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 믿고 맡길 유아원 부족, 육아비용 부담 순으로 나타나 육아지원을

위해 돌봄서비스 도입과 공공 보육시설 확충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변 지역에서의 모와 부의 육아참여 비율은 74:26, 가사참여 비율은 72:28로 육아와 가사의 대부분을 모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육아 및 가사 참여 비율은 북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모의 양육 및 가사 참여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변지역 영아는 대부분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아는 유아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기관 이용의 어려운 점으로 부모 근로시간보다 기관 운영 시간이 짧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편 육아비용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 기관이용과 사교육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아의 어려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총 자녀 수, 낮은 사교육 비용 부담, 급할 때 돌봄 지원인력 수가 육아의 어려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확대, 비용 지원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시사점

1) 북경과 연변 지역 출산·육아 정책의 특징

가) 출산정책의 차별성

북경 지역은 오랫동안 한자녀 제한 정책을 통해 인구 규모를 통제해 왔으나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연변 지역은 두자녀 출산과 재출산이 일부 지역에서 허용되고 있다. 북경 지역은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절하는 조항 역시 포함하고 있어 여전히 제한적 의미의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변 지역의 재출산 역시 연변 지역의 13개현에만 적용하

고 있고, 불임부부, 장애자녀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여전히 제한적 허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나) 출산휴가 유형의 다양성 및 제도 적용의 유연성

북경 지역은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도입 이후, 북경시 출산 휴가에 관한 규정은 만육(늦은 출산) 휴가를 취소했고, 출산 장려 휴가를 확대했다는 것이 정책 도입 전과의 큰 차이점이다. 북경과 연변 지역 모두 배우자의 출산 동반 휴가가 15일로 확대되었고, 배우자의 출산 동반 휴가를 여성의 출산휴가에 더해 사용할 수 있으며, 연변 지역은 15일의 결혼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외에도 난산과 다둥이 출산 시 15일씩 추가되며, 유산시에도 출산휴가가 부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중국 정부가 출산·육아 정책에 소극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길고, 상대적으로 직장에서 자유롭지 못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여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배우자 출산 휴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 생육보험 제도의 확대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복리대우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여성 근로자에

게 매우 중요하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가 노동 계약을 해지하면 안 되고 월급을 매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산보조금은 근로자 본인의 급여총액에 포함시켜야 하고, 고용주가 근로자 대신 출산보조금을 받은 후 근로자 본인에게 월별로 지급해줘야 한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이 있는 생육보험(生育保險) 가입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가입자 비율은 북경이 43.4%로 가장 높고, 연변자치주가 속한 길림성의 가입자 비율은 13.3% 정도이다. 동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경과 연변 지역 모두에서 출산 보조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2) 북경과 연변 지역 추가출산의 결정 요인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추가 출산계획의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 북경 지역은 바람직한 자녀 수, 급할 때 돌봄 지원인력 수, 높은 자녀 가치가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연변 지역 또한 바람직한 자녀 수, 높은 자녀 가치는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나 추가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은 지역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가치와 이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다수의 연구결과(이정원, 2007; 정미라·박수경·홍소영, 2003; 정혜은·진미정, 2008)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접근은 어려워나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부모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바람직한 육아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만 북경 지역에서 급할 때 돌봄 지원인력 수가 추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대리양육 지원자로서 대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조부모 주거지와와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도시 특성상 지원인력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리양육 지원 인력의 부족을 보다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대도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대리양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북경과 연변 지역 육아 어려움의 영향 요인

북경 지역 부모는 육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개인시간 부족, 육아비용 부담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연변 지역 역시 개인시간 부족, 민고말길 유아원 부족, 육아비용 부담 등에 응답한 비율이 높아 개인시간 확보에 대한 요구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육아의 어려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북경 지역은 부의 육아참여율, 자녀의 기관이용이 육아의 어려움 정도를 낮추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연변 지역은 총자녀 수, 사교육 비용 부담, 급할 때 돌봄 지원인력 수가 육아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은 부모로서 행복을 누리며, 새로운 가족을 길러내는 생산적인 과정인 동시에 양육책임과 양육지원 요구가 동반되어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김영미·송하나, 2015). 육아의 어려움은 자녀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자녀가치는 후속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므로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확대, 대리양육 인력 확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쟁점 및 과제

가.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관련 쟁점

1) 자녀 가치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수준

북경과 연변 지역 모두 추가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희망 자녀수는 1명, 선호 성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변 지역에서의 심층면담 결과에서 두 자녀를 출산한 사례들을 보면,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독자로 외롭게 성장했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둘째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자녀에 대한 가치는 지역에 상관없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관련 연구들은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녀양육비 부담, 사회적 측면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치관의 변화 및 아버지 양육참여 부족, 정책적 측면에서는 사회보장 제도의 발달로 인한 자녀에 대한 기대 감소와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으로 지적하고 있다(남정은, 2013).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저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현상 해결 위주의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수단들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저출산 해결을 위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적 대응 수준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북경과 연변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출산계획에 자녀에 대한 가치가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임을 확인한 연구 결과(정미라·박수경, 홍소영, 2013; 정혜은·진미정, 2008)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경제적 지원 보다는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출산 의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의 가치관은 쉽게 변화되기 어려우나 경험의 폭이 확대되고,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될 때 기존 가치관이 변화하게 되며(최우석, 2003), 특히 첫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양육과 일과의 양립 가능성, 후속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과 같은 개인적 여건이 반영되어 형성된다(박찬화, 2012). 따라서 이삼식, 유계숙, 윤홍식, 최효진(2008)이 제안한 바와 같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자녀관이나 가족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양육의 주체: 부모와 기관의 역할 균형

북경과 연변 지역 모두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의 육아지원을 위한 기관 확대의 요구가 컸으며, 대부분의 영아는 기관 이용을 하지 않고 부모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휴가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생후 1년간은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에서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은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는 여성의 자녀양육과 일이 출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박찬화, 2012).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여성 취업률이 급상승하면서 가사 부담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농촌 지역의 경우, 남성은 농사를 짓고, 여성은 가사를 전담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남아 있다(평단평, 2007).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북경과 연변 지역의 가사와 육아 부담율의 차이는 지역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개인 및 기관 서비스 지원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는 여성 취업률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필수 전략이다.

3) 조부모 돌봄에 대한 국가 개입 여부

북경과 연변 지역 모두 긴급할 때 자녀를 돌보는 사람으로 조부모의 비율이 높았으며, 산후조리지원 인력으로 산후도우미와 조부모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 출산 및 육아지원 인력으로 조부모의 역할이 큰 상황이다. 영유아의 성장과 양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뿐 아니라 영유아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빈번한 가족, 친구, 이웃 등 미시체계 간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Bronfenbrenner, 1979; 곽승주·강유선, 2017에서 재인용). 노령사회를 대비한 인력 활용 차원에서도 조부모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4) 대리양육 인력 양성 및 관리 요구에의 대응

조사결과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육아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공통적으로 자녀양육을 맡아줄 사람 또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만 3세 이전의 자녀를 맡아줄 만한 기관의 부재로 조부모나 베이비시터(보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기에는 고비용이기도 하고, 믿고 맡기기에 걱정이 돼서 조부모에게 어린 손자녀 양육을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조부모가 고령이거나 인근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사적으로 육아지원 인력을 고용하게 되는데, 이 때 비용부담,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정원(2007)에 의하면 취업모들은 가사와 육아 부담이 감소하고, 가족과 친척의 도움이 많을수록 긍정적 가치관을 보인다고 밝혔다. 급할 때 돌보는 사람의 수는 추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육아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양질의 대리양육 인력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5) 정책 구현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정부 역할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은 통제와 제한에서 허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는 다소 소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두 지역에서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요구가 컸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과 육아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을 개인적 차원의 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지원 체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출산·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 출산계획을 고민하고 있는 취업모,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설계·구현해야 한다.

나.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

1) 정책 방향

가) 출산·육아 정책의 다면화

한자녀 출산 기조를 유지해 온 중국에서 출산·육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부모로 국가 지원은 생육보험에 의한 출산보조금 제도,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현재의 정부 정책 중 출산보조금과 모자보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생육보험의 가입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직장이 없는 경우와 저소득 가구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을 위한 출산지원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출산 정책 중 만족도가 높고 통상임금 100%가 보장되는 출산보조금의 확대는 추가 출산을 고민하는 집단의 비용부담 해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며, 미취업모, 저소득 가구, 임시직을 위

한 출산보조금 지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한자녀 가구 대상의 정교한 정책 설계

본 연구결과, 추가출산 계획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하나는 바람직한 자녀 수였으며, 북경과 연변 지역 모두에서 바람직한 자녀 수가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양육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맞벌이가구를 위한 일·가정양립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조부모 등의 친인척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가구를 위한 시설 확충 및 돌봄서비스 등의 제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자녀수는 두자녀로 여기는 가구가 많음에도 한자녀에서 추가출산 계획이 없는 실질적 이유로 비용부담과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임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정책 과제

가) 0~2세 영아 돌봄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유아원 전 단계의 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은 친즈반 이외에는 거의 없으며 긴 시간 자녀를 맡길 수 없다. 대체적으로 영아들은 쇼핑몰 등에서 1~2시간 정도 부모가 함께 참여 하는 음, 미 체 놀이프로그램에 고비용을 지급하고 이용한다. 또한 조부모가 돌보아 줄 수 없거나 조부모가 연로하여 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보모를 고용할 수 있으나 역시 비용 부담이 있다. 우리나라도 취업모들이 대리양육을 대부분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도우미를 찾기 어렵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과 영아전담 보육시설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

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박찬화, 2012). 둘째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아자녀를 근무시간 동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대, 0~2세 영아를 돌볼 수 있는 인력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육아를 위한 탄력적 근무시간 운용 확대

연변 지역의 일부 직장에서는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는 퇴근 시간을 30분 정도 일찍 조정할 수 있으며, 육아를 위해 조퇴할 때, 휴가일수에서 삭감하지 않고 상사에게 구두 보고하면 허용되는 직장분위기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는 중국의 기업이나 기관은 육아에서 만큼은 배려해 주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으로 직장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을 위한 문화조성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한편 북경의 일부 직장에서는 수유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유 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직장여성들에게 매일 2시간씩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기존 제도의 활성화와 더불어 출퇴근유연제, 단축근무제(1일 1시간 단축)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 유아원 운영시간 연장

북경과 연변 지역의 유아원 운영시간은 보통 오전 7시30분~8시에 개원해서 오후 5시에는 문을 닫는데, 기관에 따라서는 이보다 일찍 닫는다. 퇴근시간 이후 및 주말에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1차적인 육아 주체이기는 하나, 대부분 조부모가 주중에 함께 거주 또는 근거리에서 거주하면서 기관이용 시간(3~6세 유아) 및 시간제 프로그램 이용시간(0~2세 영

아) 이외의 나머지 시간에 손자녀를 돌보는 주요한 육아 지원자이다. 일부 가정에서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여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었다. 근로시간과 운영시간의 차이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가구의 추가 비용부담이 크며, 돌봄인력 지원의 요구도 큰 상황이다. 정책적으로 취업모의 요구를 고려한 유아원 운영시간의 연장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라) 돌봄서비스 지원 시설 확충

북경과 연변 지역 모두 산후조리에서부터 평일 양육, 긴급하게 자녀돌봄이 필요할 경우 등 출산과 양육에 있어 조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영아를 위한 공공 보육시설이나 영유아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적인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양육지원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 육아지원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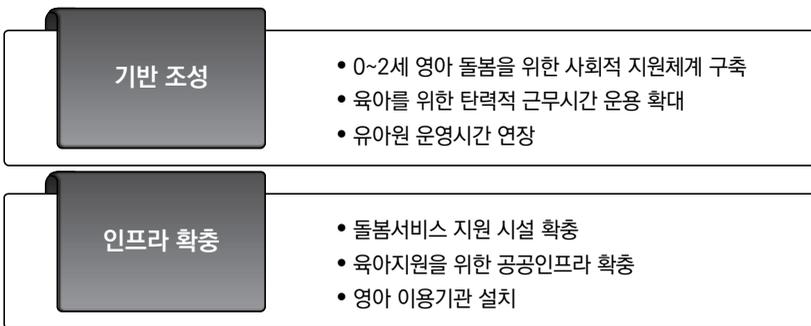
심층면담을 통해서 여가시간에 자녀와 함께 이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예: 연극, 뮤지컬, 체조)은 모두 부모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비용도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주변의 공공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중과 주말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확충하되, 북경의 경우 공기의 질과 날씨의 영향으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으므로 도서관, 박물관 및 실내 운동시설 등

을 확대하여 육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바) 영아 이용기관 설치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장경제를 시작하면서 전의 탁아소들이 폐원하였고 현재는 거의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이다.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만 3세 전 영아를 보낼만한 탁아소가 주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취업모들은 가정에서 개별적인 돌봄이 제공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인식하였고, 이는 자녀가 24개월이 지나야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결과(노성향, 2010)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이 영아양육에 대해서는 가정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으므로 휴직을 통한 시간지원,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과 병행하여 가정돌봄이 여의치 않은 경우를 위한 영아전담 기관의 신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안한 정책 과제들을 정리하면 [그림 5-2-1]과 같다.

그림 5-2-1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



다. 저출산 해결의 한중 공조를 위한 향후 과제

1) 출산·육아 정책 관련 이슈 공유를 위한 채널 구축

한국의 다양한 저출산 정책과 제도는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의 100%를 보장하는 중국의 생육보험 제도의 공과는 한국형 생육보험 도입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 문제는 시기를 달리할 뿐, 유사한 양상으로 보이고 있으므로, 양국의 정책 공유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교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육아지원 서비스 산업(산후조리원 등)의 민간교류 지원

중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한국과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한 연변 지역에는 출산 지원을 위한 산후조리원이 일부 운영되고 있어 조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통해 다양한 육아정보를 제공받고 있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의 모델을 적용하여 양질의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교류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3) 중국의 영유아 시장 진입방안 모색

육아지원 기관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경과 연변 지역의 가정에서는 유아원 입학 이전의 영아들이 문화센터라고 하는 단기 학원을 이용하고 있어 영아 돌봄의 대체제로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자녀의 교육과 성취에 높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한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과 출산율 간의 관련성을 예측한 연구들은 산업화와 소득 증대에 따라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며,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가 자녀의 수에 대한 수요보다 크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비용지출이 증가하고, 출산율은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다(박찬화, 2012). 돌봄 공백을 메우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한 모델 구축을 통해 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부모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참고문헌 Ⅱ

[국문자료]

- 곽승주·강유선(2017). 영유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가치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2(2), 185-209.
- 김도경(2015). 인구 고령화와 중국의 정책 대응-빠르게 늘어갈 중국 사회. *성균 차이나포커스*, 20, 5-17.
- 김영미·송하나(2015).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9(2), 71-88.
- 김은설·도남희·왕영희·송요현·이예진·정영혜·김영원(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운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 전국보육실태 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남정은(2013). 젊은 세대의 양육과 가치관에 관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2), 441-460.
- 노성향(2010). 취업여성의 영아 보육 현황과 육아 지원 방안. *한국아동복지학*, 33, 111-12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 11. 27). 중국 전면적 두자녀 정책 시행 배경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18(19).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류지·송차이(2015). 인구 고령화와 중국의 정책 대응-‘조건부 두 자녀’에서 ‘전면 두 자녀’로. *성균 차이나포커스*, 20, 18-35.
- 문무경·양미선·이운진·박원순·Jiaxiong Zhu·Minyi Li(2015).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 문익준(2016).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 한국과의 비교. *중소연구*, 40(2), 7-45.
- 박광준·오영란(2011). 중국계획출산정책의 형성과정. *한국사회정책*, 18(4), 203-235.

- 박찬화(2012). 10개월 이하 영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지원체계, 자녀가치관 및 심리적 안녕감이 둘째아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1), 95-111.
- 서문희(2011). 중국 동포 자녀 가치 및 양육 실태 연구: 한족과 조선족 비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11-03-16.
- 신윤정(2015). 저출산에 대응한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정책 비교. 보건복지포럼, 80-89.
- 이삼식·김익기·최효진·杜鹏·陆杰华·奥山正司·高橋泉(2013). 한·중·일 인구동향과 인구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유계숙·윤홍식·최효진(2008).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성란(2014). 중국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중진국합정 연구. 중소기업연구, 38(4), 131-154.
- 이정원(2007). 유아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 합리적-가치적 선택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라·박수경·홍소영(2013). 첫 자녀를 둔 가구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유아교육연구, 33(1), 259-277.
- 정상은(2016). 중국의 출산 정책이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중국학 연구, 75, 231-249.
- 정혜은·진미정(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147-164.
-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2015.12.7.). 중국 두 자녀 인구정책.
- 조성호(2015). 부부의 가사 및 육아분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여성경제연구, 12(1), 163-187.
- 조정(2014). 중국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짱스위엔(2017). 중국 인구정책의 변화과정과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산아제한' 정

책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까지.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우석(2003). 환경교육의 토대로서 생명관과 가치관 변화 기제에 관한 연구: 온생명론의 교육적 측면에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평단평(2007). 한국과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 비교: 현대여성을 중심으로. 부산의 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황진영·정상은(2012).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거시경제 변수 간의 인과관계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24(3), 157-186.

황관·김종호(2014). 중국의 인구정책 혁신: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0(3), 169-189.

[중문자료]

靳永愛·宋健·陈卫(2016). 全面二孩政策背景下中国城市女性的生育偏好与生育计划. 人口研究, 40(6), 22-37.

王培安(2014). 做好新形势下的计划生育工作. 人口研究3-15.

张祎(2016). 论全面二孩政策的配套鼓励措施. 经贸实践, 155-156(<http://www.doc88.com/p-7764594196314.html>에서 2017. 6. 20 인출).

翟振武·李龙·陈佳鞠(2016a). 全面两孩政策对未来中国人口的影响. 东岳论丛, 37(2), 77-88.

翟振武·李龙·陈佳鞠(2016b). 全面两孩政策下的目标人群及新增出生人口估计. 人口研究, 40(4), 35-51.

陈淑君·李欣(2017). 二孩政策下女性社会保障的探讨(<http://www.dylw.net/shangyeyingji/233011.html>에서 2017. 6. 14 인출).

贺丹(2017). 关于全面两孩政策问题的五个金句(http://www.sohu.com/a/143170693_687873에서 2017. 6. 20 인출).

人力资源和社会保障统计快报数据(2015, 2016). 生育保险(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zwgk/szrs/dtyjsu/201702/t20170215_266193.html에서 20170. 6. 14 인출).

新文化网(2012. 12. 26). 延边州新规：朝鲜族家庭生育二胎补贴5万(<http://news.xwh.cn/news/system/2012/12/26/010314654.shtml>)에서 2017. 7. 14 인출).

[영문자료]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ai, F. and D. Wang(2006). "Demographic Transition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ragon and the Elephant: China and India's Economic Reform, 2006.

Liu, J. (2015). Analysis on the knowledge and cognition of local people towards family planning policy in China: Focusing on two-child policy for only-child parent.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UN(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UN(2017). 2017 Revision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

Wang, F. and A. Mason(2005). "Demographic Dividend and Prospect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United Nations Expert Group Meeting on Social Economic Implications of Changing Population Age Structure, UN/POP/PD/2005/5, 2005.

Zhang, J. and Lee, R. (2003). Rising Longevity, Education, Saving, and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70, 83-101.

[웹 사이트]

2017년 전국 출산 휴가에 관한 최신 규정

① 전국(2017.06.08. 인출), <http://www.yjbys.com/wage/249243.html>

② 북경시/길림성(2017.06.15. 인출), <http://www.yjbys.com/wage/249245.html>
길림성 연결시 위생 및 계획생육국 사이트 <http://wsj.yanji.gov.cn/news/deteil/5/24/66> (2017. 6. 8 인출).

길림성 인구 및 가족계획 http://www.jlrd.gov.cn/dfxfg/201604/t20160407_2192128.html (2017. 6.18 인출)

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 실시에 대한 해석 <http://rsj.mhk.gov.cn/Article/ShowArticle.asp?ArticleID=644> (2017. 6. 15 인출).

두산백과. ① 연변조선족자치주. (2017.7.14. 인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5681&cid=40942&categoryId=40012>
② 중국. (2017.7.10. 인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3419&cid=40942&categoryId=34031>

북경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http://www.bjrd.gov.cn/tzgg/201603/t20160325_161814.html (2017. 6. 8 인출).

북경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에 대한 해석 <http://bj.bendibao.com/news/201617/213422.shtm> (2017. 6. 18 인출).

북경시 둘째아 출산 시 출산 휴가 규정 2017 <http://www.yjbys.com/news/522923.html> (2017. 6. 18 인출).

상하이저널(2017. 7. 27기사). 2020년 중국 1인당 GDP 1만달러 시대. <http://shanghaibang.com/shanghai/news.php?code=&mode=view&num=44614&page=1&wr=> (2017. 7. 14 인출).

위키백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 https://ko.wikipedia.org/wiki/%EC%98%8C%EB%B3%9C_%EC%A1%B0%EC%84%A0%EC%A1%B1_%EC%9E%90%EC%B9%98%EC%A3%BC(2017. 7. 14. 인출).

중국국가통계국(2016).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 <http://www.stats.gov.cn/tjsj/nds/2016/indexeh.htm>(2017. 7. 14 인출).

중국행정구획총람. 베이징직할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2198&cid=43792&categoryId=51740>(2017. 7. 14. 인출).

중국행정구획총람. 연변조선족자치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7324&cid=43792&categoryId=51740>(2017. 7. 14. 인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 위원회 <http://www.nhfpc.gov.cn/zwgk/falv/201606/1c0ac828bce44560bd2389cba203663b.shtml> (2017. 6. 1. 인출).

BEIJING STATISTICAL YEARBOOK(2016). <http://www.bjstats.gov.cn/nj/main/2016-tjnj/zk/indexeh.htm>(2017. 6. 27. 인출).

IMF(2017). 중국 1인당 GDP. (2017. 7. 14일자 네이버 검색).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 ty.top&where=nexearch&query=%EC%A4%91%EA%B5%AD+1%EC%9D%B8%EB%8B%B9+gdp&query=%ED%95%9C%EA%B5%AD+1%EC%9D%B8%EB%8B%B9+gdp&ie=utf8&tqi=TTlAClpySDosstPSbx4ssssssSK-015131

Jilin Statistical Yearbook(2016). <http://tjj.jl.gov.cn/tjnj/2016/ml/indexe.htm> (2017. 07. 11.인출).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 홈페이지 <http://data.stats.gov.cn/english/tablequery.htm?code=AC01> (2017. 7. 17 인출).

The World Bank 홈페이지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locations=CN>(2017. 07. 17. 인출).

World bank (updated 2017. 7. 3.) Health nutrition and population statistics. <http://databank.worldbank.org/data/reports.aspx?source=health-nutrition-and-population-statistics&savedlg=1&l=en#>(2017. 7. 13 인출).

中华人民共和国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중국위생과출산계획위원회) (updated 2015. 11. 6.). Q&A about the new two-child policy. http://en.nhfpc.gov.cn/2015-11/06/c_45715.htm(2017. 7. 16 인출).

부록

1. 면담 질문지
2.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
3.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중문)



부록 1. 면담 질문지

가. 부모면담지

면담 질문지 访谈问卷

〈부모 면담〉 家长访谈

부모의 일반적 배경 家长的个人背景			자녀의 일반적 배경 子女个人背景		
1. 연령 年龄	부父	만(周岁) 세(岁)	1. 자녀 수 子女总数	총 자녀 수(子女总数) _____ 명(名) (취학 전 자녀 수 _____ 명(名)) 学前子女总数	
	모母	만(周岁) 세(岁)		〈취학전 자녀 연령〉学前子女的年龄 취학전 자녀 1: 만()세 学前的子女 1: 周岁 岁	
2. 취업여부 就业与否	부父			취학전 자녀 2: 만()세 学前的子女 2: 周岁 岁	
	모母			취학전 자녀 3: 만()세 学前的子女 3: 周岁 岁	
3. 직업 职业	부父			2. 취학전 자녀 1 学前子女 1	성별 性别
	모母		기관이용 여부 学前教育机构的利用 状态 (예: 유아원 등)幼儿园等		이용함 利用 () 이용안함 不利用 ()
4. 주당 근무일 및 시간 一周的工作 日及工作 时间	부父	근무요일工作日为 星期 _____ 주당 一个星期 _____ 시간 个小时	3. 취학전 자녀 2 学前子女 2	성별 性别	
	모母	근무요일工作日为 星期 _____ 주당 一个星期 _____ 시간 个小时		기관이용 여부 学前教育机构的利用 状态	이용함 利用 () 이용안함 不利用 ()
5. 월평균 소득 每个月的 平均收入	부父	위안(세후)税后 _____ 元	4. 취학전 자녀 3 学前子女 3	성별 性别	
	모母	위안(세후)税后 _____ 元		기관이용 여부 学前教育机构的利用 状态	이용함 利用 () 이용안함 不利用 ()
				이용기관 유형 利用机构的类型	

*출산 관련 질문 生育相关问题

1. 임신기간 중 어려움(건강, 의료시설, 경제적 문제 등)
怀孕期间中经历过什么样的困难? (健康, 医疗设备, 经济问题等)

2. 출산 후 가장 걱정되는 부분
产后最担心的事情是什们?

3.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이용하신 경험
有利用产假, 育儿假, 育儿期的工作时间短缩制度的经验吗?

3-1. 제도 중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这些制度中需要改善的部分有哪些?

4. 후속출산 계획 여부/이유
以后有继续生孩子的计划吗? 有或者没有的话理由是什么?

*육아 관련 질문 育儿相关问题

1. 현재 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 平时主要照顾孩子的人是谁?
1-1. 아이를 돌보는 데 소요되는 하루 평균 시간 为了照顾孩子一天平均花多长时间?

2. 자녀의 기관 이용의 어려움, 정부지원
孩子利用学前教育机构时遇到过困难吗?
孩子利用学前教育机构时能得到政府的资助吗?

3. 긴급하게 대리양육이 필요할 때 주로 도움을 받는 사람 또는 기관
紧急需要孩子的代替照顾者的时候一般跟谁或者机构求助?

4. 주 양육자/육아시 역할
平时主要照顾孩子的人是谁? 育儿时负责什么样的角色?

5. 양육의 어려움(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

育儿时遇到过什么样的困难? (心理压力最大的情况是什么样的情况?)

6.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为了减少育儿时的负担需要什么样的帮助?

나. 공무원 면담지

면담 질문지 访谈问卷

〈공무원 면담〉 公务员访谈

*일반적 배경 个人背景

1. 연령 年龄	(만) _____ 세 周岁 _____ 岁	2. 소속 工作部门	
3. 직 위 岗位		4. 재직 경력 工作经历	_____ 년 年
5. 전공 분야 研究方向与专业			

*관련 질문 相关问题

1. 최근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양육관 변화 요인

现在的年轻一代的结婚, 生育, 育儿的观点变化的原因是什么?

2. 전면적 둘째 허용 정책의 현 시점에서의 효과(출산율 증가 등)/기대 효과

全面开放二胎政策以后现在能看到哪些效果?

(生育率的增加等)/以后能期待什么样的效果?

2-1. 위반시 제재 조치/유인책

违反二胎政策时会有什么样的法律制裁? 政府对二胎政策的推动策略有哪些?

3.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산지원 및 육아 정책(임신, 출산전·후, 육아 등)

现在有哪些生育援助政策与育儿援助政策在进行?

(怀孕, 生育的前后, 育儿等方面)

3-1. 출산휴가 규정(차별점)/활용(활성화)

产假有什么样的规定?跟别的国家的产假有什么样的区别?

现在为了让更多的人享受产假作出什么样的努力?

3-2. 양육부담 경감 정책 有为了减轻家长的育儿负担的政策吗？

3-3. 재정지원 정책 有育儿时能得到的资助吗？

4. 출산보험 제도 개요 生育保险制度的主要内容有哪些？

4-1. 개선점 및 향후 계획 有今后需要改善的点吗？以后会实行什么样的计划？

5. 모자보건 서비스 개요 및 지원 사항 母子保险服务的概要与援助事项

다. 전문가 면담지

면담 질문지 访谈问卷

〈전문가 면담〉 专家访谈

*일반적 배경 个人背景

1. 연령 年龄	(만) _____ 세 周岁 _____ 岁	2. 소속 工作部门	
3. 직 위 岗位		4. 재직 경력 工作经历	_____ 년 年
5. 전공 분야 研究方向与专业			

*관련 질문 相关问题

1. 최근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양육관 변화 요인
最近年轻一代的结婚, 生育, 育儿的观念变化的原因是什么?
2. 출산율 감소 원인 및 대책
生育率下降有什么原因和对策?
3. 전면적 둘째 허용 정책의 현 시점에서의 효과/기대 효과
全面开放二胎政策以后现在能看到哪些效果? 以后能期待什么样的效果?
4. 중국의 출산 및 양육 특성(여성 취업, 가사분담 등)
中国的生育与育儿的特征是什么? (女性的就业或者家务的分担等)
5.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현 정책/개선점
现在有哪些为了怀孕, 生育, 育儿的政策? 现在的政策有什么样的需要改善的地方?
6. 중국의 인구변화 및 향후 인구정책 방향
现在能看到的中国的人口变化的特征和今后中国人口政策的改革方向是什么?

부록 2.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대한민국의 육아정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중국의 출산·육아정책 및 실태 분석」 연구의 일환으로 중국 북경과 연변지역의 출산 및 육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대한민국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2017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본 설문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관 : 더리서치그룹 유은주 부장

연구진 :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 eyny@kicce.re.kr

엄지원 연구원 gracejiwon@kicce.re.kr

※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명

1-1. 자녀 중 취학전 자녀는 몇 명입니까? (※ 취학전 자녀는 만0~5세를 뜻함) ()명

1-2. 취학 전 자녀의 출생년월 및 성별은 어떠합니까?

(※ 취학전 자녀만 응답)	출생년월	성별
취학전 자녀 1	()년 ()월 (나이자동계산)	①남 ②여
취학전 자녀 2	()년 ()월 (나이자동계산)	①남 ②여
취학전 자녀 3	()년 ()월 (나이자동계산)	①남 ②여

I. 출산 및 출산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 0-5세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1. 귀하의 출산휴가를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문항 1-1) ② 없다(☐ 문항 1-3)

1-1. (출산휴가 이용한 경우) 출산휴가를 얼마동안 이용하셨습니까?
 산전 ()일 산후 ()일 총 ()일 (자동계산)

1-2. (출산휴가 이용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 충분하셨습니까?
 ① 매우 불충분 ② 다소 불충분 ③ 보통 ④ 충분했음 ⑤ 매우 충분했음

1-3. 어느 정도의 출산휴가 기간이 보장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일

2. 귀하의 배우자(남편)는 출산동반휴가를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문항 2-1) ② 없다(☐ 문항 2-2)

2-1. (출산동반휴가 이용한 경우) 출산동반휴가를 얼마동안 이용하셨습니까?
 총 ()일

2-2. (출산동반휴가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② 직장 일이 바빠서
 ③ 남편의 출산동반휴가를 양도받아 아내(산모)가 길 ④ 기타()
 계 사용

3. 출산 후 산후조리를 도와준 사람(기관)은 누구입니까? 해당되는 사람(기관)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친정부모 ② 시부모 ③ 베이비시터(☐ 문항 3-1)
 ④ 산후조리원(☐ 문항 3-1) ⑤ 기타() ⑥ 주변 도움 없이 부부가 함께 함.

3-1. (베이비시터/산후조리원 이용한 경우) 이용기간은 총 몇 일입니까?
 총 ()일

3-2. (베이비시터/산후조리원 이용한 경우) 이용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총 ()위안

4.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 현재 임신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있다'에 응답)

- ① 있다(☐ 문항 4-1) ② 없다(☐ 문항 4-4)
 ③ 생각 중/잘 모르겠음(☐ 문항 4-4)

4-1. (추가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몇 명의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 (※ 현재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
 총 ()명

4-2. (추가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선호하는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아(☐ 문항 7-3) ② 여아(☐ 문항 7-3)
 ③ 선호 없음(☐ II. 육아설문)

4-3. (선호하는 자녀성별이 있는 경우) 해당 성별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어주세요:)

4-4.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거나 망설이는 중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② 교육비 부담 때문에
 ③ 직장생활로 바빠서 ④ 건강이 안 좋아서(불임, 질병 등)
 ⑤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⑥ 부모 나이가 많아서
 ⑦ 개인시간(자기개발, 여가 등)이 필요해서 ⑧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조부모 및 친인척 등)
 ⑨ 기타()

5. 귀하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

6. 정부의 두 자녀 전면 허용정책이 추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① 전혀 영향 없음 ② 어느정도 영향 없음 ③ 보통 ④ 어느정도 영향 받음 ⑤ 매우 영향 받음
7. 자녀 임신 및 출산 시 정부로부터 다음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각 지원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만족도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인지 여부		② 이용 유무		③ 만족도				
	알고 있음	모름	지원 받음	지원받지 않음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7-1. 출산휴가					1	2	3	4	5
7-2. 출산 보조금					1	2	3	4	5
7-3. 모자보건서비스					1	2	3	4	5
7-4. 자녀 보조금					1	2	3	4	5

8. 귀하는 출산보험에 가입하였습니까?
 ① 가입함(☞ 문항 8-1) ② 가입하지 않음(☞ 문항 8-2)

8-1. (출산보험 가입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직장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았습니까?

- ① 출산휴가 전체기간 동안 통상 월급의 100%를 받음
 ② 출산휴가 일부기간 동안 통상 월급의 100%를 받음 (기간: _____ 일)
 ③ 출산휴가 전체기간 동안 통상 월급의 일부를 받음 (월급의 % 받음)
 ④ 출산휴가 일부기간 동안 통상 월급의 일부를 받음 (기간: _____ 일) (월급의 % 받음)
 ⑤ 기타(_____)

II. 육아에 관한 질문입니다.

※ 0~5세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1. 자녀가 현재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① 탁아소(☞ 문항 1-1) ② 유아원(☞ 문항 1-1) ③ 이용하지 않음(집에서 돌봄) (☞ 문항 2)

1-1. (이용하는 경우) 현재 이용기관은 이용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용기간: ()년 ()개월

1-2. (이용하는 경우) 현재 이용기관은 평일기준으로 하루에 몇 시간 이용하십니까?

이용시간: _____시_____분부터 _____시_____분 까지

(총시간 자동계산)

1-3. (이용하는 경우) 현재 이용기관의 한 달 평균 이용비용은 얼마입니까?

이용비용: 월 ()위안

1-4. (이용하는 경우) 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4가지 선택)

- ① 기관 부족 (충분하지 않음) 및 대기 기간 ② 이용비용 부담
 ③ 집에서 기관까지의 거리가 가깝지 않음(20분 이상 걸림) ④ 부모 근로시간보다 기관 운영시간이 짧음
 ⑤ 기관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미흡 ⑥ 기타 ()

2. 평일 기준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엄마 () 시간 ② 아빠 () 시간 ③ 친조부모 () 시간 (☞ 문항 2-1)
 ④ 외조부모 () 시간 (☞ 문항 2-1) ⑤ 친인척 () 시간 (☞ 문항 2-1) ⑧ 베이비시터 () 시간 (☞ 문항 2-1)
 ⑦ 기타 () () 시간 (☞ 문항 2-1)

2-1. 자녀를 돌보는 사람(조부모, 친인척, 베이비시터 등)에게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 ① 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② 비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③ 현물로 지불
 ④ 지불 안 함(☞ 문항 3)

2-2. (지불하는 경우) 지불하는 돈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내주십시오.

월 () 위안

9. 다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는 부모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결혼한 부모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III. 출산 및 육아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정부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문항 1-1) ②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한다 (☞ 문항 1-1)
 ③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 문항 2) ④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 (☞ 문항 2)
 ⑤ 모르겠다 (☞ 문항 2)

1-1. 정부가 출산·육아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항목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② 베이비시터 인력 관리	③ 공립유아원 확충	④ 비용 지원(유아원비, 양육수당 등)
⑤ 유아원 운영시간 연장	⑥ 자녀 건강 관련 지원(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확대	⑦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공기질 개선, 교통안전 등)	⑧ 영유아 문화 및 놀이시설 확대
⑨ 기타()	⑩ 없음		

2. 귀하는 직장(회사, 기업 등)에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④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
 ⑤ 모르겠다

3. 현재 집 또는 거주지 주변에 아래의 기관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충분성	이용가능 기관 수
3-1) 탁아소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보통 ④ 약간 충분 ⑤ 매우 충분	()개
3-2) 유아원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보통 ④ 약간 충분 ⑤ 매우 충분	()개
3-3) 놀이터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보통 ④ 약간 충분 ⑤ 매우 충분	()개
3-4) 도서관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보통 ④ 약간 충분 ⑤ 매우 충분	()개
3-5) 미술관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보통 ④ 약간 충분 ⑤ 매우 충분	()개
3-6) 박물관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보통 ④ 약간 충분 ⑤ 매우 충분	()개
3-7) 문화센터	① 매우 부족 ② 다소 부족 ③ 보통 ④ 약간 충분 ⑤ 매우 충분	()개

4. 귀하는 0-2세 영아가 다닐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5. 귀하는 0-2세 영아 자녀의 경우 어떻게 돌보기를 원하십니까?
 ① 향후 국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여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돌본다.
 ② 조부모, 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아 가정에서 돌본다.
 ③ 가정에서 돌보기가 여의치 않으므로 적합한 기관을 이용한다.(☞ 문항 5-1)
 ④ 기타 ()

부록 3.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중문)

中国生育及育儿情况问卷调查

您好！

韩国育儿政策研究所是韩国国务总理室直属的‘经济与人文社会研究会’下属的国家政策研究机构，为综合、系统地执行韩国育儿政策而设立。

本问卷调查为育儿政策研究所进行的“中国生育、育儿政策及情况分析”课题研究的一环，旨在了解中国北京地区和延边地区的生育及育儿情况。请您在百忙之中协助我们，认真回答每项问题。您回答的内容将依照韩国统计法，仅使用于资料统计和研究的目的，并且对个人信息严格保密。

2017年 8月
育儿政策研究所所长

※ 子女相关问题			
1. 您共有几名子女？[填空题]		()名	
1-1. 学龄前子女有几名？（※学龄前儿童指的是满周岁0~5岁的儿童）[填空题]		()名	
1-2. 学龄前子女的出生日期及性别是什么？[填空题+单选题]			
(※仅限学龄前子女)	出生日期	年龄	性别
第1名学龄前子女	()年 ()月	()周岁	①男 ②女
第2名学龄前子女	()年 ()月	()周岁	①男 ②女
第3名学龄前子女	()年 ()月	()周岁	①男 ②女

Part I. 生育及生育计划相关问题

※ 以下问题，请在0-5岁子女中以年龄最小的子女作为背景条件来做答。

S1. 您享用过产假吗？[单选题]

- ① 有 (⇒续问问题 1-1) ② 没有 (⇒跳问问题 1-3)

1-1. (仅限第1项问题中，答案为①的人回答) 您享用的产假是多少天？[填空题]

产前 ()天 产后 ()天 总共 ()天 (自动算出)

1-2. (仅限第1项问题中，答案为①的人回答) 您觉得产假天数足够吗？[单选题]

- ① 完全不够 ② 有点不够 ③ 一般 ④ 足够 ⑤ 完全足够

1-3. (所有答题人回答)您觉得产假应该保证多少天？[填空题]

共 ()天

S2. 您的配偶(丈夫)享用过陪产假吗？[单选题]

- ① 有 (⇒续问问题 2-1) ② 没有 (⇒跳问问题 2-2)

2-1. (仅限第2项问题中，答案为①的人回答)您配偶享用的陪产假是多少天？[填空题]

共 ()天

2-2. (仅限第2项问题中，答案为②的人回答)没有享用陪产假的原因是什么？[多选题]

- ① 因单位氛围，不便申请 ② 因工作太忙
③ 把丈夫的陪产假转让给妻子(孕产妇)，以便妻子享受更长的假期 ④ 其他()

S3. 产后帮您坐月子的人(机构)是谁？请选择符合人士(机构)。[多选题]

- ① 娘家父母 ② 婆家父母 ③ 月嫂/保姆 (⇒续问问题 3-1)
④ 月子中心 (⇒续问问题 3-1) ⑤ 其他() ⑥ 没有周边的帮助，夫妻两人解决

3-1. (仅限第3项问题中，答案为③、④的人回答)产后请月嫂/保姆或在月子中心帮您坐月子的时间有多长？[填空题]

共 ()天

3-2. (仅限第3项问题中，答案为③、④的人回答)其费用共计多少？[填空题]

共 ()元 -

S4. 日后您还有生育计划吗？(※如果目前已怀孕，请选择答案①) [单选题]

- ① 有 (⇒续问问题 4-1) ② 没有 (⇒跳问问题 4-4)
③ 正在考虑/不知道 (⇒跳问问题 4-4)

4-1. (仅限第4项问题中，答案为①的人回答)您计划再要几名子女？(※包括腹中胎儿) [填空题]

共 ()名

4-2. (仅限第4项问题中，答案为①的人回答)您偏爱的子女性别是什么？[单选题]

- ① 男孩 (⇒问题 4-3) ② 女孩 (⇒问题 4-3)
③ 没有特别要求 (⇒跳问 Part II. 育儿问卷)

4-3. (仅限4-2项问题中，答案为①、②的人回答)偏爱该性别的理由是什么？[填空题]

()

4-4. (仅限第4项问题中，答案为②、③的人回答)如果没有生育计划或者正在犹豫，其原因是什么？[多选题]

- ① 抚养费负担重 ② 教育费负担重
③ 工作太忙 ④ 身体健康原因(不孕、疾病等)
⑤ 满足于目前膝下子女 ⑥ 因父母年老
⑦ 需要个人时间(自我开发、业余活动等) ⑧ 没有可照顾子女的人(祖父母或亲戚等)
⑨ 其他()

※以下问题，请在0-5岁子女中以年龄最小的子女作为背景条件来做答。

S5. 您认为有几名子女最为合适？[填空题]

()名

S6. 政府的全面放开二胎政策，对您日后的生育计划产生影响了吗？[单选题]

- ① 完全没有 ② 一定程度上，没有影响 ③ 一般 ④ 一定程度上，受到影响 ⑤ 影响非常大

S7. 怀孕及分娩时是否从政府获得以下福利？请对福利的认知、享受与否、满意度进行回答。[单选题]

区分	① 知道与否		② 享受与否		③ 满意度				
	知道	不知道	享受福利	未享受福利	非常不满意	有点不满意	一般	有点满意	非常满意
7-1. 产假 【指在职妇女产期前后的休假待遇】					1	2	3	4	5
7-2. 生育津贴 【指国家法律、法规规定对职业妇女因生育而离开工作岗位期间，给予的生活费用。】					1	2	3	4	5
7-3. 母婴保健服务 【包括孕产期保健和婴儿保健，如：为孕产妇建立保健手册（卡），定期进行产前检查；建立儿童保健手册（卡），对婴儿进行预防接种等】					1	2	3	4	5
7-4. 子女补助 【如独生子女补助费等。】					1	2	3	4	5

S8. 您是否参加了生育保险？[单选题]

- ① 参加(⇒续问问题 8-1) ② 没有参加(⇒跳问 Part II. 育儿问卷)

8-1. (仅限第8项问题中，答案为①的人回答) 产假期间从单位领取的工资有多少？[单选题+填空题]

① 产假的所有期间领取正常工资的100%

② 产假的部分期间领取正常工资的100%(天数: _____天)

③ 产假的所有期间领取正常工资的一部分(领取工资的 _____%)

④ 产假的部分期间领取正常工资的一部分(天数: _____天)(领取工资的 _____%)

⑤ 其他(_____)

Part II. 育儿相关问题

※以下问题，请在0-5岁子女中以年龄最小的子女作为背景条件来做答。

P1. 目前子女在上幼儿教育机构(托儿所或幼儿园)吗? [单选题]

- ① 托儿所(≡续问问题 1-1) ② 幼儿园(≡续问问题 1-1) ③ 没有上(在家照顾) (≡跳问问题 2)

1-1. (仅限第1项问题中, 答案为①, ②的人回答) 目前所上的幼儿教育机构(托儿所或幼儿园), 已经上了多长时间? [填空题]
已经上了: () 年 () 个月

1-2. (仅限第1项问题中, 答案为①, ②的人回答) 目前所上的幼儿教育机构(托儿所或幼儿园), 以普通工作日(周一至周五)为准的一天(24小时制)中上几个小时? [填空题]
上的时间: _____ 时 _____ 分开始入园, 到 _____ 时 _____ 分结束回家
(总利用时间自动算出)

1-3. (仅限第1项问题中, 答案为①, ②的人回答) 目前所上的幼儿教育机构(托儿所或幼儿园), 每月平均费用为多少? [填空题]
费用: 每月 () 元

1-4. (仅限第1项问题中, 答案为①, ②的人回答) 在上述这些幼儿教育机构(托儿所或幼儿园)时, 最大的困难是什么? [单选题]

- ① 幼儿教育机构数量不足(不充分)及入园等待时间 ② 费用负担
③ 从家到幼儿教育机构的距离远(需20分钟以上) ④ 幼儿教育机构的运营时间比父母的工作时间短
⑤ 幼儿教育机构的教育课程水平不足 ⑥ 其他 ()

P2. 以普通工作日(周一至周五)为准的一天中(24小时制), 谁在家照顾孩子的时间最长? [单选题+填空题]

- ① 妈妈 () 小时 ② 爸爸 () 小时 ③ 爷爷奶奶 () 小时 (≡问题 2-1)
④ 外公外婆 () 小时 (≡问题 2-1) ⑤ 亲戚 () 小时 (≡问题 2-1) ⑥ 保姆 () 小时 (≡问题 2-1)
⑦ 其他(详细填写: _____) () 小时 (≡问题 2-1)

2-1. (仅限第2项问题中, 答案为③, ④, ⑤, ⑥, ⑦的人回答) 您向照顾孩子的人(祖父母、亲戚、保姆等)支付费用吗? [单选题]

- ① 定期支付现金
② 非定期支付现金
③ 以实物支付
④ 不支付 (≡问题 3)

2-2. (仅限2-1项问题中, 答案为①, ②, ③的人回答) 所支付的费用是每月平均多少? 如果以实物支付, 请换算为现金, 并算出平均。

每月 () 元

P3. 昨天和上周末孩子与妈妈或爸爸在一起的时间有多长? (※ 以24小时为基准) [填空题]

※ 排除孩子睡觉的时间)

昨天(一整天)	妈妈	共 () 小时	
	爸爸	共 () 小时	
上周末(一整天)	妈妈	共 () 小时	
	爸爸	共 () 小时	

P4. 妈妈和爸爸的育儿及家务活参与比率是多少? [填空题]

育儿	① 妈妈() %	② 爸爸() %	两者相加需等于 100%
家务	① 妈妈() %	② 爸爸() %	两者相加需等于100%

P5. 用在孩子身上的花费(为孩子支出的费用)每月平均是多少, 且对家庭的负担如何? [填空题+单选题]

区分	① 月平均费用(元)	② 负担程度				
		完全没有负担	相对没有负担	适当	多少有些负担	非常有负担
5-1. 育儿费用(例: 奶粉、尿片等)	_____	1	2	3	4	5
5-2. 托儿所及幼儿园等教育机构的费用	_____	1	2	3	4	5
5-3. 课外辅导费 (例: 课外辅导、特长班、文化中心等)	_____	1	2	3	4	5

Part IV. 个人背景信息相关问题。

※ 以下为儿童父母的相关问题。	爸爸	妈妈
B1. 请填写您和您的配偶的年龄? [填空题]	____ 周岁 [8888 无配偶]	____ 周岁
B2. 您和您的配偶的最终学历是什么? [每列单选题] ① 小学毕业以下 ② 初中毕业 ③ 高中毕业 ④ 专科大学毕业(两年或者三年制) ⑤ 大学毕业(本科四年制学士毕业) ⑥ 研究生毕业(硕士及博士) ⑦ 其他() ⑧ 无符合项(无配偶)	()	()
B3. 您和您的配偶从事什么工作? [每列单选题] ① 老板 ② 个体户 ③ 正式员工 ④ 临时员工 ⑤ 日工(按天数计算工资的临时员工) ⑥ 无报酬家庭从业者 ⑦ 无业(无业、军人、学生、主妇等) (无偿从事家人经营的生意或农场等) ⑧ 无应答、不知道 ⑨ 无符合项(无配偶)	()	()
B4. 您和您的配偶周六上班吗? [每列单选题] ① 上班 ② 不上班 ③ 无符合项(无配偶)	()	()
B4-1. (仅限第4项问题中, 答案为①的人回答)周六的工作时间有多长? [每列单选题] ① 每周六全天 ② 每周六半天 ③ 隔周六全天 ④ 隔周六半天 ⑤ 其他() ⑥ 无应答、不知道	()	()
B5. 您和您的配偶周日上班吗? [每列单选题] ① 上班 ② 不上班 ③ 无符合项(无配偶)	()	()
B5-1. (仅限第5项问题中, 答案为①的人回答)周日的工作时间有多长? [每列单选题] ① 每周日全天 ② 每周日半天 ③ 隔周日全天 ④ 隔周日半天 ⑤ 其他() ⑥ 无应答、不知道	()	()
B6. 您和您的配偶的平时每日工作时间多长? [每列填空题] (※ 请按照24小时制回答) (※ 无业和无配偶请填写8888, 不知道填写9999) (※ 请把吃饭时间包括在内, 休息时间排除之后计算)	时分上班 时分下班 (共 ____小时 ____分 自动算出)	时分上班 时分下班 (共 ____小时 ____分 自动算出)
B7. 您和您的配偶的月平均收入是多少? 请算出过去三个月的月平均收入并填写。 (※ 以税前金额为准确回答) (※ 无业和无配偶请填写8888, 不知道填写9999)	元/月	元/月

感谢您参与此次问卷调查!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분석
: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_ 044-414-1114 FAX_ 044-414-1144

<http://www.kiep.go.kr>

